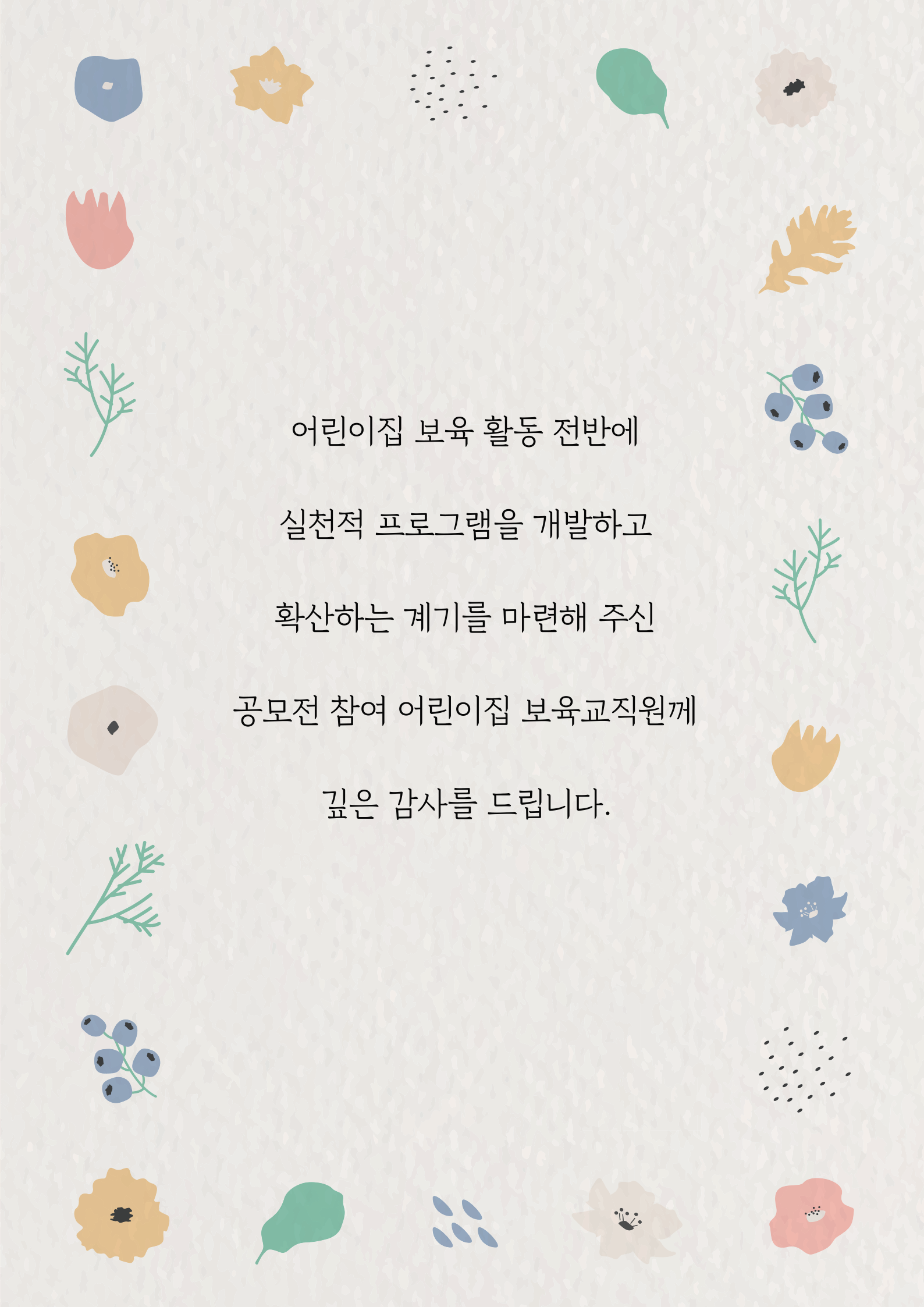


2023년 우수보육 프로그램 사례집



어린이집 보육 활동 전반에

실천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공모전 참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우수보육 프로그램 사례집

- 진행과정
- 공모결과
- 수상프로그램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전

1) 진행과정

- 공모대상 : 경기도 내 어린이집
- 공모주제 : 「일상생활 지원 놀이」
- 프로그램 : 2022년 3월 ~ 2023년 8월 중 3개월 이상 운영 프로그램
 - 공모점수 : 서류심사 100점, 가산점(교육 참여도) 4점 **최종 104점으로 산출**

구분	일정	선정 수	심사 내용
심사진행	2023. 10. 10.(화) ~ 2023. 10. 20.(금)	20개 프로그램 선정	서면심사
심사발표	2023. 10. 31.(화)	상격 선정	홈페이지 게시

2) 공모결과

수상 내역	지역	어린이집명	프로그램명	훈격
대상	파주시	시립금강초롱꽃어린이집	수채화 : 수분을 채우는 생활습관화	경기도지사상
최우수상	하남시	시립강변어린이집	놀면서 자란다 (의존에서 자조로)	
	화성시	시립서연어린이집	천천히, 천천히 우리들의 홀로서기	
	파주시	시립파밀리에어린이집	뿌듯 뿌듯 씻으니 몸도 마음도 뿌듯뿌듯!	
	하남시	시립풍경어린이집	어서와~ 이런 등원은 처음이지?	
우수상	고양시	고양시립아름어린이집	엄마! 왜 벌써왔어?!	
	남양주시	시립다산아이사랑어린이집	우리가 정하는 오늘 (하루일과)	
	용인시	시립역북동원어린이집	구해줘! 면역력	
	시흥시	시립종합복지어린이집	태어난 김에 놀이일주	
	파주시	시립파크푸르지오어린이집	화장실 가기 좋은 날	
장려상	안산시	근로복지공단안산어린이집	인성챌린지? 인성체인지!	경기도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상
	김포시	시립걸포자이어린이집	Q: 놀면 뭐하니? A: 함께 자라지!	
	안성시	삼정어린이집	내가 GREEN(그린) 지구	
	안산시	시립루씨어린이집	쓰리(3) 투(2) 원(1) 출발! 3월부터 시작되는 2롭고 재밌는 1상놀이	
	파주시	시립선유3단지어린이집	지금 여기 미(美)래 “놀이가 나다”	
	하남시	시립위례포레자이어린이집	놀면서 익히는 바른 기본생활습관	
	수원시	시립화서1동어린이집	쑥쑥 텃밭 남남 채소	
	김포시	시립신곡어린이집	맛있는 맛을 찾는 모험	
	오산시	아이뜰어린이집	“알콩 달콩 단잠!”	
	파주시	행복어린이집	대대손손 (Clean Hand Clean Hand 손손)	

(어린이집명 기재 : 오름차순 정렬)

CONTENTS

●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

대 상	[수채화 : 수분을 채우는 생활습관화] 파주시 시립금강초롱꽃어린이집	-----1
최우수	[놀면서 자란다 (의존에서 자조로)] 하남시 시립강변어린이집	----- 19
최우수	[천천히 천천히 우리들의 홀로서기] 화성시 시립서연어린이집	----- 35
최우수	[뿌득 뿌득 씻으니 몸도 마음도 뿌듯뿌듯!] 파주시 시립파밀리에어린이집	----- 51
최우수	[어서와~ 이런 등원은 처음이지?] 하남시 시립풍경어린이집	----- 69
우 수	[엄마! 왜 벌써왔어?!] 고양시 고양시립아름어린이집	----- 87
우 수	[우리가 정하는 오늘 (하루일과)] 남양주시 시립다산아이사랑어린이집	----- 103
우 수	[구해줘! 면역력] 용인시 시립역북동원어린이집	----- 119
우 수	[태어난 김에 놀이일주] 시흥시 시립종합복지어린이집	----- 135
우 수	[화장실 가기 좋은 날] 파주시 시립파크푸르지오어린이집	----- 153
장 려	[인성챌린지? 인성체인지!] 안산시 근로복지공단안산어린이집	----- 169
장 려	[Q: 놀면 뭐하니? A: 함께 자라지!] 김포시 시립결포자이어린이집	----- 187
장 려	[내가 GREEN(그린) 지구] 안성시 삼정어린이집	----- 205
장 려	[쓰리(3) 투(2) 원(1) 출발! 3월부터 시작되는 2롭고 재밌는 1상놀이] 안산시 시립루싸어린이집	- 223
장 려	[지금 여기 미(美)래 “놀이가 나다”] 파주시 시립선유3단지어린이집	----- 241
장 려	[놀면서 익히는 바른 기본생활습관] 하남시 시립위례포레자이어린이집	----- 259
장 려	[쑹쑹 텃밭 낚낚 채소] 수원시 시립화서1동어린이집	----- 277
장 려	[맛있는 맛을 찾는 모험] 김포시 시립신곡어린이집	----- 291
장 려	[“알콩 달콩 단잠!”] 오산시 아이뜰어린이집	----- 307
장 려	[대대손손(Clean Hand Clean Hand 손손)] 파주시 행복어린이집	----- 325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대상>
시립금강초롱꽃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국공립
지 역	파주시
프로그램명	수채화 : 수분을 채우는 생활습관화
총 관	유영인
기획 및 운영	박정은, 윤영은, 최은지

I.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1) 영유아기 수분섭취의 필요성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기본이 되는 요소로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빼놓지 않을 수 없다. 영유아기는 신체의 성장발육이 왕성한 시기로서 활동량이 증가하고 신체의 모든 기능 조절 능력 및 사회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영양공급은 일생의 성장발육의 기초가 되며 지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므로 매우 중요하다(양복미, 2004).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수분’이다.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매일 배출되는 수분의 양만큼 물을 보충해서 체내 70%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선재광, 2022). 특히, 영유아는 성인보다 체표면적비가 크고 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체중 1kg당 수분 필요량이 성인보다 많다(양복미, 2004). 또한, 대기오염,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아토피, 피부 건선 등의 피부염에도 수분 보충과 보습이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따라서, 영유아는 일상생활에서 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성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요구된다.

2) 주도적인 수분 섭취 습관의 필요성

우리 몸은 매 순간 체내 여기저기에서 물을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물 저장 시스템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물을 섭취해 적절한 체내 수분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선재광, 2022). 특히 영유아기의 적당한 수분 섭취는 영유아의 성장발달뿐만 아니라, 하루의 기분과 컨디션에도 크게 관여한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허기를 빨리 느끼고, 변비가 생기고, 짜증이나 우울감을 느끼며, 참을성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이승남, 2008). 일상 중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린이집 일과에 적절히 참여하지 못하고 저조한 컨디션으로 지내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 대부분의 교실에서 유아들의 수분 보충은 성인의 권유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영유아가 스스로 물을 찾아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놀이에 집중을 해 스스로 갈증이 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수분 섭취를 놓치기도 한다. 대부분 바깥놀이 후, 점심 전 등 특정 시간에 교사의 권유로 친구들과 함께 물을 마시며 수동적인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유아들이 스스로 수분섭취의 중요성을 깨달아 수분을 섭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고, 놀이를 통해 스스로 수분을 채우며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기로 하였다.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이론적 배경)

1) 놀이를 통한 수분섭취

영유아는 일상이 놀이이고, 놀이가 일상이다. 영유아는 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과 교감하며 성장해간다. 그리고 자유롭게 놀이할 때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 추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영유아가 자유롭고 즐겁게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누리과정 해설서).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일상생활 속 건강한 수분섭취를 위해 다양한 놀이와 환경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영유아의 흥미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연구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수분섭취에 흥미를 가지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여 주도적으로 수분을 섭취할 때 즐겁게 수분을 섭취하는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습관이 형성되면, 영유아는 몸이 건강해질 뿐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존중하는 경험이 되어 자존감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수분섭취에 관련한 활동의 부재

영유아기의 수분섭취는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하루의 1/3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만큼 보육교사는 ‘영유아 수분섭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이 수분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을 마

시거나 급간식 시간에 제공되는 수분이 함유된 식재료를 먹는 것뿐이다. 영양섭취를 위한 ‘골고루 먹기’, ‘다양한 음식 접하기’, ‘바른 식습관’ 등 ‘식생활’에 대한 다양한 놀이와 프로그램은 많지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놀이나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분을 채우는 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는 놀이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본 어린이집은 영유아와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건강한 수분섭취 습관을 형성하도록 실현하고,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회성의 짧은 놀이가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히 확장되는 놀이를 통해 건강한 수분섭취 습관을 기르고자 한다. 영유아들의 놀이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끊어지며 새롭게 생성되어 가는 연속적 과정으로(표준보육과정 해설서) 교사는 이를 세심히 관찰하고 알맞게 지원하여 영유아의 흥미가 놀이에 잘 반영되도록 도울 것이다.

II.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 1) 활동기간 : 2023. 5월 ~ 2023. 9월 현재까지
- 2) 활동대상 : 만 4, 5세 유아 (혼합반)
- 3) 프로그램 연간



4) 활동방법

사전조사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실행	활동평가
- 유아의 수분을 채우는 생활습관의 중요성 인식 - 유아의 수분섭취에 대한 관심도 - 부모의 유아수분섭취 필요성 인식	- 유아의 일상생활 속 수분을 채우는 생활습관화 놀이프로그램 계획 - 프로그램이해를 위한 안내문 가정으로 발송 - 교사들간의 놀이과정 이해도모와 협력 및 교사교육(놀이)진행	- 놀이중심을 기반으로 놀이를 진행하며 수분을 채우는 일상의 중요성 인식 - 유아의 배움에 필요한 교사의 교육적 놀이지원 (자료, 상호작용, 밀과, 공간, 공동학습체, 안전) - 어린이집, 지역사회, 가정에서의 연계 활동 진행	- 프로그램 진행 후 일상생활 중 수분섭취에 대한 유아 및 교직원 평가 - 부모 평가 및 부모 만족도 조사 - 향후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

2. 프로그램 세부활동 내용

놀이 주제 우리 몸이 궁금해요

여는 놀이

우리는 서로 키가 다르고, 몸무게도 달라!

5월, 나와 가족을 주제로 놀이가 진행되었다. 유아들은 우리 몸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이며 놀이를 진행하던 가운데 서로의 키가 차이를 이야기하였다. 놀이 속에서 누가 더 큰지 비교해보고 싶다고 표현하여, 교사는 유아의 흥미를 반영해 다음 날 키 재는 도구와 추가로 체중계도 제공하였다. 서로의 키와 몸무게를 재보며 비교하는 놀이가 활발히 일어났고, 몸의 외부탐색이 끝난 뒤 자연스럽게 몸의 내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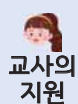
우리 서로 키 재보자!



우와~신기하게도 모두 키가 다르네!

키 재는 도구를 사용해서 키 재보자.
우리반에서 누구 키가 제일 클까?
체중계는 0이 커지면 올라가야 돼.
우리는 키랑 몸무게가 다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지.
나는 밥을 많이 먹어서 모든 게 다 커.

놀이 속 유아들의 발화



교사의 지원

자 료 : 키 재는 도구와 체중계를 제공하여 서로 키를 재보고, 벽면에 표시해 서로 비교하며 볼 수 있도록 도움.

일 과 : 서로 키와 몸무게를 재보며 다양한 방면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

이어지는 놀이1

내 몸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을 궁금해하는 유아들과 함께 몸속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며 놀이가 활발히 일어났다. 몸속 내부를 조작할 수 있는 교구를 제공하여 탐색하고 놀이하며 내부기관의 명칭과 역할을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 몸속 내부기관 조작놀이



우리 몸속 내부기관 그림자찾기

우리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우리 심장은 쿵쿵쿵쿵 뛰고 있어!

소변을 만드는 방광도 있대~

선생님 우리 몸속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알아보고 싶어요.

우리 몸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놀이 속 유아들의 발화



교사의
지원

일 과 : 자유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유아들의 관심, 흥미를 관찰함.

자 료 : 몸속 내부를 조작할 수 있는 교구를 제공하여 탐색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도움.

상호작용 : 우리 몸속에는 다양한 내부기관이 있고, 뼈와 피 그리고 수분이 있음을 상호작용함.

이어지는 놀이2

우리 몸을 직접 그려보자!

우리 몸 내부를 알아보며 놀이하던 중 유아들은 우리의 몸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교사는 큰 전지와 그리기 도구를 제공하였다. 한 유아가 모델이 되어 눕고, 여러 유아들이 사인펜, 크레파스를 사용하여 모델이 된 친구 몸의 형태를 따라 그렸다. 얼굴과 눈, 코, 입도 그리고 몸 안의 내부기관, 뼈, 그리고 빨간색 크레파스로 피를 그려 표현하였다.

우리 몸을 서로 그려볼까?

팔이랑 다리를 꼭 펴서 누워봐!

손가락도 그려줄게.

선생님, 심장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피는 그릴 수 있는데

물은 어떻게 그려요?



유아들이 그린 내 몸속 내부기관



친구가 모델이 되어서 그려보아요



놀이 속 유아들의 발화



교사의
지원

자 료 : 전지와 그리기 도구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우리 몸속을 그려보며 구성함.

상호작용 : 우리 몸속 내부기관의 명칭을 이야기 나누며, 그리기 어려워하는 내부기관은 그림 자료로 제공하여 그림 위에 붙이며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

놀이의 확장

어린이박물관에서 내 몸속에 물은 얼마나 있을지 알아보자!

우리의 몸을 그림으로 표현하던 중 몸속에 있는 물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지 궁금해하였다. 교사는 우리 몸속 수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일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음을 이야기 나누며, 유아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모색하였다. 어린이박물관에 '내 몸속에 물은 얼마나 있을까?'를 알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체험활동을 계획 후 방

문하였다. 그곳에는 체중계처럼 유아가 올라가면 내 몸속에 물이 몇 kg이 있는지 측정이 되어 나오는 장치가 있어 각자의 수분 함유량을 재보았다. 그리고 우리 몸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볼 수 있었다.

여기에 올라가면 몸무게처럼 우리
몸속에 물이 몇kg인지 나오네!
정말 신기하다!
내 몸속 수분이 11kg래~
물을 자주 마시면 건강해진대.



놀이 속 유아들의 발화

수분이 몇 kg인지 재보아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교사의
지원

학습공동체 : 놀이와 관련된 체험학습에 대해 동료교사와 이야기 나눈 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어린이박물관으로 체험활동을 실시함.



놀이에서의 배움

놀이를 통해 우리 몸에 대한 관심이 우리 몸의 내부기관으로 또, 몸속 수분으로 점차 세분화되어 갔다. 수분은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박물관에서 몸속 수분의 무게를 재며 그 결과가 눈에 보이니 여느 때보다 큰 흥미를 보였고, “몸에 물이 이렇게나 많아!”, “나 물 잘 안 마시는데...”라고 표현하며 수분섭취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다.

놀이주제

수분을 마셔요

여는 놀이

카페놀이에서 무지개 물 카페로 변신

어떻게 하면 수분을 자주 마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주말을 지내고 온 유아가 부모님과 카페를 다녀왔다고 이야기하며 카페놀이가 이루어졌다. 놀이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이 음료만 판매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교사는 ‘카페에 다양한 음료가 있듯이 여러 종류의 물도 판매해 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였다. 유아들은 교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물카페 놀이를 하였고 교사는 다음날 다양한 물(물을 대신해서 마실 수 있는 보리차, 현미차, 레몬물, 비트물)을 제공하였다. 유아들은 알록달록한 물의 색을 보며 ‘무지개 물카페’라는 이름도 짓고 서로 사고파는 역할도 정하며 ‘무지개 물카페’ 놀이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여기는 무지개 물카페입니다



손님에게 비트물을 판매하고 있어요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다른 물 색이 알록달록하네.
카페 이름은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색의 물이 있으니 무지개 물카페 어때?
어서 오세요. 어떤 물을 드시겠어요?
레몬 물은 맛이 상큼합니다.



놀이 속 유아들의 발화



자 료 : 다양한 물을 제공하여 무지개 물카페 놀이가 원활히 이루어짐.
상호작용 : 놀이참여자(카페 주인, 카페 손님), 놀이 지원자로서 교사와 유아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함.

이어지는 놀이1

우리가 마시는 물병을 친숙하게 만들어볼까?

무지개 물카페 놀이가 이어지며 교실에 생수뿐만 아니라 생수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물을 매일 비치하여 유아들이 자유롭게 따라서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물 마시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유아도 있었다. 교사는 유아의 일상생활 속 수분섭취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주 마실 수 있게 도울지 고민하였다. 요즘 유아들이 한창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스티커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와 스티커를 보기 위해 자신의 사물함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관찰되었다. 교사는 이 모습을 관찰하고 물병에 좋아하는 캐릭터의 스티커를 제공하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자주 마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방수 캐릭터 스티커를 제공하였다. 유아는 좋아하는 캐릭터 스티커를 골라 자신의 물병을 마음대로 꾸며보았고, 캐릭터 스티커로 꾸민 물병을 만든 뒤에는 각자 자신의 물병에 애착을 갖고, 이전보다 물을 자주 섭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와~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

이 스티커는 물이 묻어도

안 떼어지는 스티커래~

물을 자주 마시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볼 수 있으니가

좋을 것 같아!



놀이 속 유아들의 발화

우리가 좋아하는 캐릭터 스티커로 꾸며요

자주 찾게 되는 나만의 물병



자 료 : 평소 유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방수 스티커를 제공함.
상호작용 :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존중하며 놀이 후에도 물병에 관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작용함.

이어지는 놀이2

우리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마셔보자!

캠핑놀이를 하다 두 명의 유아가 텐트 안에 들어가 물을 마시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친구들도 이에 관심을 보여 텐트 속에서 같이 물을 먹고 싶어 하였고,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기에는 텐트가 좁아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표현하였다. 교사는 요새를 만들 수 있는 교구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자유롭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유아들은 교실 곳곳에 다양한 요새를 만들어 그 안에서 물을 자주 마셨다. 수시로 물을 마시던 유아들은 물 마시는 시간도 정하기로 이야기 나눈 뒤, 약속한 시간을 모형시계에 고정해두고 그 시간이 되면 물을 마셨다.

식전 30분 "물" 마시기



우리반이 꼭 물 마시는 시간



이 곳은 우리들만의 비밀공간

(요새를 만들며) 자꾸 쓰러지네.

내가 도와줄게. 이거 잡을 테니

네가 끼워볼래?

여기서 마시면 물이 더 맛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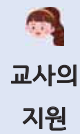
이런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우리만의 공간에서 마시니까 비밀공간 같아.

물은 언제 마시기로 할까?



놀이 속 유아들의 발화



공 간 : 교실 곳곳에 물 마시는 공간을 구성함.
상호작용 :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은 인지하나 자꾸 잊어버린다는 유아의 발화에 물 마시는 시간을 약속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눔.
자 료 : 요새와 광목천을 제공하여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모형시계도 추가하여 우리가 정한 시간을 고정해둔 뒤, 실제 시계와 비교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함.

놀이의 확장

교실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생기면 좋겠어!

몇 명의 유아들이 우리만의 공간 외에도 어린이집 곳곳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표현하였다. 어떤 곳에 있으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하였고, 교사는 지금까지 고정이 된 기준을 벗어나는 유아의 발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교실 안에 있는 물 마시는 공간을 교실 밖으로 옮겨 놀이의 확장을 시도해 보았다.

선생님, 우리반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물 마시는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현관에 있으니깐 어린이집
올 때에도 물을 마시고 싶어요!
유희실에서 놀이하다가 목마르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놀이 속 유아들의 발화



어린이집 현관도 물 마시는 곳이 있고,



유희실에도 물 마시는 곳이 있어요



공 간 : 교실 외에 어린이집 현관과 유희실, 복도에 물 마시는 곳을 함께 설치함.
상호작용 : 유아들과 어느 곳에 물 마시는 공간을 두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눔.
자 료 : 물 마시는 공간에 포스터를 붙여 동생들과 부모님들께도 함께 마실 수 있게 홍보함.



놀이에서의 배움

유아들이 스스로 놀이와 공간을 확장해 나가고 교사의 지원을 통해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평소 물병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유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 물병을 만들고 난 뒤부터 물 병에 애착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물을 자주 마시게 되었고, “기분이 좋아요.”, “쉬가 빨리 마려워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 같아요!” 등 일과가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언어로 표현하였다. 또한 우리만의 공간으로 요새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모양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서로가 협동하여 만드는 경험을 하였고, 공간지각력도 키울 수 있었다.

놀이주제

수분을 먹어요

여는 놀이

수분이 많은 식재료를 알아볼까?

한 유아가 오전 간식으로 나온 수박을 먹으며 “선생님, 수박을 먹으면 왜 물이 나와요?”라고 묻는다. 교사가 “수박이 가지고 있는 성분은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라고 대답하자, 유아들이 “그럼 물 대신 수박을 먹어도 되겠네요!”라고 이야기한다. 교사는 물처럼 우리 몸속 수분을 채울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해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알아보았다. 이어서 수분이 많은 식재료를 찾아보는 게임을 진행하였으며, 이 게임에서는 수분이 많지 않은 식재료를 밟으면 방귀소리가 나게 제작하여 유아들이 흥미를 가지고 놀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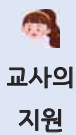


수분이 많은 식재료를 알아볼까



수분이 많은 식재료 찾아보기 게임

우리 오이 먹어봤잖아!
 먹을 때 물이 나오는 것 같아!
 (수분이 많지 않은 음식을 밟자 방귀소리가 난다)
 햄버거는 수분이 없네!
 수분이 많은 채소, 과일을 먹어야
 우리 몸에 좋대!
 나 밥 먹을 때 채소 잘 먹어야지~
 놀이 속 유아들의 발화



교사의
지원

상호작용 : 수분이 많은 식재료에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 발화에 세심한 반응을 보이며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작용함.
 물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물들에 대해 안내하며 음료수나 주스는 물처럼 몸에 수분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이야기 나눔.
일 과 : 수분이 많은 식재료를 이야기 나누며 놀이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게임을 지원함.

이어지는 놀이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 얼음을 만들어보자.

무더운 날씨, 바깥놀이 후 유아들은 평소처럼 물을 마시며 더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유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름철 수분 보충을 위한 특별한 과일 얼음 만들기 활동을 해보았다. 땀으로 배출된 수분을 채우기 위해 얼음에 수분이 많은 과일을 넣어 만들어보면 어떨지 방법을 모색한 뒤, 수분이 많은 과일과 얼음 틀, 물을 제공하여 미네랄이 풍부한 얼음을 만들어보았다. 동그란 과일은 이쑤시개로 찢어 미네랄 함량을 높였고, 크기가 큰 과일은 잘게 썰어 물에 넣은 뒤 6시간 이상 얼려 과일 얼음을 완성시켰다. 다음날 바깥놀이 후 물에 과일 얼음을 넣어 먹어보았다. 물도 마시고, 수분이 가득한 과일을 먹으며 수분섭취가 활발히 일어났다.

상큼한 맛이나!
 이런 얼음이 매일 있으면
 물이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집에서 만들어봐야지~
 물이랑 과일을
 같이 먹어서 더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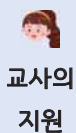
놀이 속 유아들의 발화



동그란 과일은 이쑤시개로 콕콕



미네랄 풍부 과일얼음 완성



교사의
지원

상호 작용 : 수분이 많은 과일을 탐색하고, 동그란 과일을 이쑤시개로 콕콕 찢어 과일 안에 있는 우리 몸속 중요 성분인 미네랄을 풍부하게 배출시켜 만들어볼 수 있도록 상호작용함.
자 료 : 수분이 많은 과일(체리, 사과, 블루베리, 토마토)과 얼음틀, 이쑤시개, 도마, 빵칼을 제공.
학습공동체 : 원장님이 원장실에 있는 식용 허브를 제공해 주셔서 과일 얼음 위에 올려 만들어봄.
안 전 : 이쑤시개 사용 시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눔.

놀이의 확장

알록달록, 수분이 가득한 색상환

수분이 많은 식재료를 알아보고, 다양한 색상을 갖고 있음을 탐색한 유아는 '무지개'라고 표현하였다. 교사는 유아의 다양한 색의 분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색상환 판을 준비하고, 가정에 요청하여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지원받았다. 유아들은 개인마다 느끼는 색을 색상환에 놓아보며 분류할 수 있었고, 놀이를 통해 수분이 가득한 식재료와 친숙해질 수 있었다.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 색상환



다양한 색을 분류해요

수분이 많은 채소랑 과일은
색이 여러 가지네.
무지개 같지 않아?
빨간색은 파프리카랑 사과를
놓아야겠다.
가지는 보라색이야!



놀이 속 유아들의 발화



교사의
지원

상호작용 : 각 가정에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한 개씩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지원받으며 부모님들도 놀이에 관심을 갖도록 함.

자 료 : 색상환을 표현할 수 있는 과일, 채소를 지원하고 색상환 판을 코팅하여 제시하였음.



놀이에서의 배움

평소 식탁 위에서 접하던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놀이하고 직접 먹어보며 큰 흥미를 가졌다.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와 차례 지키기’, ‘수분이 많은 채소만 밟기’, ‘친구가 성공하면 박수쳐주기’ 등의 규칙들이 생겨나고 유아들이 이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수분이 많은 식재료는 모두 우리 몸에도 좋은 음식이며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이 있음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놀이주제

몸이 촉촉해지는 생활습관

여는 놀이

소리 내어 웃어요 (칭찬 목걸이에 하트가 듬뿍!)

우리 반에서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생활습관 하나만으로도 건강해지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크게 소리 내어 웃는 것이다. 교사는 유아들과 수분을 마시고, 섭취하는 방법 외에도 몸이 촉촉해질 수 있는 생활습관에 대해 연구하였고, 웃음과 운동을 통해서도 몸이 촉촉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아들과 어떻게 하면 웃음이 나오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던 중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웃음이 나온다고 하였고, 놀이로 반영하여 친구에게 긍정적인 말로 칭찬을 듣고 친구의 장점을 찾아보며 스티커를 주고받는 놀이를 진행하였다.

칭찬을 들으면 웃음이 나와~
오늘 공룡 웃이 잘 어울린다!
정리할 때 도와줘서 고마워!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사랑해~
스티커 많이 받으니까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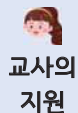
놀이 속 유아들의 발화



칭찬을 하며 스티커를 붙여요



칭찬을 받으니 웃음이 가득!



교사의
지원

상호작용 : 큰 소리로 웃으면 얼굴과 몸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몸 안에 세포들이 활발히 운동하여 몸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것을 이야기 나눔.

자 료 : 칭찬스티커판과 스티커를 충분히 제공함.

이어지는 놀이1

우리반 만의 운동법을 만들어볼까?

유아들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땀을 흘려 수분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배출된 수분을 채우려 물 마시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유아들과 우리 몸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인 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아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보자고 의견을 내었다.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정하여 교실 벽면에 포스터를 만들어 수시로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팔 벌려 체조하는 것도 땀 많이 나.
나는 이렇게 허리도 돌릴 수 있어.
목을 돌리는 것도 스트레칭이야.
우리 이렇게 같이 해볼까?
운동을 하니깐 땀이 난다.
땀이 나니까 목이 말라. 물 마시자.

우리가 함께 정한 데일리 스트레칭표

함께 스트레칭하는 우리

 놀이 속 유아들의 발화



교사의
지원

공간 : 스트레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교실의 공간을 넓혀줌.

자료 : 유아들이 정한 스트레칭을 '데일리 스트레칭' 포스터로 만들어 교실 벽면에 게시함.

이어지는 놀이2

따뜻함을 주고, 순환을 돕는 마사지 놀이

오전 간식 후, 스트레칭 포스터를 보며 스트레칭을 한 뒤 자리에 앉아 자신의 다리를 톡톡 치며 마사지를 하는 유아가 있었다. 친구들도 이 모습에 관심을 보이며 함께 다리마사지를 하였고, 처음에는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두드리며 마사지를 하다가 서로 마사지를 해주는 놀이로 이어졌다. 유아들은 손님과 마사지사 역할을 정하여 구체적인 놀이를 진행하였고, 교사는 마사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운동을 하면 다리랑 팔이 아파.
토닥토닥 마사지를 해주면 시원해.
친구야, 내가 너 어깨 두드려줄게.
우리 같이 마사지를 하자.
여기는 마사지가게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마사지 받으세요.



놀이 속 유아들의 발화

서로 서로 토닥토닥

여기는 시원한마사지가게입니다



교사의
지원

상호작용 : 마사지를 하는 것도 우리 몸의 세포의 건조함을 막고 피가 잘 돌 수 있게 도와 수분을 채우는데 도움이 됨을 상호작용함.

안전 : 주무르기, 토닥이기 등 신체를 조절할 때 너무 세게 하지 않도록 이야기 나눔.

놀이의 확장

족욕놀이

마사지 놀이를 하며 한 유아가 “나 저번에 베트남 가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거기서 물에 발을 담그기도 했어.”라고 예전의 여행 경험을 이야기한다. 교사는 유아의 경험을 반영하여 마사지 놀이에 족욕도 할 수 있는 공간과 준비물을 마련해 주었다. 유아들은 손님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족욕을 할 수 있게 안내하는 등 마사지샵 놀이가 족욕놀이로도 확장되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궜요



물에 꽃잎도 띄워줄게요

손님, 여기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발을 담그면 피가 잘 돌아요
우와, 발이 따뜻해지고 있어
따뜻하니까 기분이 좋아
여기 꽃잎도 띄워줄게요



놀이 속 유아들의 발화



교사의
지원

상호 작용 :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하면 몸에 피가 잘 돌아서 몸이 따뜻해지고, 몸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땀을 흘리면서 몸이 축축해짐을 이야기 나눔.
자 료 : 족욕을 할 수 있는 대야와 족욕 후 닦을 수 있는 수건을 제공함.
안 전 : 유아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당한 온도의 물을 제공함.
학습공동체 : 동료교사가 족욕하는 물 위에 띄울 수 있도록 꽃잎을 제공함.



놀이에서의 배움

수분을 마시고 먹는 것 외에도 다양한 생활습관이 우리 몸을 축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을 놀이를 통해 인식할 수 있었다. 운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땀을 흘렸고, 마사지를 통해 우리 몸속 피가 잘 돌아 수분을 채울 수 있었다. 또한 유아가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 족욕놀이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놀이를 통해 유아의 경험을 창의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서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친밀감을 느끼며 또래의 사회성에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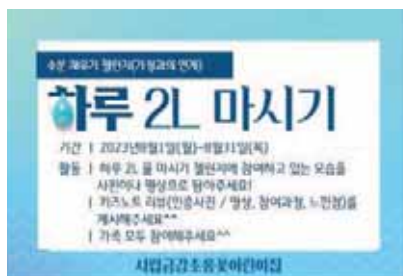
놀이의 연계

어린이집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연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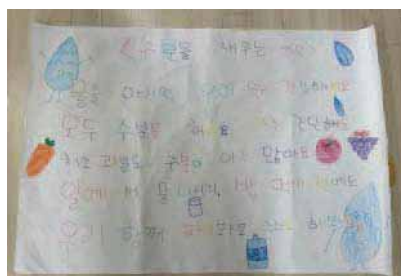
가정과의 연계활동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물 마시기 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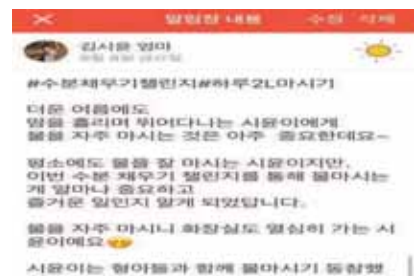
어린이집 일상 중 물을 마시는 것이 습관화되며 유아들은 가정에서도 시간을 정하여 물을 마셔야겠다고 이야기한다. 물을 언제 마셔야 하는지 유아들이 평소 즐겨 부르며 좋아하는 노래(원곡 : 아름다운 세상 / 개사한 곡 : 수분을 채우는 세상)를 개사해 동영상을 제작하여 포스터와 함께 키즈노트에 공지하였다. 챌린지를 참여하는 가정에서는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을 집에서도 재미있다고 계속 봅니다. 아빠, 엄마와 함께 시간을 정해서 물을 마시고 있어요.”라고 전달해 주셨다. 유아들은 어린이집에서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물을 수시로 마시며 수분을 채우고 있었고, 그 모습은 가족 모두 챌린지에 참여하는 모습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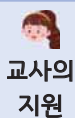
물마시기 챌린지 홍보포스터



‘수분을 채우는 세상’ 개사곡



‘수분채우기챌린지’ 부모님의 후기



교사의
지원

일 과 : 유아들과 ‘수분을 채우는 세상’ 노래 부르고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일과를 바꿈.
자 료 : 쓰기 도구와 전지를 제공하고 노래를 재구성한 ‘수분을 채우는 세상’ 노래 가사를 적음.
‘수분을 채우는 세상’ 노래를 부르며 동작을 하는 유아들을 카메라로 촬영함.

어린이집에서의 연계활동(학습공동체)

동생반과 선생님들에게도 홍보하자!

가정에서의 물 마시기 챌린지를 이어 어린이집에서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수분을 채울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였다. ‘수분을 채우는 세상’ 노래를 부르고 피켓을 만들어 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홍보하였고, 캠페인 활동 후 다른 반에서도 수분 채우기 활동이 시작되었다.



동생반에서 수분채우기 캠페인을 해요



유희실에서 놀이하면서도 물을 마시는 동생반 친구들



수분이 많은 채소를 골고루 먹는 동생반 친구들



교사의
지원

상호작용 : 수분을 채울 수 있는 캠페인에서 동생반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 상호작용 함.
일 과 : 캠페인을 계획할 수 있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추가함.

지역사회 연계활동

식물들도 물이 필요해!

어린이집 텃밭에 심은 상추와 고추에 물을 수시로 주며 “애네들도 물을 마셔야지 쑥쑥 크네!”라고 이야기한다. 사람 외의 생명체에도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유아들은 여느 때보다 채소에 물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농작물들을 수확하여 함께 먹어보면서 엄마, 아빠도 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모님께 소액의 금액을 정하여(1,000원) 판매를 하기로 계획하였고, 수확한 상추와 고추를 포장한 뒤, 하원 시 부모님들에게 판매하였다. 판매 수익금은 총 20,000원으로 추후 유아들과 함께 인근 주민센터에 불우이웃 돕기로 기부할 예정이다.



너희도 시원하게 마시고 쑥쑥 자라렴



우리가 수확한 채소를 판매해요



어머님, 무농약 채소 구매하세요



교사의
지원

상호작용 : 유아들과 우리가 키운 채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눔.
판매를 하면 얼마로 팔지, 모은 돈은 어떻게 할지 의논함.
자 료 : 채소를 포장할 수 있는 봉투와 돈을 모을 수 있는 기부함 만드는 재료를 제공하여 함께 만들어봄.

III. 활동평가

1. 유아의 평가

일과 중에 유아 스스로 물을 찾아 마시고 배변활동도 원활해졌으며, 수분이 많은 식재료도 전보다 잘 먹게 되었다. 이전에는 놀이하는 중간에 교사가 “물을 마셔야 건강해져요.”, “바깥놀이 했으니까 물 마시자~” 등 추상적인 이유로 권유를 해야 물을 마시는 유아들이 대다수였다. 일과 중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변 활동에도 어려움(어린이집 하루 일과를 보내며 소변을 자주 보지 않는 유아가 있거나 소변색이 주황색에 가까웠음.)이 있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도적인 수분섭취량이 늘고 평소 잘 먹지 않던 수분이 많은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 조금씩 먹어 보려고 시도하였다. 이런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니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인 배변활동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하루 일과 중 소변을 자주 보지 않던 유아들도 여러 차례 화장실에 가서 배변활동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물을 마시는 구체적인 이유를 인지하며 주도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가지게 되자 어린이집 일과를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며 이를 유아도 스스로 느끼고 언어로 표현하였다.

2. 교직원의 평가

교직원 간의 물마시기 챌린지가 이루어지며 스스로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였다. 프로그램을 구성 및 진행하며 수분섭취의 중요성을 꾸준히 연구하였고 자연스럽게 교사 또한 물을 더 자주 마시게 되었다. 수분이 우리 몸에 수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해하고 건강 및 일상에도 영향이 크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였다. 교사는 유아가 주도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고 주도적인 수분섭취를 위한 다양한 놀이를 연구, 관찰, 계획 및 지원하였다. 이로 인해 유아의 주도적인 놀이가 일상생활에서의 습관 형성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켜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다양한 주제와 놀이 방안을 연구하고 지원해야겠다고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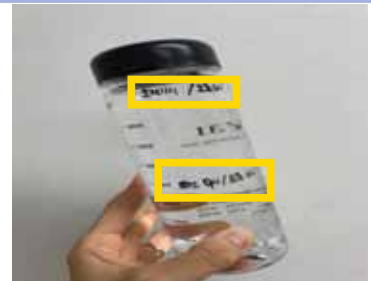


작공교사와 시간을 정해놓고 물마시기

보육현장에서 늘 아이들에게 집중하느라 물 마실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제는 작공교사와 함께 물병에 시간을 써놓고 그 시간까지, 눈금만큼 꼭 마시고 있으며, 내 건강도 챙기게 되었다. 또한 물을 자주 마시니 **커피나 다른 음료를 줄이게** 되었고 **배변활동도 원활**해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식사 시간에 **폭식을 하지 않아서 좋다.**



이oo교사의 후기



물병에 시간을 적어두고 마시기

3. 부모의 평가

가정에서도 ‘물’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물 마시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작고 소소하게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가정에서도 수시로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였다.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가정과의 연계로 많은 가정에서 수분섭취의 효과가 있었다고 만족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분 섭취를 위한 가정과의 연계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면서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를 가정에 홍보하는 효과가 커지는 동시에 가정에서도 수분섭취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경험하며 원과 가정 간의 협력과 신뢰감이 향상되었다.



홍oo의 외할머니 후기

우리 oo이가 할머니만 만나면 할머니도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고 잔소리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오래오래 산다고 합니다. 손녀딸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물마시는 습관을 기르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수분섭취 활동을 통해서 물 마시는 습관이 생겨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을 마시고 외출할 때는 꼭 물통에 물을 챙겨서 나갑니다. 그리고 음료수는 맛있어서 먹는 간식 같은 것이고 목이 마를 때는 음료수가 아닌 물이나 보리차를 마셔야한다는 oo의 말에 저도 커피보다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허oo의 어머니 후기



조oo의 아버지 후기

우리 oo이는 아토피 때문에 피부가 많이 건조한데 수분을 보충하는 프로그램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활동을 통해 물 마시는 습관이 잘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우리 모두 물 마시기가 생활화되어 건강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1. 부모설문조사 결과(사전,사후 비교)



본 설문 조사는 프로그램 사전(23년 5월 둘째주)과 사후(23년 9월 첫째주)에 같은 내용으로 실시하였으며, 만4,5세 18명 학부모님 중 18명 전원이 응답하였다(설문 답변 중 '그렇다' 문항을 취합하여 그래프로 표시함). 설문 조사 결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보다 진행한 이후에 '유아가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물을 찾아 마시는 빈도'와 '수분이 함유된 채소나 과일을 먹는 정도'가 증가하였다. 또, 유아의 '배변활동도 확연히 원활'해졌으며, 무엇보다 가정에서는 '수분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와 아이 모두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2024년 연간프로그램 계획

일상생활에서 수분을 섭취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내년에는 건강한 영양을 섭취하고, 활발한 신체 놀이와 안전한 생활을 경험하며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생활습관', '건강한 마음가짐' 등을 기를 수 있는 연간 놀이를 계획하였다.



2. 일반화제언

1) 교사의 역량 강화 및 놀이 지원

유아의 놀이와 발화를 세심히 관찰하고 흥미에 따른 지원을 고심하여 놀이 자료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더니, 유아의 놀이가 더욱 창의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교사가 계획한 놀이를 교사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익숙한데, 이에 반성적 사고를 하며 교사는 영유아 주도적인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끝없이 연구하고 역량 개발을 해야겠다.

2) 적극적인 가정 연계

건강한 수분섭취의 습관은 어린이집 안에서만의 활동과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우리 원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서, 유아들의 수분섭취 생활습관이 프로그램 실행 이전에 비해 긍정적인 측면으로 확연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영유아의 일상 전반에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은 가정과의 소통과 연계 활동을 하며 꾸준히 협력해나갈 필요가 있다.

3)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연계

일상생활에서 수분을 보다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영아들의 하루 컨디션과 기분, 놀이 상호작용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놀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경험을 하며 즐겁고 주도적인 놀이가 이루어지고 건강한 생활 습관도 형성한다. 이렇듯, 놀이가 일상에 녹아들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수분보충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전반적인 건강 생활 습관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제안한다. 우리 원은 텃밭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냈다. 이를 지역사회에 기부하여 영유아들이 직접 기르고 재배한 경험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4) 수분 섭취로 인한 확장 놀이

유아가 수분을 섭취함으로써 본인의 몸과 건강에 대한 흥미도 함께 커져가는 것을 관찰하였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하여 수분섭취에서 뿐아니라 ‘영양 섭취’와 ‘배변활동’을 놀이로 연계할 예정이다. 수분을 섭취하며 스스로의 몸을 지키고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 건강한 영양소 섭취하기, 수시로 몸을 활용해 운동하기, 건강한 습관 갖기 등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수분섭취로 인해 배변활동도 활발해짐에 따라 유아의 배변활동을 놀이로 접목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V. 참고문헌

<도서>

보건복지부(2020).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 2019 개정누리과정 해설서.

경기북부우수보육프로그램(2022).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선재광(2022).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물 건강법. 전나무숲

이승남(2008). 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사는 법. 리스컴

조경희,임선아,박은성,김진화,최소라,고유진,박장미(2021). 놀이중심 교육과정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맘에드림

<논문>

양복미(2004). 동량수거법에 의한 제주지역 학령전 아동들의 식품 및 수분 섭취실태조사. 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이트>

mbc. 기분좋은날 <여름 맞춤 수분섭취법>

<https://playvod.imbc.com/Template/VodView?bid=1000832103724100000>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사이트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5450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최우수상>
시립강변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국공립
지 역	하남시
프로그램명	놀면서 自란다 (의존에서 자조로)
총 괄	고광미
기획 및 운영	문지수, 최아람, 우민지

1.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보건복지부, 2020)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에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자조기술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과정의 목표에서도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와 같이 영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신체를 보살필 수 있는 자조 능력을 기르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아이들의 자조기술은 12개월 이후 영아기 때부터 신체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발달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조기술은 보통 유아기 때부터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여 만 3세 이전의 영아들은 부모님의 손길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하기보다는 도움을 받는 것에 더 익숙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부모는 부모의 속도에 맞추어 자녀도 빠른 일상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기다려주기보다 먼저 해주는 경향이 보인다. 이는 특히 영아에게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반복적인 일상으로 영아들은 자조기술 발달이 늦어지고 이는 더 나아가 자존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성마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조기술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으로 이러한 능력은 성인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작업이지만 세상이 처음인 우리 아이들에게는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찬란한 결과물일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나 교사의 도움에 의지하는 영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잔소리나 강요가 아닌 아이가 주도하여 해내는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놀이를 통한 자조기술 발달이며 이 프로그램 ‘의존에서 자조로’의 목적이다.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 (이론적 배경)

‘자조 기술[自助 技術, self-help skills]’이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로서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한 개별적 활동이 아니라 운동성, 감각, 인지, 언어, 사회성 등 여러 기능의 통합을 요하는 기술들로 적절한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의 바탕이 된다고 보고 있다.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만2세 영아의 주요발달 특성으로는 대. 소근육의 능력과 언어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내 것에 대한 소유욕과 스스로 하는 욕구를 표현하면서 다양한 정서적 표현과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세상에 대한 호기심 또한 강하게 드러내며 이를 통해 인지발달과 더불어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이 발달하고, 기초적인 자조기술이 발달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자조기술 향상은 영유아의 독립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발달 연령에 맞는 자조기술 향상은 영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영아들은 어떻게 자조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까?

본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그것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익숙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것, 교사와 부모는 영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돕도록 하는 놀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2022년 자조기술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교사 회의를 통해 영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기본생활습관을 중점으로 2023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월별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이 아닌 영아의 발달특성과 성취과업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자조기술형성 프로그램임을 강조한다.

II.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 1) 활동기간 2023년 3월 ~ 2024년 2월 (현재 진행 중)
- 2) 활동대상 2020년생 만 2세 14명 (남아: 8명 / 여아:6명), 만 2세 학부모(가정연계)
- 3) 프로그램 연간

‘놀면서 自란다’ (의존에서 자조로)					
월	자조기술 놀이	가정연계	표준보육과정 내용범주	예상 놀이	새롭게 확장된 놀이
3월	나는야 인사 어린이	동네 이웃과 인사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안녕! 인사해요] 동화책을 보고 인사말을 따라 해봐요	[인사 송]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인사를 배워요
4월	내 신발은 내가 신고! 벗고!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전 집에서 스스로 신발 신기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신발 던지기 놀이] 신발을 던지며 내 신발과 친구의 신발을 구별해요	[커다란 신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신발을 신어보며 신발을 신고 벗는 즐거움을 느껴요
5월	양말은 나를 좋아해	양말을 벗어서 빨래 통에 넣기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뒤죽박죽 양말 찾기] 내 양말을 찾아 짝지을 수 있어요	[양말 던지기 놀이] 동글동글 양말 공을 던지며 놀이해요
6월	세수하며 예뻐져요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기 전 혼자서 세수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세수 놀이] 내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보아요	[로션을 발라요] 세수하고 얼굴에 로션을 발라요
7월	치카치카 양치	밥 먹은 후 스스로 양치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치카송] 치카송을 들으며 올바른 양치 방법을 알아봐요	[충치세균을 잡아라] 까만 충치세균을 깨끗하게 닦아줘요
8월	나는 그릇 정리 대장	내가 먹은 그릇 싱크대에 정리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끼리끼리 모아요] 같은 모양의 물건끼리 모아서 분류해요	[뽕뽕뽕 설거지]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보아요

‘놀면서 自란다’ (의존에서 자조로)					
월	자조기술 놀이	가정연계	표준보육과정 내용범주	예상 놀이	새롭게 확장된 놀이
9월	길고 긴 젓가락	상에 수저 놓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집게로 옮겨요] 집게를 이용해서 놀잇감을 옮겨봐요	진 행 예 정
10월	내 물건은 내가 챙겨요	내 가방 안에 있는 물건 꺼내놓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	[누구의 물건일까?] 내 것과 친구의 것을 구별 해봐요	
11월	내 이불도 척척	잠자기 전 내 이부자리 준비하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	[이불 김밥] 돌돌 이불 김밥을 말아 봐요	
12월	내 옷은 내가 스스로	내 옷을 골라요 / 빨래정리 놀이	건강하게 생활하기	[어떤 옷을 입을까?]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만들어요	
1월	동그란 내 단추	단추가 있는 여러 가지 옷을 찾아 단추 잠가보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단추 기차] 단추를 끼워 기다란 기차를 만들어요	
2월	오르락내리락 지퍼	부모님의 옷 지퍼를 올리고 내리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무지개 지퍼] 알록달록 무지개 지퍼를 열고 닫아요	

4) 활동방법



◆ 2023년 자조기술형성 프로그램 계획 과정

-교사회의를 통해 영아에게 필요한 자조기술에 대한 의논 및 놀이 계획 / 부모님들의 의견 적극 반영



◆ 2022년 자조기술형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 2022년 자조기술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님 느낀 점

스스로 하는 마음을 존중하게 되었으며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게되었고 한뼘더 성장했음을 느꼈다.

빨리빨리 하려했던 저를 다시한번 돌아보게되었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충분히 기다려주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걸 느꼈어요

부모로서 제가 더 반성하게되었으며 스스로 할수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려합니다.

생각보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게 많아서 놀랐어요

아이가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스스로 할수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주려합니다!!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해 보려는 아이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부모님들의 자조기술형성 프로그램 제안 (2023년 프로그램 반영)

양치를 힘들어해서 아이가 혼자 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외투를 스스로 입으려고하지만 어려움이 큰데 외투를 입고벗는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양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먹여주지 않고 혼자서 밥먹기

혼자서 양치할수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사시간에 관련된 활동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수하기를 혼자 생각보다 잘 해주어서 양치하기도 함께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3월 나는야 인사 어린이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3월!
인사도 너무 어려워요



음악만 나오면 흔들흔들 신이 나는 우리 아이들!
신나는 음악을 통해 인사를 배워보자!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께
바르게 인사할 수 있어요!

* 놀이 속 배움 *

-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 바른 인사말을 듣고 인사해보기
- 사회관계> 더불어 생활하기 : 가족, 선생님, 주변 어른들에게 인사해보기
- 예술경험>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익숙한 노래를 통해 인사말을 배우고 말해보기

교사의 고민 및 지원

새로운 교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적응해가는 3월.

엄마와 헤어지는 아쉬움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아도 따라서 인사하지 않는 영아들에게 어떻게 바른 인사말을 알려줘야 할까? 고민하던 중 노래만 나오면 악기를 가져와 신나게 흔들며 춤을 추는 영아들을 보며 인사도 즐겁게 노래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모두 등원한 후 교사가 ‘안녕~안녕~친구들~’노래를 부르자 하나둘 노래에 반응하며 교사 주위에 모여 앉아 교사를 따라 인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매일 아침 인사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며 인사말을 배운 영아들이 어린이집을 등원하며 교사를 만나 바르게 인사하고 부모님께도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정연계 및 영아의 변화



어린이집에 가기 전, 다녀온 후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인사해요



산책하며 만나는 어른들에게
먼저 “안녕하세요~”인사해요



인형 놀이하며
“반가워~”, “잘 가~” 등
다양한 인사말을 사용해요

가정과 연계하여 친척이나 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네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눠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바른 인사말을 배운 영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마워”, “미안해”, “내일 만나” 등 다양한 인사말을 배우고 상황에 맞는 인사말을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가정과의 소통
(키즈노트 알림장)



선생님~태린이가 어린이집 끝나고 집에 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택배 아저씨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 원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부끄러워서 제 뒤에 숨기 바쁘게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인사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만나는 어른한테 예의바르게 인사를 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4월 내 신발은 내가 신고! 벗고!



선생님~ 어떻게 해요?



우와~ 커다란 신발이다! 신발 속에 꼭 들어가 볼까?



신발 던지기 놀이도 해볼까?

* 놀이 속 배움 *

-신체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 스스로 신발을 벗고 신어보기

-자연탐구>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 내 신발과 친구 신발이 다름을 알고 구분하기

교사의 고민 및 지원

평소 신발을 신고 벗을 때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영아들이라 학기 초 등원하여 스스로 신발을 신거나 벗지 않고 가만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다. 어떻게 하면 영아들이 자신의 신발에 관심을 가지고 신발을 신고 벗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먼저 ‘신발’ 자체에 관심을 유도해보려고 생각하였다.

커다란 신발 모양의 놀잇감으로 영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아가 자신이 신는 신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비슷한 모양의 신발로 인해 다른 친구의 신발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신으려 하는 영아도 있어 내 신발과 다른 친구의 신발을 구별해 볼 수 있도록 신발 던지기 놀이를 통해 내 신발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가정연계 및 영아의 변화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신발도 신어볼까?



다양한 신발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바깥 놀이 가자~!! 혼자서도 신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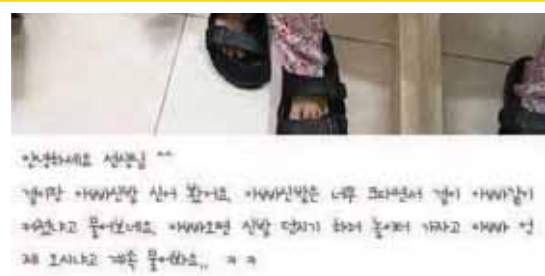


내 자리를 찾아 바르게 정리도 해요

신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영아가 집에 있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신발을 직접 신어보며 신발을 신고 벗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스스로 신발을 신고 벗기도 능숙하게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신발 던지기 놀이에 크게 재미를 느낀 영아가 부모에게 먼저 신발 던지기 놀이를 하고 싶다 이야기하고 가족과 신발 던지기 놀이를 하며 가족과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가정과의 소통
(키즈노트 알림장)



5월 양말은 나를 좋아해



내 양말은 어디에 있을까?



선생님 진짜 공이에요?



나도 양말 공 만들어 볼게요!



양말 던지기는 여기서 하자!



양말 공을 바구니에 넣자! 골인이다!

* 놀이 속 배움 *

- 사회관계> 더 볼 어 생 활 하 기 : 내 양말은 내 가방에 정리하기
- 자연탐구>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 친구 양말과 내 양말을 구분하기
- 신체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 양말 공을 바구니에 던져 넣어보기

교사의 고민 및 지원

양말을 벗어서 자신의 가방에 넣지 못하거나 다른 친구의 양말을 찾아 신는 영아들에 모습을 보고 어떻게 내 양말을 잘 찾아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 영아들이 등원하면 양말을 바구니에 모아 섞은 후 ‘내 양말 빨리 찾기’ 놀이를 해보며 내 양말과 친구 양말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보았다. 양말을 빨리 찾아오는 영아들에게 교사는 양말을 돌돌 말아 공을 만들어주니 영아들은 더 빨리 양말을 찾아보기도 하고 교사처럼 직접 양말 공을 만들어 보며 손과 눈에 협응력 또한 길러 볼 수 있었다. 양말 공을 받은 영아들이 공처럼 생각하며 양말을 던져 보기도 해서 바구니를 제공하여 양말 공을 바구니에 골인시키는 놀이로 확장할 수 있었다.

가정연계 및 영아의 변화



우리 집 세탁바구니에 양말을 쏙~



세탁기에도 내가 넣어볼래!



내 가방에도 정리해요



놀이하고 정리도 내가 척척

가정과 연계하여 양말을 세탁 바구니에 넣어보며 스스로 내 양말을 정리하고 양말뿐 아니라 입었던 옷도 정리하여 세탁 바구니에 함께 넣어보았으며 엄마처럼 세탁기에도 넣어보고 싶다는 영아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교실에서도 양말을 스스로 가방에 넣어 정리해보는 습관을 기르면서 양말 공놀이를 마치고 나서도 놀이에 사용한 바구니를 들고 놀잇감을 함께 정리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가정과의 소통
(키즈노트 알림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 지민이가 집에 와서 양말은 지민이가 정리한다면서 빨래통에 넣으러 가네요 ^^ 지호형한테도 빨래통에 넣으라며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해요~♥

6월 세수하며 예뻐져요



맛있게 먹었어요



세수 놀이 해보자



아기도 씻어볼래



로션도 필요해요
블록으로 만들었어요



아기인형도 로션
발라요

* 놀이 속 배움 *

-기본생활> 건강하게 생활하기 : 나의 몸을 깨끗이 해보기

-사회관계>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내 몸의 소중함을 알고 깨끗이 하기

교사의 고민 및 지원

급·간식을 먹고 나서 입 주변이 더러워졌지만 스스로 입을 닦거나 그냥 마스크를 써 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입을 닦아보자 하면 휴지를 가져와 제대로 닦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영아가 직접 자신의 얼굴을 닦아볼 수 있도록 세수 놀이를 통해 내 얼굴에 관심을 가져 볼 수 있도록 해보았다. 헤어밴드와 샤워캡을 쓰고 세숫대야에 손을 넣고 얼굴을 닦는 흉내를 내며 놀이를 하던 중 아기인형을 가져와 엄마는 동생도 씻겨 준다며 아기인형을 세수시키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아기인형을 세수시키면서 로션이 필요하다는 영아는 블록으로 로션 모양을 만들어 친구 인형에 로션을 짜주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여 교사가 진짜 로션을 아기 인형에 발라주자 영아는 더 흥미를 느끼고 아기인형 얼굴에 로션을 발라보기도 했다.

가정연계 및 영아의 변화



혼자 세수하는 모습에
동생도 신기해해요



어린이집 가기 전
혼자서 세수도 잘합니다



거울 보고 얼굴을 닦아요



선생님 저 깨끗하죠?

세수 놀이를 통해 얼굴 씻기에 관심이 생긴 영아들은 가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닦아보면서 세수뿐 아니라 목욕도 혼자 해보고 싶다는 스스로 씻어 볼 수 있었다. 부모님들도 기다리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스스로 하려는 아이의 모습에 해볼 수 있도록 많이 기다려주고 지켜보고 싶다고 하셨다.

가정과의 소통 (키즈노트 알림장)

오늘 아침에도 밥을 잘먹었는데 * 점심때도 잘먹어서 디행이네요 이제 컨디션이 좋네요 ㅋㅋㅋ
태워이가 제가 빨래정리하면 자기도한다고 하는데 *
* 그래도 재빨리 정리해서 놀라고있어요 ㅋㅋ 요즘
에 혼자서 한다는게 진짜 맘아지고 있어 넘 기특한 모습
을 많이 보여주네요 ㅋㅋㅋ
머리도 혼자 감는다고 손도 못되게하고 샤워도 혼자한
다고 바디워시를 40번씩 폼프질을하네요!!!!!!
답답할때도 많지만 정말 기다려주는게 이렇게 힘든줄
요즘 많이 느끼고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해튼이가 혼자 세수하는 사
진입니다. 얼마나 뽀뽀 세수했는지 몰라요 ^^
세수 다하고 얼굴 깨끗하냐며 몇 번씩 물어보는
해튼이에요 친구들이랑 어린이집에서도 입에 물
으면 혼자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제가 목티
슈로 닦아주고 했었는데.. 이제 저도 기다리면서
해튼이가 혼자 해볼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기다리는게 정말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
선생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7월 치카치카 양치



치카송을 들으며
“이~아~에~”



블록으로 칫솔을 만들어서
치카해요



직접 양치질을 해보아요
“치카치카”



“이에 세균이 있네?”
세균을 깨끗하게 해줘요.

* 놀이 속 배움 *

- 기본생활> 건강하게 생활하기 : 양치질의 필요성을 알고 양치하는 즐거움 느끼기
- 예술경험>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노래를 통해 양치질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교사의 고민 및 지원

양치하는 시간 칫솔을 입에 물고 교사의 도움을 기다리는 모습이 자주 발견되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양치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양치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치카송을 틀어주었고, 영아들이 노래를 듣고 “이, 아, 에” 소리 내고 블록으로 칫솔을 만들어 양치하는 흉내를 내보았다. 치카송을 들으며 인형 얼굴에 칫솔질하는 모습이 발견되어 칫솔 교구로 양치질을 해보며 뽀니, 아랫니를 열심히 닦아보았다. 양치와 관련된 동화책을 읽어보던 중 세균에 관심을 가져, 이 닦기 그림과 보드마카펜, 지우개를 지원해주어 우리 이에 있는 세균을 깨끗하게 지워보며 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정연계 및 영아의 변화



가정에서도 밥을 먹은 후
스스로 양치해요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은
후 “선생님 저 양치할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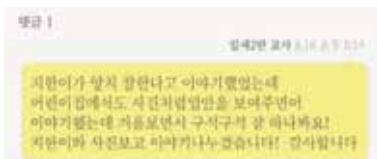
“선생님 저 푸카도 잘해요”
“우글우글 튼”

다양한 양치 놀이를 통해 양치하기에 관심이 높아진 영아들이 이제는 점심을 먹은 후 자발적으로 언제 양치하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스스로 양치를 하고 양치를 다 하면 컵에 물을 받아 입안을 행구며 하기 싫어하던 양치를 즐겁게 느끼게 되었으며, 가정에서도 밥을 먹은 후 칫솔에 치약을 묻혀 스스로 양치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가정과의 소통 (키즈노트 알림장)



선생님 지한이 양치사진이에요.
선생님 보여드린다고 사진 찍어 달래요 ㅎㅎ



8월 나는 그릇 정리 대장



간식을 먹은 후
“어디에 정리해요?”



포크는 포크끼리,
그릇은 그릇끼리 정리한다.



엄마, 아버지처럼 설거지를 해보아요
“그릇이 깨끗해졌어요”



* 놀이 속 배움 *

- 사회관계> 더불어 생활하기 : 엄마, 아버지처럼 설거지 해보기
- 자연탐구>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 포크, 그릇을 같은 것끼리 모아보기

교사의 고민 및 지원

급·간식을 먹은 후 영아들이 내가 먹은 그릇은 어디에 정리를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발견되어 그릇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포크는 포크끼리, 그릇은 그릇끼리 정리를 해보았다. 같은 것끼리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니 영아들이 쉽게 그릇을 정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정리 후 교사에게 “정리했어요”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간식을 먹은 후 그릇을 화장실로 가져가 그릇 닦는 영아의 모습이 발견되어 왜 그릇을 씻는지 묻자 엄마, 아빠가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말해 그릇을 닦아보는 놀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영아들에게 그릇과 음식 놀잇감에 거품과 수세미를 지원해주어 설거지 놀이를 더 생생하게 해보았고, 그릇과 음식 놀잇감이 깨끗해지고 있다고 의사표현하며 설거지 놀이를 했다.

가정연계 및 영아의 변화



“엄마 내가 설거지해볼게요”
내가 먹은 그릇을 직접 씻어봐요



내가 먹은 그릇은
내가 씻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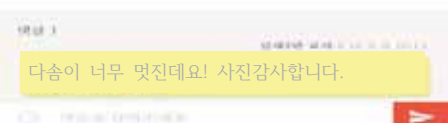
내가 먹은 자리도
휴지로 정리해요

영아가 그릇 씻기를 좋아하여 요플레를 먹은 날에는 요플레 통을 영아가 스스로 씻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아가 음식을 먹다 흘린 것을 휴지로 닦으며 자신이 먹는 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깨끗하게 가정에서도 밥을 먹고 내가 먹은 그릇은 스스로 설거지하고 물에 헹궈보며 깨끗해진 그릇을 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가정과의 소통 (키즈노트 알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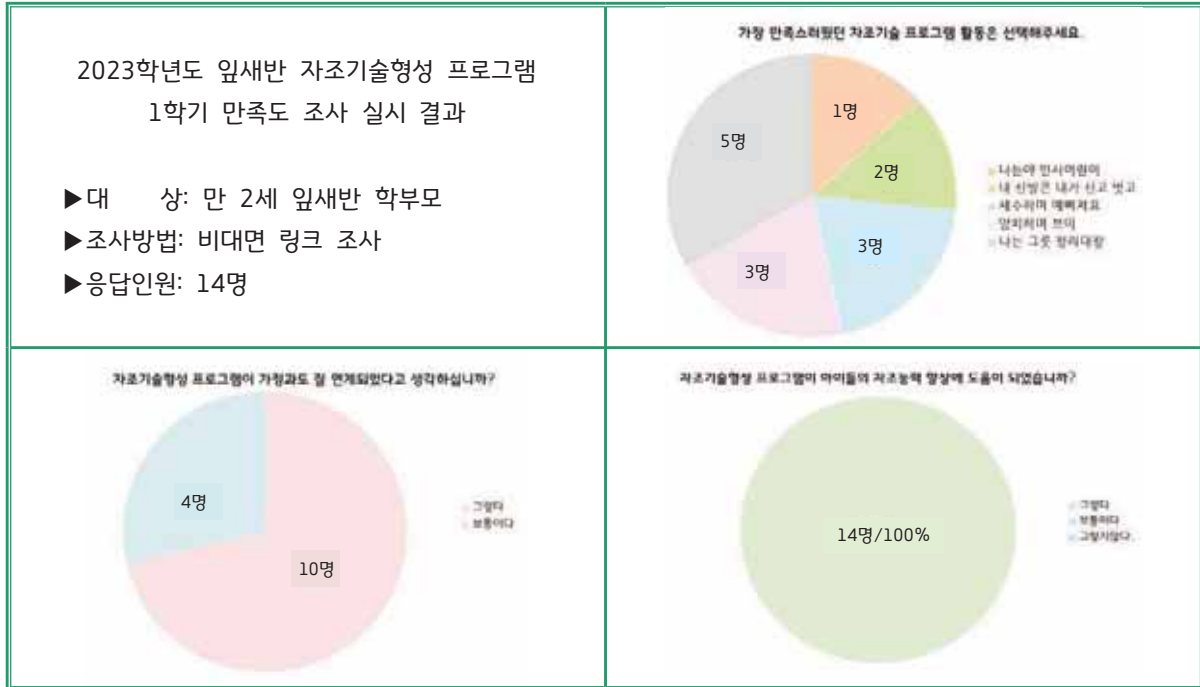


선생님 다솜이랑 저녁 먹고 다솜이가 그릇 정리하네요^^ 선생님이 내가 먹은거는 내가 정리하는 거라고 다솜이가 할 수 있대요 칭찬 많이 해주었어요!



III. 활동평가

1) 부모의 평가



◆ 2023년 1학기 자조기술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님 느낀점

집에서 같이 설명해 주니 지나서도 기억을 하고 습관처럼 형성되어 실행을 잘 하는거 같습니다

아이 연령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아이도 하나의 놀이처럼 느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자조기술 발달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다고만생각했는지 생각보다 훨씬 아무지고 꼼꼼하게 잘하는걸보고 자립할수있게 좀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라 아이도 저도 처음인 것이 많아 아이에게 무의식중에 그냥 해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더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조기술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도움주신 선생님들께도 항상 감사합니다^^

◆ 부모님들의 자조기술형성 프로그램 제안 (2024년 프로그램 반영)

식사예절 및 식습관 개선 , 친구랑 함께 나눠고 놀아요

하원후 수저젓가락 싱크대에올려두기

생활습관형성 프로그램은 반복되어도 좋을거 같습니다

옷, 양말 혼자 입고 신어보기. 장난감 책 정리하기 등 , 하원후 원가방에서수저젓가락꺼내 설거지통에넣기

단추/지퍼 달린 옷 입거나 벗기, 세수 수건(핸드타올) 빨래 개키기, 하원 후 스스로 가방(수저통) 정리

2) 영아의 변화

2-1) ‘스스로 하는 멋진 잎새반’

키즈노트를 통해 영아들의 가정연계 놀이 활동을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놀이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영아들은 자신의 사진을 친구들에게도 보여주며 “나는 이거 집에서 했어!”라며 이야기하고 계속 보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하는 멋진 잎새반’ 나무를 만들게 되었다.



2-2) 의존에서 자조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영아들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부탁하거나 때로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들은 자조기술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놀이와 자신이 시도해 보지 않았던 자조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고, 놀이를 통해 자조기술을 습득하면서 스스로 놀이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3월 ‘나는야 인사 어린이’ 같은 경우 바깥 놀이 시 자주 만나던 어른들과도 인사를 잘 나누고 친구들과의 표현에 있어 상황에 맞는 인사를 나누며 자조기술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가정연계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해보았던 자조기술을 가정에서 부모님의 지원 아래 직접 해볼 기회가 생기고, 부모의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더욱 성취감과 자존감 역시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5월 양치 놀이에서는 치카송을 듣고 양치하는 모습을 흉내 내고 블록을 가져와 칫솔을 만들어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그 외 다른 월별 놀이에서도 엄마, 아빠처럼 설거지를 하거나 아기를 돌보아 주는 등 놀이를 다양하게 확장해 가는 등, 영아의 적극성 및 표현력 또한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3) 교사의 평가

자조기술 형성 프로그램은 영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상을 바탕으로 놀이를 만들어 영아들이 자연스럽게 자조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월별 목표를 달성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닌 점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실행함으로써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순간부터 가정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볼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지난 활동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자조기술을 놀이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행한 결과 자조기술은 해당 월에 실시했을 때 보다 더 시간이 지난 후 기술적 능력이 발전되고 놀이 또한 더 흥미를 느끼고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새 학기에는 월령별 발달 차이가 크고, 신입 원아의 적응으로 인해 자조기술 형성이 조금 더디고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런 영아들에게는 노래와 손유희, 동화를 통해 놀이를 시작하기 전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아들은 노래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참여해 보려고 하였다. 특히 아직 언어발달이 느린 영아의 경우 노래와 손유희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1학기가 지나간 시점에는 노래를 통해 배운 단어나 자조기술 방법을 완벽하게 해내기도 하고 언어적 표현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조기술들은 반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교사에게도 인내심이 필요한 일들이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영아의 향상된 모습을 보면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 가정연계를 통한 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영아가 가정에서 어떻게 놀이하는지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른 놀이로 확장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며 이후 실시되는 프로그램에서도 영아의 점진적 발달을 지속적으로 도와나갈 수 있었다.

Ⅳ.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2024년 연간프로그램 계획

‘놀면서 自란다’ (의존에서 자조로)							
월	자조기술 놀이	가정연계	표준보육과정 내용범주	월	자조기술 놀이	가정연계	표준보육과정 내용범주
3월	나는야 인사 잘하는 4살	동네 이웃과 인사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9월	나는 정리왕 (23년 1학기 부모 의견 반영)	가방에서 수저통을 꺼내요 (23년 1학기 부모 의견 반영)	더불어 생활하기
4월	내 자리 찾기	신발을 나란히 벗어 정리하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	10월	나는야 옷 입기 대장	부모님과 빨래 정리하기 (23년 1학기 부모 의견 반영)	건강하게 생활하기
5월	양말아 내 발을 부탁해	양말을 벗어서 빨래통에 넣기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11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분리수거를 도와줘요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6월	냠냠 찹찹 음식은 맛있어 (23년 1학기 부모 의견 반영)	음식을 골고루 먹어보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12월	친구에게 양보해요 (23년 1학기 부모 의견 반영)	엄마, 아빠에게 마음을 나뉘요	더불어 생활하기
7월	치카하고 푸카하고	밥 먹은 후 스스로 양치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1월	포근한 내 이불	잠자리를 준비해요	나를 알고 존중하기
8월	어푸어푸 세수해요	잠자기 전 스스로 세수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2월	심부름해요	부모님을 도와 저녁 차리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 2024년 연간에는 2023년 실시한 자조기술형성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결과와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학기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할 예정이다.

2. 일반화 제언

기본생활습관을 중심으로 한 자조기술형성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영아마다 개인차가 있었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발달 수준별로 꼭 필요한 자조기술을 습득하고 향상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 논문에서는 가정과 연계한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유아는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람직한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였으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교사와 부모의 칭찬과 보상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였으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므로 잘 형성된 기본생활 습관은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백순덕, 2007).

이처럼 자조기술을 익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충분히 사용하고 스스로 독립해 나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어린이집에서는 영아의 자조기술 습득과 향상을 위해 교사와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부모 : 부모의 손길에서 자신의 힘으로!

아직도 많은 영유아가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모 또한 ‘빨리해야한다’ 라는 생각에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가 쉽지 않기에 부모가 어린 영아들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다려주며 격려해 주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부모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2. 교사 : 만1세를 위한 자조기술 프로그램 실행

본 프로그램은 만2세를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만1세 영아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사는 부모와 끊임없이 아이에 대해 상호작용하고 영아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발달 수준에 맞는 자조기술을 놀이로 제안한다면 영아들의 자조기술은 순조롭게 형성될 것이다.

V. 참고문헌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건복지부, 2020)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가정과 연계한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유아의 자아개념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백순덕, 2007)

유아의 발달 수준과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화윤, 200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프로그램 사례집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2022)

즐거움과 배움과 성장이 있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정나라·정유진, 2020)

제3판 영유아교육과정 (이기숙·김정원·이현숙·전선옥, 2017)

블루래빗 ‘인성발달그림책’ (안녕! 인사해요, 하나씩 예쁘게 입어요.)

(주)더큰컴퍼니 (이 닙을래요, 도와드릴게요, 혼자서 입어요)

한국비고츠키 (엄마, 나도 잘 하죠?, 혼자서 입어요, 도와 드릴게요)

참고영상: 출처인스타 sgjrzip (ebs 한국육아 영국육아차이)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최우수상>
시립서연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국공립
지 역	화성시
프로그램명	천천히 천천히 우리들의 홀로서기
총 괄	정예숙
기획 및 운영	송주연, 김혜원

1.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이미 굳어진 습관은 좀처럼 바꾸기 힘들다. 일상생활 습관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는 영아기이다. 일상생활 습관은 한 개인이 생명을 유지하거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유아기부터 꼭 지켜야 할 일상생활 습관이라고도 말한다. (곽미라, 2004). 영아의 일상생활 습관은 부모에 의해서 형성되며 특히, 부모의 생활 습관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최경순, 1992) 또한, 이 시기는 기초적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는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건강한 일상생활 습관 형성이 중요하다. ((이원영, 방인옥, 박찬옥, 1992)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핵가족화되고, 조부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로 인해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영아들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시간이 현저히 줄고,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부모로부터 일상생활 습관을 습득하지 못한 영아들은 일상생활 습관 형성에 있어서 어린이집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어린이집 안에서의 일상생활은 가정과 연계하여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의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일상생활 습관이 자리잡혀야 할 중요한 시기인 영아기에 일상생활 형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아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놀이를 통해 즐겁게 일상생활 습관을 형성해 가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천천히 천천히 우리들의 홀로서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2. 프로그램의 실시 배경(이론적 배경)

2013년부터 무상 보육이 실시되면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영아 보육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영아 교사의 전문성 증진에 대한 요구와 학부모들의 질 높은 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 되었다. 여기에 현시대를 반영한 여성의 사회 진출 요구가 더해져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사회진출로 영아들은 가정에서의 생활보다 어린이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어린이집 안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영아들의 일상생활을 익히는 부분도 어린이집 교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어린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영아기의 발달 특징과 그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영아기는 자신의 의견을 어른에게 전달할 만큼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상에서 여러 부분 부모와 부딪히게 된다. 부모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도 바로 이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난다. (이귀옥, 2016)

하루 일과 중 영아가 등원하여 오후 6시에 귀가한다고 볼 때 영아기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은 약 9시간 정도이다. 영아의 하루 일과 패턴은 섭식, 배변, 수면, 씻기 등 기본생활의 자립 기능과 관련되며 이 네 가지 활동에 소요 시간은 약 6시간 30분 정도이다. (영아 보육의 실제(2021))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하루 일과 중에 절반 이상이 섭식, 배변, 수면, 씻기 등의 일상생활이다. 일상생활이라는 중요한 과업을 영아가 스스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제4차 표준 보육 과정에서는 영아의 모든 활동은 영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해당 어린이집에서도 영아들의 흥미와 요구를 파악하여 놀이 중에서 일상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I. 본론

1. ‘천천히 천천히 우리들의 홀로서기’ 프로그램 내용

- 1) 활동 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현재
- 2) 활동 대상 : 만 1세 영아
- 3) ‘천천히 천천히 우리들의 홀로서기’ 프로그램 연간

월	기본 생활습관 주제	가정 연계 활동
3	내 얼굴이 있는 곳을 찾아요. (여기가 내 자리)	집에 있는 내 사진을 부모님과 함께 찾아보며 놀이한다. (꼭꼭 숨어라. 내 얼굴이 보일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내 신발을 정리해요. (한발 한발 내 신발)	가족의 신발(신발장)을 가지런히 정리한다. (우리 가족 신발도 내가 해요.)
4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신발을 신어보아요. (활동명:영차영차 내 발에 꼭~)	부모님과 외출 시, 스스로 신발을 신어본다. (활동명:엄마 아빠 내가 신었어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내 양말을 벗어보아요. (내 양말은 숨숨~)	하원 후, 집에 도착하면 스스로 양말을 벗고 정리한다. (빨래통으로 골인~)
5	올바른 양치법을 알아보아요 (윗니 아랫니 쓱쓱 싹싹)	가족이 모두 함께 양치해 본다. (다 함께 치카치카)
	쓰레기를 휴지통에 넣어보아요. (쓰레기야 잘가)	부모님과 함께 청소해보고, 쓰레기를 버린다. (깨끗한 우리 집)
6	모두 제자리 (‘아야아야 놀잇감이 아파요!’)	가정에서 놀이한 장난감은 제자리로 정리한다. (나는야 정리 대장!)
7	더울 때는 물을 마셔요. (수분 촉촉! 시원하게 한 컵!)	나만의 텀블러 가방 속에 물병을 들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수분 보충을 한다.(물, 언제나 함께해요.)
8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어요 (내가 할 거야!)	스스로 옷을 입으며 등원 준비를 한다. (집에서도 혼자 해요!)
9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겹옷과 양말을 정리해보아요. (내 자리에 차곡차곡!)	하원 후, 가정에서 벗어놓은 내 옷과 양말을 정리한다. (집에서도 차곡차곡!)
10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깨끗이 손을 씻어요. (뽀뽀 내 손)	동요를 들으며 부모님과 거품을 하며 즐겁게 손 씻기를 한다. (신나게 거품이 풍풍)
11	거울을 보며 로션을 스스로 발라요 (얼굴에 부비부비!)	부모님과 로션 마사지를 하며 스킨십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껴 본다. (문질문질 사랑의 마사지)
12	겨울용품 스스로 착용해보아요.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겨울용품으로 트리를 꾸며본다. (나만의 겨울 트리)
1	내 순서를 기다려요. (천천히 천천히)	기다림에 관한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 (기다릴 수 있어요.)
2	혼자서 돌아다니지 않아요. (함께 해요.)	바깥 외출 시,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 다닌다. (사이 좋은 사이!)

4) ‘천천히 천천히 우리들의 홀로서기’ 프로그램 계획 단계 및 활동 방법

2월	프로그램 회의 및 구상	- 교사들과 회의를 통해 만 1세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습관 주제 계획 및 설정 - 프로그램 연간계획안 작성 - 일상생활 습관 주제에 맞는 흥미로운 활동 계획
3월~ 5월	프로그램 실행	- 일상생활 습관 주제를 2주씩 실행 -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해볼 수 있도록 하기 - 놀이를 통해 흥미롭게 일상생활 습관 경험하기
5월	프로그램 계획 수정	- 한 가지 일상생활 습관 주제를 2주에서 한 달로 계획 수정 - 영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 수정 - 프로그램 연간계획안 수정
6월~ 8월	프로그램 재실행	- 한 달 동안 한 가지 일상생활 습관 주제를 반복하여 경험 - 충분한 기간 내에 가정과도 연계하여 일상생활 습관 실행 - 놀이를 통해 일상생활에 흥미를 갖게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한다.
9월	프로그램 평가	- 만1세 담임 교사 평가 - 가정 연계 활동에 대한 부모 평가 - 평가를 반영한 2024년도 일상생활 습관 연간활동 계획

♣ 연간계획안 변동 사유

‘천천히 천천히 우리들의 홀로서기’ 프로그램은 영아들의 일상생활 중,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생활 습관을 주제로 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만 1세는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시기로, 음식에 대한 선호도 생기고, 스스로 칫솔을 쥐고 양치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 후반 대에 접어들면 배변 훈련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변기를 사용하여 용변을 보는 것을 시도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배변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내 옷을 입고, 벗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 만 1세 상반기에는 ‘나’를 인식하며 내 물건을 스스로 정리해보고 간단한 양말이나 신발 등을 신고 벗는 연습이 필요했다. 3월, 4월, 5월에는 스스로 정리와 양치하기, 양말과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일상생활 습관 주제를 계획 및 실행하였다. 위 연간계획안처럼 2주에 한 개의 기본생활 습관을 실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2주 동안 한 개의 기본생활 습관을 실행하기에는 영아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3월, 4월, 5월의 주제를 모두 실행해본 결과 2주라는 기간 내에 영아들은 일상생활 습관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였고, 스스로 할 수 있을 시기가 되었을 즈음 다음 주제로 바뀌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교사 회의를 거쳐 6월부터는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만으로 일상생활 습관을 실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고, 무엇보다 스스로 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해당 일상생활 습관 주제 외에도 영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3가지의 활동 사례를 보며 만 1세 영아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도록 하자.

2. ‘천천히 천천히 우리들의 홀로서기’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1) 보육 활동

보육활동① ‘아야 아야 놀잇감이 아파요!’

6월			
주제	모두 제자리		
활동명	‘아야 아야 놀잇감이 아파요!’		
영역	실내놀이	대상	만 1세 영아
표준보육 내용범주	기본생활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기본생활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목표	- 놀이 후 놀잇감을 정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 놀이 후 놀잇감을 제자리에 정리해 본다.		
활동 방법	1. 놀이 후 놀잇감을 정리하지 않은 교실을 보며 함께 이야기 나눈다. 2.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 후 정리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본다. 3. “나도 집에 가고 싶어요”라는 동화를 들어 본다. 4. 영아들과 장난감의 자리를 찾아보고 제자리에 넣어보며 놀이한다. 5. “누가 누가 정리 대장인가요?”라는 놀이하며 정리 해 본다. 6. ‘찍찍이와 말랑이 집이 달라요’ 영아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장난감의 특징을 알아보고 직접 탐색해보며 분류 놀이해 본다. 7. ‘나는나는 정리 대장!’ 깨끗해진 교실을 보며 기쁨을 마음을 표현해요.		
활동 사진			
	‘앗! 굴러다니는 놀잇감은 위험해요’	‘나도 집에 가고 싶어요’라는 동화를 들어요	영아들과 놀잇감의 자리를 찾아본다.
			
	“누가 정리 대장인가요?”	’찍찍이와 말랑이 집이 달라요‘	‘나는야 정리 대장!’

보육 활동② 수분 축축! 시원하게 한 컵!

7월			
기본생활 주제	더울 때는 물을 마셔요.		
활동명	수분 축축! 시원하게 한 컵!		
영역	바깥놀이 점심 및 간식	대상	만 1세 영아
표준보육 내용범주	기본생활 > 건강하게 생활하기 >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기본생활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목표	- 더운 날씨에 물을 자주 먹어야 함을 안다. - 소화를 돕는 식습관을 기른다. - 물을 먹은 후 컵을 바르게 정리할 수 있다.		
활동 방법	1. 바깥 놀이를 다녀온 후, 함께 시원한 물 마시는 시간을 가진다. 2. 바깥 놀이를 나가, 시원한 그늘에 돛자리를 펴고 물을 마시며 수분을 보충한다. 3. 유희실에서 놀이 후, 정수기에서 스스로 물을 따라 마신다. 다 먹은 컵은 스스로 정리함에 넣는다. 4. 점심 및 간식을 먹은 후, 내가 사용한 컵은 스스로 쟁반에 올리며 정리한다.		
활동 사진			
	사용한 컵을 정리 통에 쏙!	바깥 놀이 중, 수분 보충!	견학 갈 때는 가방 속에 내 물병을 들고 가요!
			
	신체활동 후, 시원하게 수분 충전!	다 먹은 컵은 내가 정리해요!	내가 흘린 물은 스스로 닦아요!

보육 활동③ 내가 할 거야!

8월			
기본생활 주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어요		
활동명	내가 할 거야!		
영역	기저귀 갈이 및 배변 활동	대상	만 1세 영아
표준보육 내용범주	기본생활 > 건강하게 생활하기 >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 신체운동 >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 신체를 탐색한다. 자연 탐구 > 탐구 과정 즐기기 >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목표	-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 - 스스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 - 편안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활동 방법	1. 기저귀 갈이 시간에 교사를 따라 바지를 벗고 입는 것을 따라 한다. 교사도 연습용 바지를 준비하여 입고 벗는다. 영아들이 교사의 바지 입기를 도와준다. (소변을 많이 하지 않아 기저귀를 갈지 않아도 되는 영아도 함께 참여한다) 2. 스스로 입기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며 또래와 함께 즐거운 놀이처럼 바지를 입어본다. 3. 바닥에 한 줄로 놓인 기저귀 중, 나의 기저귀를 찾아보는 놀이를 한다. 4. 하원 준비 시간에 기저귀, 바지, 양말 등 스스로 입어본다.		
활동 사진			
	선생님 따라서 바지 벗기 시작~!	선생님의 바지를 입혀주세요!	영차영차! 바지를 입자
			
	하원 준비는 내가! 스스로~	갈아입은 옷은 내 사물함으로 쏘옥~	내 기저귀를 찾아라!

2) 가정 연계 활동

가정연계활동① 나는야 정리 대장!

6월 - 모두 제자리			
가정연계 활동명	나는야 정리 대장!	대상	만 1세 영아
활동 방법	1. 어린이집에서 정리할 때 부르는 ‘모두 제자리’ 노래를 부모님과 함께 부르며 정리해요. 2. 내가 놀이한 것을 부모님과 함께 정리해요. 3. 장난감이 있던 자리를 찾아보고 제자리에 정리해요. 4. 같은 종류의 장난감끼리 분류하며 정리해요. 5. 내가 놀이한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해요.		
활동 사진			
	‘모두 제자리’ 노래를 부르며 정리해요.	부모님과 함께 정리해요.	놀이감의 자리를 찾아 봐요.
			
	놀이감을 제자리에 정리해요.	같은 놀이감끼리 정리해요.	내가 놀이한 놀이감을 스스로 정리해요.

가정연계활동② 물, 언제나 함께해요

7월 - 더울 때는 물을 마셔요			
가정연계 활동명	물, 언제나 함께해요.	대상	만 1세 영아
활동 방법	1. 어린이집에서 패브릭 마카로 텀블러 백을 색칠하여 나만의 물병 가방을 만든다. 2. 내가 색칠한 텀블러 백을 가정으로 가져가 사용한다. 3. 가정에서는 영아와 함께 외출 시, 텀블러 백을 착용하여 어디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 4. 외출하지 않은 영아들도 가정에서 텀블러 백을 착용하여 수시로 물을 먹으며 수분 보충을 한다.		
어린이집에 서의 활동			
	텀블러 백	나만의 물병 가방 꾸미기	

가정 연계 활동			
	집에서도 물을 자주 마셔요!		
			
바깥에서도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가정연계활동③ 집에서도 혼자 해요!

8월 -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어요			
가정연계 활동명	집에서도 혼자해요!	대상	만 1세 영아
활동 방법	1. 가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어본다. 2. 등원 전, 하원 후 또는 주말에 스스로 옷을 입어본다. 3. 가정에서 기저귀를 갈 때, 기저귀를 스스로 입는다.		
활동 사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입을 수 있어요~!		

III. 활동 평가

1. 보육 활동에 대한 교사 평가

보육 활동 1) 아야! 아야! 놀잇감이 아파요

6월 - 모두 제자리	
활동명	아야! 아야! 놀잇감이 아파요
실행 결과	영아기 아이들은 사물이 살아있다고 사고하는 물활론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놀잇감을 의인화하여 놀잇감이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로 들려주었더니 영아들이 집중하여 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리하다 보니 음식 모형 중에서 모양이 비슷한 두 가지 교구를 계속 섞어놓는 상황이 벌어졌다. 교사는 두 교구를 영아들에게 보여주며 각각 탐색해보게 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 모형은 ‘말랑이’라고 부르고, 찌찌이, 보들이가 붙어있는 썰기 음식 모형은 ‘찌찌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렇게 알려 주자 영아들은 교구를 살펴보고 탐색하면서 두 교구를 분리하여 각각의 바구니에 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교사가 도움을 주었으나, 매일 같이 놀이 시간 이후에는 분리해서 교구를 정리하는 것을 반복하여 지도하였을 때, 차츰차츰 영아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교사는 정리를 열심히 하는 영아들을 향해 “와~ 00반 친구들은 정말 정리를 잘하는 정리 대장이구나~!”라고 격려해 주었더니 뿌듯해하며 정리를 더 즐겁게 하였다. 그 이후 시간부터는 정리 시간이 되면 영아들에게 정리할 시간인 것을 알려 주며 ‘모두 제자리’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정리를 격려했다. “오늘은 누가 누가 정리 대장일까요~~?”라는 물음에 영아들은 손을 번쩍 들며 “나!”라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며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리가 모두 끝난 후 깨끗한 교실을 보며 “우와!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정리하니까 교실이 정말 깨끗해졌구나~!”라고 교사가 반응하며 박수 치자 영아들도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야! 아야! 놀잇감이 아파요’라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영아들이 정리가 귀찮고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로 인식하게 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반성적 사고	영아들의 하루 일과는 놀이와 일상생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일과 중에 영아들이 놀이하면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과정이 ‘정리’이다. 만 1세 영아들의 특성상 놀잇감을 다 쏟아부으며 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사고가 일어난다. 영아들에게 정리하자고 말로만 지도했을 때는 정리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의 귀찮은 감정에 더 어지럽히며 놀이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 교사로서 마음도 몸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영아의 입장과 영아기의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며 놀잇감을 의인화한 즐거운 놀이로 접근하여 보았다. 그 결과 영아들에게도 정리가 숙제가 아닌 놀이로 학습하게 된 것 같다. 이제 00반 영아들은 놀이 후 정리 시간을 하나의 놀이처럼 여기며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한 후 깨끗해진 교실을 보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보육 활동 2) 수분 축축! 시원하게 한 컵!

7월 - 더울 때는 물을 마셔요.	
활동명	수분 축축! 시원하게 한 컵!
실행 결과	7월 한 달 동안 신체활동 후, 바깥 놀이 시간, 바깥 놀이 후, 점심 먹은 후에는 물을 마시도록 하였다. 영아들은 한 달 동안 원하는 시간에 물을 마셨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영아들이 먼저 물을 챙겨 마시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전에는 영아들이 “물 마실래요.”라는 표현이 적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먼저 물을 먹겠다고 표현하는 영아가 많아졌다. 또한,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내가 마신 컵은 스스로 정리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다. 교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영아들이 나서서 “내가 넣을래요.” “내가 갖다 놓고 올게요.” 하며 솔선수범하는 영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반성적 사고	이전까지 영아들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표현하는 영아가 거의 없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영아들은 ‘물’에 대한 소중함을 자연스레 알게 되고, 스스로 물을 마시려는 영아들이 많아졌다. 어린이집에서 수분 보충을 자주 해주며, 물을 마시는 즐거움까지 더해진 것 같다. 친구들과 함께 도란도란 모여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물을 마시는 시간을 흥미로워하는 영아들이다. 더불어 7월에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었다. 더운 날씨에는 물을 많이 마시며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동시에 폭염에 대한 안전교육까지 연계되어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사는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복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에 대한 흥미가 생길 수 있도록 교사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보육 활동 3) 내가 할 거야!

8월 -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어요	
활동명	내가 할 거야!
실행 결과	영아들과 교사는 놀이 형식으로 바지 입기를 하였다. 영아들은 교사가 바지를 입고 벗는 것을 보며 직접 따라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바지 벗기를 울동처럼 시작하자 영아들은 흥미롭게 관심을 보였다. 영아들은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며 교사의 옷 입기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옷을 입는다는 것에 흥미를 느낀 영아는 처음으로 스스로 옷 입기를 시도할 수 있었다. 함께 모여 바지를 즐겁게 입으면서 칭찬과 격려가 끊이지 않고 즐거운 일상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반성적 사고	교사가 영아에게 언어로 바지를 입고 벗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모델링이 되자 영아들이 모방하며 놀이처럼 진행되었다. 평소 영아들은 ‘옷 입기’, ‘기저귀 입기’, ‘양말 신기’, ‘내 기저귀 꺼내기’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싫어하고, 스스로 하지 못하는 영아가 많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영아들은 옷이나 기저귀를 입는다는 것에 대한 흥미가 많이 생겼고, 칭찬과 격려에 힘입어 더욱 스스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교사’는 항상 영아에게 모범을 보이며, 영아들의 일상생활을 그저 흘러가듯이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델링이 되고 격려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 가정 연계 활동에 대한 교사 평가와 부모 평가

가정 연계 활동 1) 나는야 정리 대장!

6월 - 모두 제자리			
가정 연계 활동명	나는야 정리 대장!	대상	만 1세 영아
자체 평가	-교사가 보육 활동 가운데 영아들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요소를 적절히 관찰하였다. - 반복적으로 놀잇감을 어지르는 행동을 영아의 입장과 영아기의 물활론적인 특성을 이해하여 의인화된 놀이로 접근하여 놀이하는 방식이 매우 긍정적인 행동수정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 영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이루어진 반복적인 놀이가 가정에서도 연계되어 부모님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형성하였다는 피드백(평가)이 있었다.		
부모 평가	-이00 어머니: 여행 중에도 장난감 정리를 스스로 잘하는 00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부르는 노래라며 ‘모두 제자리~’ 라는 노래를 부르며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00이가 엄청 뿌듯해하고 만족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엄마가 제일 만족했어요.) -김00 어머니: 정리도 열심히 하는 00이! 이쁘게 정리하려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자주 시키게 됩니다. 빨래도 같이 개려고 하고, 청소도 잘 도와줍니다. 뭐든지 시키면 말귀를 알아듣고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기특합니다! -방00 어머니: “정리하자~ 모두 제자리에~” 라는 말에 반응하여 정리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합니다. 늘 개구쟁이인 줄 알았는데 요즘 00이의 의젓함도 보입니다.		

가정 연계 활동 2) 물, 언제나 함께해요.

7월 - 더울 때는 물을 마셔요.			
가정 연계 활동명	물, 언제나 함께해요.	대상	만 1세 영아
교사 평가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직접 색칠한 텀블러 백을 가정으로 보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아들이 자신의 텀블러 백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 눈에 보여 뿌듯함이 느껴졌다, 가정에서도 계속 가방을 메며 가방 속에 물병을 스스로 넣고 물을 마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영아들이 좋아하는 가방으로 인해 더욱 흥미롭게 물을 마시는 것 같았다. 또한, 텀블러 백이 생긴 영아들은 자신의 물병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어 자주 물병으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재활용을 줄이게 되어 환경 면에서도 좋았다.		
부모 평가	-조00 어머니: 물병 가방이 있어서 바깥 활동을 할 때 물병에 물을 담아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물 먹는 습관과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00 어머니: 목욕 후에 시원하게 한 잔하는 00이에요. 어린이집에서 보내주신 가방을 메고 물을 마시니 더욱 물맛이 좋은가 봐요.^^ -최00 어머니: 물을 마시다가 물병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즐거워하네요. 바깥에 나갈 때도 00이가 좋아하는 가방 메고 외출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선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연계 활동3) 내가 할 거야!

8월 -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어요			
가정 연계 활동명	내가 할 거야!	대상	만 1세 영아
교사 평가	어린이집에서만 연습하던 영아들도 가정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 좋았다. 부모님들은 처음으로 스스로 옷을 입으려는 영아의 모습을 보고 기쁨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옷을 스스로 못 입던 영아가 있었는데, 가정과 함께 연계하여 연습하니, 금방 혼자 입게 되는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번 가정 연계 활동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섞인 격려와 칭찬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 같다. 또한, 스스로 옷 입기 뿐 아니라, 자연스레 배변 훈련으로까지 이어져 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부모 평가	-손00 어머니: 아직은 서툴러서 아빠나 엄마가 도와주기도 하지만,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네요. 전에는 기저귀를 혼자 벗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소변을 보는 흉내도 내며 혼자 벗고 변기에도 앉아보려 해요. 집으로 돌아오면, 혼자서 신발과 양말을 킁킁거리며 벗어보려고 노력하는 00이입니다. -도00 어머니: 스스로 등원 준비를 해 보았어요. 선생님께 혼자 입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하니까 더 신나게 옷을 입는 00이었어요. “나 잘 입지?”라고 말하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뽐내는 00이의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김00 어머니: 언젠가부터 전부 스스로 하려는 00이에요. 잘은 못하지만 늘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혼자 하려는 00이 덕분에 등원 시간에 항상 지각하게 되지만. 그래도 기특합니다. -홍00 어머니: 스스로 바지를 올리고 뿌듯해하는 00이에요. -최00 어머니: 처음 시켜보는 거였는데, 혼자서 발 넣고 무척 뿌듯해하네요. -방00 어머니: 이제 제법 스스로 할 줄 아는 00이가 대견스럽습니다.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현재까지 ‘천천히 천천히 우리들의 홀로서기’ 프로그램을 실행해본 결과, 영아들에게 한 가지 주제가 한 달 동안 주어지면 그 주제와 연계된 다른 행동까지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스스로 물을 자주 마시는 활동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컵을 정리하거나 자신이 흘린 물을 스스로 닦기까지 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영아의 일상생활 습관 영역 중 ‘자조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자조 능력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신체와 정신, 감정을 발달시키기도 한다. 영아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요구할 경우, 좌절감을 느껴 더 이상 시도하지 않으려 한다. 영아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영아가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고려하여 2024년도 프로그램은 ‘자조 기술 능력’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 습관 주제를 계획하였다. 2024년 일상생활 습관 계획을 세울 때 올해 프로그램인 ‘천천히 천천히 우리들의 홀로서기’와 같이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하지만 내년의 영아들의 발달 상황과 영아들의 습득 능력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 가능 하다.

‘천천히 천천히 우리들의 홀로서기’를 실행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영아가 놀이 중에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을 경험하여야 긍정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한 달의 계획안 실천 중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일상생활 습관을 형성하면서 교사와 영아는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니 흥미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한 달 동안 꾸준히 일상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영아와 놀이 속에서 일상생활 습관을 어떻게 지원해주어야 하는지 고민하여야 한다. 더불어 영아의 발달 특성상 언어의 지원보다는 교사가 모델링이 되어 일상생활 습관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아의 일상생활 습관이라고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교사의 모습에서 영아들은 일상생활 습관의 모습도 습득하게 된다.

다음은 가정 연계가 중요성이다, 어린이집 안에서의 일상생활의 변화가 가정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영아들은 자신이 습득한 일상생활 습관에 대해 가정과 혼돈이 생긴다. 일상생활 습관 형성은 가정과 어린이집의 일관성 있는 습관 형성이 중요하다. 가정에서 일상생활 습관을 실천할 때 부모의 칭찬과 격려는 영아의 일상생활 습관 형성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어린이집에서의 일상생활 습관 중 간단하고 단순한 활동일지라도 가정과 연계하면 더욱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일상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한번 습득하였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몸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어린이집에서의 일상생활 습관도 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실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생활 속에서 영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습득한 일상생활 습관이 유지될 수 있다.

1. 2024년 연간프로그램 계획

월	일상생활 습관 활동명	활동방법
3	내 자리, 내 물건	새 학기, 새로운 환경에서 내 물건과 내 자리에 친숙해진다.
4	반짝반짝 내 손	신나는 손 씻기 동요를 들으며 손을 씻고, 내 손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5	쪽쪽! 양말을 벗자	내 양말을 스스로 벗어보고 내 자리에 양말을 가지런히 정리해본다.
6	여기가 내 자리야!	양말 정리가 익숙해진 영아들은, 등원 후에 스스로 내 가방까지 사물함에 정리한다.
7	빛이 나는 내 얼굴	스스로 세수를 하며 입에 묻은 음식과 흘린 땀방울을 닦아보고, 얼굴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즐긴다. 세수를 마친 후에는 스스로 로션을 바른다.
8	모두 소중해	놀잇감 또는 모든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고, 항상 제자리로 정리해야 함을 안다.
9	쑹쑹! 바지를 내리자	스스로 바지를 내리고 내 기저귀를 갈아입는다. 바지를 입을 땐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다.
10	지켜요! 식사 약속	식사 전, 후 감사 인사를 하고, 식사를 마친 후 내가 먹은 식사 도구를 스스로 정리한다.
11	구멍에 쑹쑹! 옷을 입자	구멍을 찾아 손과 발을 쑹쑹 넣고 스스로 내 옷을 입어본다.
12	겉옷도 내 자리에	스스로 겉옷을 벗고 내 사물함에 정리한다. 겉옷을 예쁘게 접는 방법을 안다.
1	양치도 척척!	식사 후에 스스로 양치와 세수를 한다. 세면대에서 스스로 물을 사용하며 올바른 화장실 사용법을 안다.
2	휴지로 쓱쓱	콧물이 나올 때 스스로 휴지로 닦고, 내가 흘린 음식을 휴지로 닦아본다.

V. 참고문헌

- 곽미라(2004).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과 경제 개념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 김미경, 박미정, 박지연, 오경숙, 오연주, 장해순 (2021) 영아 보육의 실제
- 손선영(2020). 만 1세 반 영아의 식습관 지도 사례연구, 충신대학교 일반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귀옥(2016). 생후 3년간 영아의 일상생활 습관 형성에 관한 연구. 아동 부모학회지 제2권 1호 5-33
- 이원영, 방인옥, 박찬옥(1992). 유치원의 기본생활 교육에 관한 연구. 유아 교육 연구, 12, 71-89.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 태도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영미, 김미진(2021). 영아 또래의 상호작용과 교사 지원의 양상, 유아교육학론집 제25권 제5호 167-192
- 황정미(2011) 어린이집 영아의 일상생활 연구, 신라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경기도북부육아지원센터(2022). 2022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사례집 일상생활을 놀이로 지도하기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최우수상>
시립파밀리에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국공립
지 역	파주시
프로그램명	뽀득 뽀득 씻으니 몸도 마음도 뿌듯뿌듯!
총 괄	김현아
기획 및 운영	이지민, 오민경, 김현진

1.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 현대사회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이른 시기부터 영유아가 기관에 다니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생활습관이 형성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가정에서보다는 영유아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유아를 둘러싼 환경 및 사회와 마찬가지로 또래집단은 영유아가 문화화되고 학습하는데 중요한 지원기제가 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볼 때 영유아가 기관에서 또래와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일상생활을 놀이로 지도하는 활동을 통해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영유아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성장하기 위한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에서 ‘놀이를 통해’라는 표현을 제시하여 영유아기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의 다섯 가지 목표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중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을 목적으로 0-2세 보육과정 목표 중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를 통해 영아는 놀이를 통해 몸을 마음껏 움직이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귀를 기울여 조절하는 경험을 한다. 또한 영아에게는 일상에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보육과정을 기반으로 영아가 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경험을 하며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
-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의 만0-1세 영아는 씻고, 먹고, 자고 배변하는 등의 일상에 적응하면서 어린이집 생활에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0-1세 영아는 어린이집 생활에 익숙해지고 주변 환경에 친숙해지면서 적극적인 탐색 및 놀이를 시도하게 되는데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영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씻고, 먹고, 자는 등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상생활은 교사와 영아가 애착을 형성하는 긴밀한 시간이자 영아의 상태나 발달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일상생활을 관찰하던 중 영아들이 씻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보였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영아들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걸리는 모습들이 보여 이에 본 어린이집에서는 일상생활을 놀이로 지도하기 위해 청결 부분인 손 씻기, 이 닦기, 몸 닦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씻기의 과정을 단계로 나눠 다양하고 반복적인 놀이를 통해 영아들이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며 스스로 성취감과 자존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과 연계하여 영아가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데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다.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 (이론적 배경)

- 손 씻기는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고,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부분의 감염성 질환은 공기를 통한 호흡기 감염보다는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눈이나 코, 입에 접촉함으로써 감염되는 경우가 더 많다. 질병관리청은 손만 씻어도 장관감염증과 호흡기 감염증 등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손 씻기를 ‘셀프 백신’으로 명명하고 가장 쉽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영아에게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은 음식을 먹기 전·후, 실내·외 놀이 후, 대·소변 이후 등이다. 교사는 영아에게 씻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알려주고, 영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험교육과 반복 교육은 영아가 씻기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므로 가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 영아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기술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태어나면서 양육자가 전적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하기를 원하고 요구받는 것이다. 교사는 영아가 주도하지 않았던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시도해보고 참여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

<개인위생 관리 및 청결관리 지도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1. 영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고려하여 지도계획을 세운다.
3. 영아의 기분이나 상태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지도한다.
4.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기술뿐만 아니라 습관, 지식,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이를 통해 영아의 건강한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손 씻기, 이 닦이, 목욕하기, 낮잠, 기저귀 갈이, 배변훈련, 옷 입기 등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지도해야한다. 기본생활습관 지도는 일상생활에서 영아의 개별적인 욕구와 행동특성을 수시로 관찰하여 개인차를 고려하며 진행해야한다. 놀이중심으로 변화된 보육 현장에서 영아들이 놀이를 통해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겠다.

II.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본 프로그램은 영아들이 학기 초 적응기간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며 하루일과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안정적인 적응과정 중에도 손 씻기, 양치질 등을 거부하는 모습이 수시로 관찰되어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놀이중심 교육으로 영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놀이로 일상생활지도 씻기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계절의 변화로 인해 감염병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시기로 영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놀이 속에서 일상생활과 연계한 기본생활습관을 경험해보고 교사의 놀이 지원과 가정연계를 통해 올바른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즐거움 속에 배움이 있는 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1) 활동기간

활동 기간	2023년 6월 ~2023년 8월
-------	--------------------

2) 활동대상

활동 대상	2021년생(만1세) 10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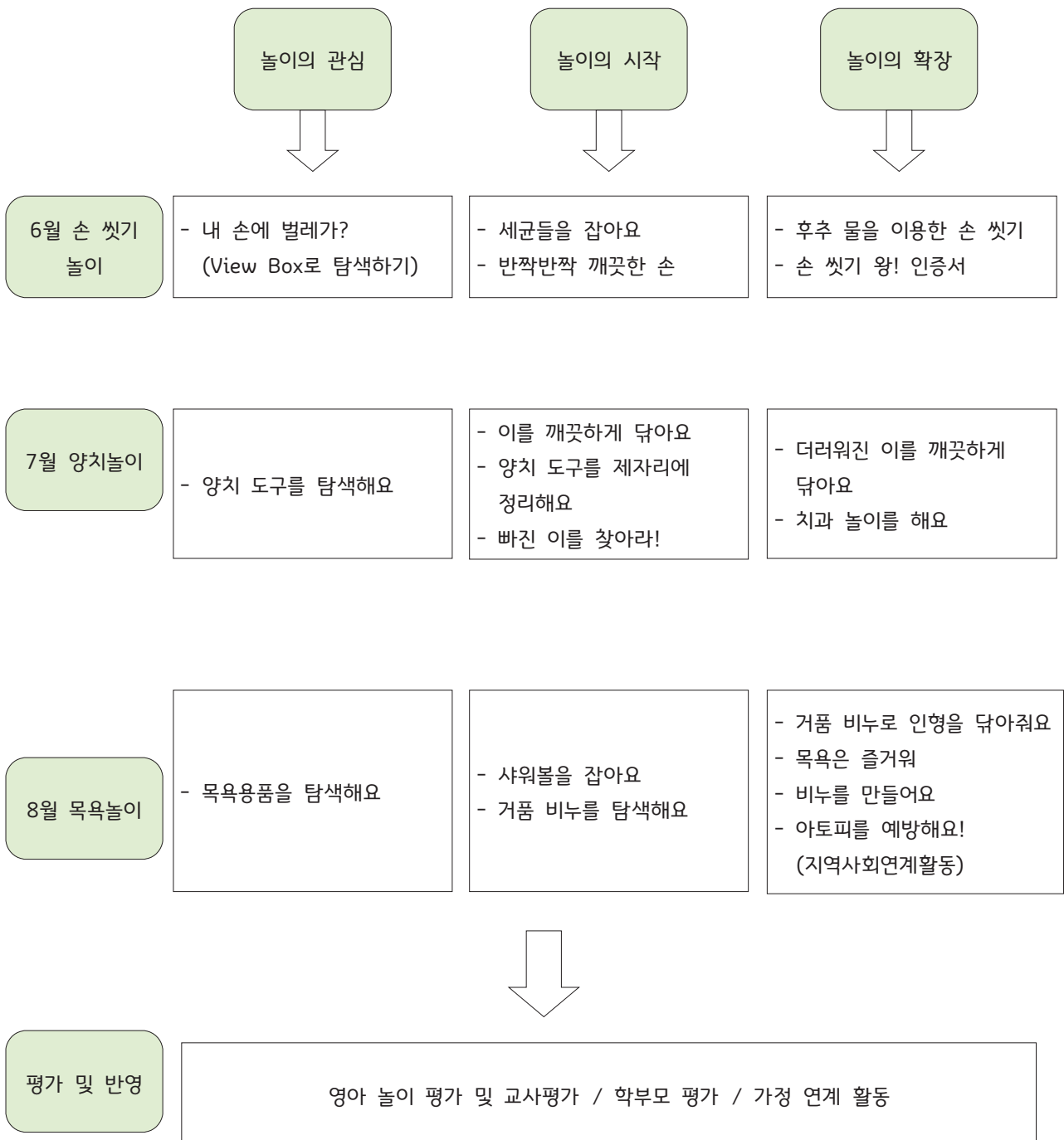
3) 프로그램 연간

기본생활습관 연간계획안을 바탕으로 영아들의 관심과 흥미를 파악하여 월간보육계획안에 반영하여 놀이를 계획하였다

<2023년 만 1세 기본생활 습관 연간계획안>				<2023년 만1세 월간보육계획안>
월	놀이 주제	기본생활 습관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	6월 월간보육계획안
3월	새로운 것이 낯설어요 1	선생님과 웃으며 인사해요	우리 선생님을 살펴봐요	
4월	새로운 것이 낯설어요 2	친구에게 손 흔들며 인사해요	현관에서 친구랑 인사를 해요	
5월	가족 / 느낄 수 있어요 1	놀잇감을 입에 넣지 않아요	놀잇감은 소중한!	
6월	느낄 수 있어요 2	깨끗이 손을 씻어요	View Box를 통한 올바른 손 씻기(지역사회연계)	
7월	놀이할 수 있어요 1	이를 깨끗이 닦아요	참~ 잘했어요! 양치통장	7월 월간보육계획안
8월	놀이할 수 있어요 2	내 몸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천연비누로 목욕을 해요	
9월	나는 할 수 있어요	기저귀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기저귀 공을 굴려 쓰레기통	
10월	움직이는 것이 재미있어요 1	거울을 보고 스스로 로션을 발라요	미끌미끌 로션놀이	
11월	움직이는 것이 재미있어요 2	대 소변 훈련을 해요 화장실을 바르게 사용해요	가정에서 화장실은 어디 있을까요?	
12월	좋아하는 놀이가 있어요 1	배변 의사를 표현해요	응가 그림을 찾아요	
1월	좋아하는 놀이가 있어요 2	콧물이 나오면 휴지로 스스로 닦아요	내가 코를 닦아요	
2월	새로운 것도 좋아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단추와 지퍼를 올려봐요	내 옷을 찾아 단추와 지퍼를 올려봐요	

4) 활동방법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생활 내용범주 중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통해 영아들이 몸을 깨끗이 할 때 기분 좋음을 경험하며 위생과 청결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기르기 위해 일상생활 중 ‘청결’ 부분에서 씻기의 단계를 나눠 진행하였다. 몸을 씻는데 사용하는 일상생활용품을 탐색하며 씻기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경험과 반복되는 놀이를 통해 영아들이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고 확장되는 모습을 관찰하며 가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놀이를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초록색: 영아의 관심 / 파란색: 교사의 지원 / 빨간색: 놀이반영을 위한 영아의 행동 관찰

6월 < 손 씻기 놀이 >

<교사의 관찰> ‘씻기 싫어요! 안 할래’



‘00아, 우리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손을 씻어볼까요?’라고 교사가 의견을 물어보자 화장실까지는 잘 따라 들어오다가 교사가 친구의 손과 얼굴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자 영아는 표정을 찡푸린다. 교사가 “이제는 00이도 친구처럼 깨끗하게 물로 씻어볼까요?”라고 말하며 손에 물을 묻혀주자 **영아가 갑자기 ‘아냐’라고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트리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가거나 수건을 바닥에 던지는 모습이 보인다.**

학기 초 영아들이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에 적응하며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적응 후에도 하루 일과 중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양치하기 등 물을 이용해 씻는 것을 거부하는 영아의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영아는 씻기를 거부하며 울음으로 표현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교사회의를 통해 영아들에게 기본생활인 ‘씻기’로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씻기와 관련한 놀이를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만1세 영아 특성에 맞게 교사의 도움 또한 중요하지만 영아가 스스로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반복 제공해서 시행착오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손 씻기 놀이의 관심> ‘내 손에 벌레가?(View Box를 탐색하기)’



view box를 통해 자신의 손바닥을 살펴보다가 더러워진 부분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 보였다.** 영아들이 놀이를 통해 손이 깨끗해지는 과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퍼백 위에 손바닥을 그려 준 후 지퍼백 안에 손 소독제와 뽕뽕이를 넣어 놀이를 지원해주었다.** 영아들이 손바닥 그림이 그려진 지퍼백에 관심을 보이며 “선생님 손”이라고 말한다. 교사가 “여기에 손바닥이 있네~”라고 이야기하자 영아가 뽕뽕이를 보더니 “벌레!”, “많아~”라고 표현하며 지퍼백 위에 손가락으로 뽕뽕이를 만져본다. 다른 영아도 관심을 보이며 다가와 손으로 탐색해본다. 영아가 지퍼백 위를 영아가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문지르자 뽕뽕이들이 손바닥 그림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살펴보며 반복해서 만져본다.

<손 씻기 놀이의 시작1.> ‘세균들을 잡아요’

		세균벌레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보여 교사가 세균벌레 그림과 손바닥 막대를 교실 바닥에 뿌려놓고 지원해주니 놀이가 시작되었다. 세균벌레에 관심을 보인 영아들이 “어”라고하며 교사에게 세균벌레 그림을 내민다. 교사가 “여기 바닥에 세균벌레들이 많이 있네”라고 말하자 영아들이 “무서~”라고 표현하며 손바닥 막대에 세균벌레를 한 개씩 붙여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 무서워하는 영아는 막대를 벌레 그림 위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보였다. 교사가 “우와~ 00이 손바닥 막대기에는 세균벌레가 많이 붙었네~”라고 말하자 손바닥 막대를 보고 웃으며 영아 스스로 교실에 있는 싱크대 교구에서 손을 닦는 흥내를 낸다.
--	--	--

<손 씻기 놀이의 시작2.> ‘반짝 반짝 깨끗한 손’

		싱크대 교구에서 반복하여 손 씻기를 하는 모습이 보여 깨끗해진 손바닥을 살펴볼 수 있도록 바닥에 커다란 손바닥을 붙여준 후 영아들이 직접 끼적이기 한 세균벌레 그림을 부착해주었다. 영아들이 세균벌레가 붙여진 손바닥을 보면서 “지지~”, “선생님 벌레!”, “많아~”라고 말한다. 교사가 손바닥 그림위에 보드마카로 색칠을 한 후 스펀지로 지우는 모습을 보여주자 영아들도 반복해서 끼적이기를 한 후 스펀지로 닦으면서 깨끗해지는 손바닥 그림을 살펴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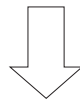
<손 씻기 놀이의 확장> ‘후추 물을 이용한 손 씻기놀이’

		영아들이 세균벌레가 붙은 세균장갑을 싱크대 위에서 손 씻는 흥내를 내는 모습이 보여 후추 물을 이용해 손 씻기 놀이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놀이를 확장해서 지원해주었다. 수조 아래 손바닥 그림을 붙인 후 수조 안에 후추와 세균벌레 그림을 넣어주었다. 영아들이 후추 물에 거품 비누를 묻힌 손가락을 대자 세균벌레그림과 후추가 옆으로 퍼지며 깨끗해진 손바닥 그림이 보이니 신기해하며 반복해서 후추 물을 탐색하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물에 대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놀이 시 눈을 비비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 손에 묻은 후추가루와 비눗물이 눈에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해 얘기하니 주의하며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다.
--	--	--

<손 씻기 놀이의 마무리> ‘손 씻기 왕! 인증서’(지역사회연계활동)



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파주시 급식지원센터에서 영아들에게 “손 씻기 왕! 인증서” 카드를 지원해주었다. 영아들과 손 씻기 그림책을 통해 다시 한 번 올바른 손 씻는 방법을 살펴본 후 “손 씻기 왕! 인증서” 카드의 그림에 영아들이 자유롭게 끼적이기를 한 후 인증서 카드를 목에 걸어주었다. 인증서를 받은 영아가 교사에게 보여주며 “이거”, “봐~”라고 말하며 뿌듯해 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하원 후 부모를 만나자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평가 및 반영

씻기를 거부하던 영아들이 view box를 이용해 자신의 더러워진 손바닥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손 씻기 놀이를 통해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도 관심을 보였다. 또한, 더러워진 손이 깨끗한 손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놀이를 경험하며 스스로 손 닦기를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원 시 학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도 영아들이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부모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이끌며 씻어야 한다고 표현하는 모습이 보여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를 통해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이 잘 잡히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다.

7월 <양치놀이>

<교사의 관찰> ‘칫솔은 어떻게 하는 거지?’



양치시간에 교사가 칫솔 소독기에서 칫솔과 양치 컵을 꺼내주자 영아가 바로 입에 넣는 모습이 보였다. 교사가 “00아, 칫솔을 입에 넣고 걸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 우리 화장실에서 양치해볼까?”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인다. 화장실에서 교사가 치약을 짜주기 전에 영아가 칫솔을 입에 물고 있거나, 바닥에 또는 자신의 발에 문지르는 모습이 보였다.

영아가 칫솔에 관심을 보이지만 아직은 스스로 올바르게 양치하는 방법이 서툴러 입에 물고 있거나 다른 부위를 문지르는 모습이 보여 기본생활습관 중 이 닦기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도록 놀이를 선정하였다.

영아는 출생 후부터 건강한 치아를 갖기 위해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작년에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혹시 모를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양치를 거부하였다.

점심 식사 후 양치를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사들은 영아들의 치아 건강이 걱정되었다.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가 완화되었기에 교사회의 후 양치의 중요성을 가정에 알리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원내 양치 지도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영아들이 자연스럽게 양치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양치습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양치놀이의 관심> ‘양치 도구를 탐색해요’



영아가 ‘치카치카 푸카푸카’ 그림책에 관심을 보이며 교사에게 건넨다. 교사가 그림책을 보며 “00아, 그림책에 칫솔이 있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영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왜?”라고 묻는다. 그림책 내용을 들은 후 한 영아가 교구장에 있던 칫솔 놀잇감을 꺼내어 교사에게 보여준다. 교사가 “여기도 칫솔이 있네? 그림책이랑 똑같다~”라고 말하자 영아가 칫솔 놀잇감을 손으로 만지다가 교실 내 놀잇감이나 바닥에 문지르는 모습이 보였다. 영아가 칫솔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 보여 칫솔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놀이를 지원해줘야겠다.

<양치놀이의 시작 1> ‘이를 깨끗하게 닦아요’



영아가 그림책을 통해 칫솔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 보여 그림책의 한 장면을 벽면에 붙여주고, 칫솔 놀잇감을 지원해주었다. 영아들이 벽면에 붙여진 치아그림에 관심을 갖고 “선생님”, “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을 벌려 이를 보여주었다. 한 영아가 칫솔로 이 그림을 문지르니 “나도”라고 말하며 칫솔 놀잇감을 이용해 이 그림에 문지르며 양치하는 흉내를 내는 모습이 보였다. 칫솔 놀잇감이 부족해 영아들이 서로 하려고 다투는 모습이 보여 교사가 칫솔 놀잇감을 추가해서 지원해주자 영아들이 다투지 않고 양치 놀이를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인형에게 양치해주며 놀이한 후 칫솔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밟거나, 다른 놀이를 하는 모습이 보여 양치 후에는 제자리에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놀이를 지원해줘야겠다.

<양치놀이의 시작 2> ‘양치 도구를 제자리에 정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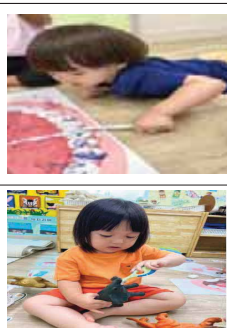
영아들이 충분히 양치 도구를 탐색하며 놀이 후 바닥에 그대로 내려 놓는 모습이 보여 제자리에 정리해볼 수 있도록 놀이를 지원해주었다. 교실 벽면을 이용해서 영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리 주머니를 만들어 붙이고, 같은 색깔의 칫솔, 치약, 양치 컵을 찾아서 제자리에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격려했다. 영아들이 놀잇감에 관심을 보이면서 “여기?”라고 표현하며 정리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양치 놀이를 한 후 반복해서 정리하는 모습이 보여 칭찬해주었다. 한 영아가 칫솔 놀잇감에 치약 짜는 흉내를 내며 양치를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양치를 시도하다가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어 올바르게 양치해볼 수 있도록 놀이를 지원해줘야겠다.

<양치놀이의 시작 3> ‘빠진 이를 찾아라!’



영아가 칫솔 놀잇감을 이용해 양치놀이를 시도하다가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이 보여 올바르게 양치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커다란 치아 그림 자료를 지원해주었다. 영아들과 함께 이 모양을 찾아 붙였다 떼었다 해보며 탐색 후 칫솔 놀잇감을 이용해 올바르게 양치하는 방법을 알려주자 영아들이 “아~”, “이~”, “에~”하고 교사를 따라 소리 내면서 골고루 양치를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양치 후에는 교사에게 “짜잔”하고 자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양치놀이의 확장> ‘더러워진 이를 깨끗하게 닦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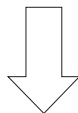


놀이를 확장하여 칫솔에 관심이 많아진 영아들에게 실물 칫솔을 이용해서 양치놀이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바닥에 커다란 입 모양 그림 자료를 붙여서 더러워진 치아 그림을 지원해주었다. 영아들이 “어~”, “지지~”라고 표현하며 칫솔로 이 그림을 문지르며 양치하는 모습이 보였다. 양치 후 다시 깨끗해진 이 그림을 탐색하던 영아가 동물 모형을 가져와서 칫솔로 문지르며 “고릴라 치카치카~”라고 하며 동물의 이빨도 닦아주는 흥내를 내는 모습이 보였다.

<양치놀이의 마무리> ‘치과 놀이를 해요’



동물인형을 양치하는 흥내놀이를 반영하여 친구들과 함께 치과 놀이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처음에는 아기 인형을 가져와서 인형의 이를 닦아주다가 돈보기로 벌레가 있는지 입안도 살펴보면서 의사 흥내를 내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다 한 영아가 책상 위에 누워 입을 벌리자 칫솔을 들고 와서 친구의 입안을 칫솔로 문지르는 흥내를 내거나, 돈보기로 살펴보면서 치과 놀이를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평가 및 반영

양치 시간에 영아들이 칫솔을 입에 물고 빨거나, 바닥에 문지르는 등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여 놀이 시간에 영아들과 어떻게 하면 칫솔을 이용해 올바른 양치를 경험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그러다가 한 영아가 칫솔에 관심을 보여서 놀이에 반영하여 영아들이 양치도구를 충분히 탐색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양치놀이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놀이를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놀이 시 영아들이 양치도구의 이름에 대해 알아보고, 치아 그림 자료를 이용해 칫솔로 양치를 시도하며 인형에서 친구로 놀이가 확장되면서 즐겁게 양치놀이를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복된 놀이를 통해 양치시간에도 영아들이 입에 물지 않고 올바르게 양치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8월 <목욕놀이>

<교사의 관찰> ‘우와, 물이다!’



교사가 “00아, 우리 물로 세수해볼까?”라고 물어보자 영아가 웃으며 “물~”, “차가워!”라고 표현하며 물에 관심을 보이고 장난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물을 이용한 놀이 시 바닥에 떨어진 물을 보더니 “물!”이라고 말하면서 얼굴에 비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아들이 여름 물놀이를 통해 물에 관심이 많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영아들이 물과 친해지면서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며 몸과 얼굴에 물이 묻어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 보였으나, 일상생활에서 세수할 때는 얼굴에 물이 닿는 걸 거부하는 모습이 보여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아들이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교사회의를 통해 영아들과 물을 이용한 놀이로 내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며 땀이 났을 때는 목욕을 해야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놀이를 계획하여 진행해 봐야겠다.

<목욕놀이의 관심> ‘목욕 용품을 탐색해요’



목욕 놀이를 경험하기 전 필요한 용품들에 대해 영아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도록 목욕 시 필요한 용품 사진과 목욕 놀이 용품들을 준비해주었다. 영아들이 처음에는 사진에 관심을 보이며 교사에게 “뭐야?”라고 물어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목욕용품을 손으로 만지면서 똑같은 용품의 사진을 찾아 “똑같아!”라고 표현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샤워볼을 이용해서 몸에 비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목욕놀이의 시작 1> ‘샤워 볼을 잡아요’



영아들이 샤워 볼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보여 신체놀이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천장에 다양한 형태의 샤워 볼을 매달아주자 영아가 “우와~”, “뭐야?”라고 표현하며 손으로 잡아 당겨보기도 하고, 샤워 볼을 만지작거리면서 “따가워~”라고 표현하는 모습도 보였다. 교사가 “00이는 따가워? 선생님은 까칠까칠한 느낌이 나는데”라고 말하자 영아가 웃으며 “까칠!”이라고 말하며 반복해서 샤워볼 촉감을 탐색해보기도 하고, 잡아당기며 신체를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목욕놀이의 시작 2> ‘거품비누를 탐색해요’



목욕용품을 탐색하던 중 한 영아가 거품비누 놀잇감에 관심을 보이며 “선생님 거품~”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보여서 바깥 놀이로 연계하여 영아들이 안전하고 재밌게 비누 거품을 탐색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영아들이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자 “우와~”, “거품!”, “많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팔에 문지르다가 얼굴을 만지려는 모습이 보여 눈에 들어가면 따가울 수 있다고 알려주니 영아들이 자신의 신체부위 중 팔과 다리에만 거품을 문히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영아들이 신체부위에 거품을 문히며 닦는 놀이를 재밌어하는 모습이 보여 인형을 이용해 목욕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겠다.

<목욕놀이의 확장 1> ‘거품 비누로 인형을 닦아줘요’



영아가 거품 비누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팔과 다리를 닦으면서 거품을 이용한 목욕놀이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 보였다.

영아들의 거품비누를 이용한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아기인형과 거품비누를 지원해주었다.

한 영아가 아기인형을 보며 “더러워~”라고 말하며 거품 비누를 손에 문힌 후 인형의 얼굴을 문질러주는 모습이 보였다.

교사가 “00이가 거품으로 아기 얼굴을 닦아주는구나~”라고 말하자 영아는 웃으며 “문질문질”하고 소리를 낸다. 또한 다른 영아도 놀이에 관심을 갖고 아기인형을 거품 비누가 담긴 대야에 푹 담갔다 빼며 교사에게 보여준다. 교사가 “00아, 아기 인형에 거품이 많이 묻었으니 선생님하고 물로 깨끗하게 씻겨줄까?”라고 물어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인형을 건네준다. 거품이 사라지자 “우와 없어!”라고 말하며 물이 묻은 인형을 두 손으로 꼭 짜는 모습이 보였다.

<목욕놀이의 확장2> ‘목욕은 즐거워’



묻어있는 거품을 물로 닦은 후 깨끗해진 아기인형을 탐색하며 목욕 놀이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 보여 친구들과 목욕놀이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교실에 목욕탕을 구성해주었다. 영아들이 파란비닐에 관심을 보이면서 비닐이 물로 변신해 물을 뿌리는 흉내도 내보고, 의자에 앉아 친구와 서로 등을 밀어주는 흉내를 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한 바깥놀이와 연계하여 벽면에 부착해놓은 목욕하는 친구의 몸 그림에 실제로 물을 뿌려 문지르면서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며 목욕하는 흉내를 내는 모습이 보였다.

<목욕놀이의 확장3> ‘비누를 만들어요’

		목욕놀이 후에도 영아들이 거품비누에 관심을 보이며 “비누”라고 말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직접 비누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비누 키트를 지원해주었다. 영아들과 비누에 들어가는 재료를 손으로 탐색한 후 내가 원하는 색깔의 비누가루를 골라서 손으로 조물조물 하며 다양한 모양도 만들어보고, 모양 틀에 넣어 비누를 만들어보기도 하였다. 완성된 비누를 이용하여 손 씻기를 하면서 거품이 생기는 과정을 관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영아들이 직접 만든 비누를 가정으로 보내서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비누를 이용한 목욕놀이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겠다.
---	---	---

<목욕놀이의 마무리> ‘아토피를 예방해요!’(지역사회연계활동)

		파주시보건소에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로 지정된 우리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간단한 인형극과 놀이를 진행해주셨다. 아토피를 예방하기 위한 목욕의 중요성에 대해 인형극을 통해 알아본 후, 그림자놀이와 관련 게임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 영아들이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 목욕용품 그림을 찾아보기도 하고, 목욕을 한 후에는 꼭! 보습크림을 발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해당 그림을 찾아 공을 넣어주는 모습이 보였다.
--	--	--



평가 및 반영	목욕놀이를 통해 영아들이 관심을 가지고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아들이 목욕용품을 탐색하며 실제 비누도 만들어보고, 비누를 이용한 거품 놀이 등 놀이가 점차 확장되어 목욕놀이를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정에서도 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연계놀이를 진행하였더니, 하원 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놀이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집에 있는 목욕용품을 탐색하고 목욕을 싫어하는 아이도 즐겁게 목욕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이야기해주셨다.
----------------	---

III. 활동평가

1. 영아 놀이 평가 및 교사 평가

▶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생활 습관에 대한 영아 놀이 평가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전을 진행하기 전에는 영아들이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거부하는 등의 다양한 반응이 보였으나, 영아들의 관심도를 관찰하면서 단계별로 손 씻기-> 양치하기->목욕하기로 나누어 씻기 놀이를 진행하였다. 놀이를 진행하면서 영아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교사의 권유가 아닌 영아들이 직접 용품들을 탐색하며 놀이가 확장되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반복되는 씻기 놀이를 통해 영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씻기에 즐거움을 느끼며 스스로 시도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생활 습관에 대한 교사의 역할 및 평가

- 영아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생활습관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알맞게 ‘일상생활 지원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동료 교사들과 논의하며 영아들의 관심을 파악하고, 어떻게 놀이로 반영할지 고민을 통해 영아들이 씻기의 단계를 경험하면서 청결에 관심을 갖고 놀이를 통해 씻기의 즐거움을 배워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그 결과 영아들이 거부감을 갖기 않고 긍정적으로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모습이 보여 놀이를 진행하면서 뿌듯함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

- ‘어떻게 하면 영아들이 기본생활습관형성과정에 대해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서 손 씻기, 양치, 세수 및 목욕하기에 대한 놀이를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계획해봄으로써 어려움 없이 놀이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학기 초에는 씻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영아도 있었지만 놀이를 통해 물과 친해지는 경험을 자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니, 물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씻기에도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씻기 놀이를 할 때 거품과 물을 이용한 놀이를 반복하면서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어린이집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씻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가정연계활동을 병행하였더니, 학부모님들도 놀이를 통해 다가갔을 때 일상생활 지도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놀이를 진행하면서 영아들 스스로 놀이를 발견하고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일상생활 놀이에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 학부모 평가 및 가정과 연계

①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생활습관지도에 대한 학부모 평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라 건강상태에 늘 고민이 많았는데 어린이집에서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전을 통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너무 좋았다.

가정에서도 청결하게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신경 쓰지만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기본생활습관 중 다소 지도가 어려운 ‘청결’부분을 다양한 놀이 단계를 거치며 반복해서 경험해준 덕분에 하원 후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활동 전만 해도 아이들이 집에 오면 씻지 않고 바로 놀이를 하거나 음식을 먹으려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는 씻기의 중요성을 인지했는지 바로 화장실에 가서 부모님 도움 없이 씻기를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선생님들이 가정으로 보내주신 가정연계 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조금 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 좋았다.

②가정연계활동

놀이활동 내용	손 씻기 활동	양치 활동	목욕 활동
가정통신문			
가정연계 활동 후기	 하심이가집에서 활동했어요~! 누나랑 손 그래서 후후 뿌려보고 물도 뿌리고 엄뽕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손까지 뽕뽕뽕하게 닦았답니다^^	 양치 후엔 코스로 스티커 붙이기! 말심히 치카 치카했게요~^^	 아이와 직접 어린이집에서 만들어서인지 더 좋아하고, 소름이 끼네요~^^ 침매워서 욕실로 날려가 손도 깨끗하게 씻고, 콧물대며 냄새까지 맡고 좋아하는 마미의 모습에 웃음이 절로나옵니다~!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기대효과

▶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역할 수행

보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일상생활 지도를 놀이로 진행해보았다. 놀이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영유아들이 일상생활에 점차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가정과 함께 소통하고 활동을 연계하니 지속적으로 놀이가 이루어지면서 바른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원에서의 놀이가 가정과의 연계 놀이로 진행될 때 학부모님들의 평가와 만족도가 높았으며, 일상생활에 대한 지도가 원활히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프로그램 계획 시 가정과의 연계 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확장하면 좋을 것 같다.

2. 2024년 연간프로그램 계획

월	놀이 주제	기본생활 습관	가정과 연계 활동
3월	새로운 것이 낯설어요 1	선생님께 인사해요	우리 선생님을 살펴봐요
4월	새로운 것이 낯설어요 2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요	내가 버릴래요!
5월	탐색하며 느낄 수 있어요 1	식사 시 자리에 앉아요	스스로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
6월	탐색하며 느낄 수 있어요 2	손을 깨끗이 씻어요 (지역사회연계)	병균이 사라졌어요.
7월	놀이할 수 있어요 1	이를 깨끗이 닦아요	참~ 잘했어요! (양치 통장)
8월	놀이할 수 있어요 2	목욕은 즐거워	천연비누를 만들어요
9월	나는 할 수 있어요	거울을 보고 입에 묻은 음식을 닦아요	음식을 먹은 후 거울을 살펴요
10월	움직이며 놀이해요	거울을 보고 스스로 로션을 발라요	미끌미끌 로션 놀이
11월	움직이며 놀이해요 2	대 소변 훈련을 해요 화장실을 바르게 사용해요	변기를 꾸며요
12월	내가 좋아하는 놀이는요 1	배변 의사를 표현해요	동화 '응가야 안녕'
1월	내가 좋아하는 놀이는요 2	양말을 스스로 신어요	양말의 짝을 찾아요
2월	새로운 것도 좋아요	기침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해요	마스크를 꾸며요

V.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20).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김희진(2016).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일상생활 지도, 서울:파란마음
 질병관리본부.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놀면서 자란다(영아 0~2세 보육과정)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최우수상>
시립풍경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국공립
지 역	하남시
프로그램명	어서와~ 이런 등원은 처음이지?
총 괄	이경숙
기획 및 운영	함보라, 이다영, 이승희

I.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 일상생활은 어느 누구나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이며, 그 시대 그 사회의 환경에 적응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이경미,2008)이며 반복되는 것이다. ‘일상’이 ‘매일 되풀이 되는 삶’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것이기에 그만큼 중요할 것이다. 이는 영유아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와 함께 하는 성인들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루일과를 보내며 음식을 즐겁게 먹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발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의 일상생활 지원도 ‘등원’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만2세 때는 어린이집에 가는 걸 좋아했는데...유아반에 가더니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해요” 라는 말을 만3세를 담당해 본 교사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등원하기 싫다는 유아와 부모님의 실랑이가 있고, 교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현관에서 유아를 맞이할 때가 종종 있다. 아침부터 ‘굳모닝’이 아닌, 얼굴 찡그리고 우울한 등원을 한 유아들의 하루 일과는 밝은 목소리로 미소 짓고 웃는 긍정적인 정서(이경미,2008)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는 행복감으로 교사에게 웃으며 뛰어오는 ‘즐거운 등원’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 개정 누리과정에서 유아는 놀이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세상과 소통하면서 관심을 갖고 탐색한다고 하였다.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놀이하는 유아들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쳐나간다. 그리고 놀이를 통해 재미와 기쁨을 느끼고 도움을 주고 받으며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세상을 돌아본다. 그렇다면 ‘등원’의 ‘놀이화’를 통해 유아들이 재미와 기쁨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어린이집 유아의 하루 일과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으로 구성된다. 본 어린이집은 ‘등원’을 ‘일상생활’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놀이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아침 등원부터 유아들이 신나게 뛰어들며 놀이가 바로 시작되는 등원이라면 유아들은 어린이집을 좋은 기분으로 신나게 올 것이고, 함께 오시는 부모님은 우리 아이의 즐겁고 행복한 어린이집 하루를 기대할 것이다.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 (이론적 배경)

- 2019년 개정누리과정이 어린이집 현장에 적용되면서 유아들의 놀이는 여러 공간을 자유롭게 다니며 놀이하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아들은 교실 문턱을 넘어 복도, 화단, 현관, 동생 교실 등 그동안 놀이공간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곳들에서도 놀이가 지속되고 놀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서화니,2022) 이는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실천이며 ‘놀이하며 배우는 유능한 유아’의 자유롭고, 주도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아 주도적인 놀이는 본 어린이집에서는 혼합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아반에서 더욱 더 잘 보여지고 있다

- 본 어린이집은 만3세 단독반, 만4.5세 혼합반을 운영하고 있다. 물리적 환경이 유아반 두 반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2019년부터 개정누리과정을 만4.5세 혼합반에 적용하여, 만5세는 만4세들의 새로운 기술 습득을 돕고, 도전적으로 구성 놀이를 하도록 친사회적으로 알려주는 유능한 또래 역할을 하고, 만4세는 교사에게 받는 지원과 모델링보다 실재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호작용을 경험하여 지금은 안정적으로 혼합반의 놀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Vygotsky의 scaffolding의 이론을 혼합 연령 놀이 속에 적용 시킨 예이며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보육과정 실현에 있어 연령 혼합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교사들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하루일과에 대한 연구」(이경미,2009)에서 보면 1.유아의 상호작용 대상: 등원 시 혼자(42.2%), 실외자유놀이 시 또래와(49.9%), 2.하루일과 중 유아의 정서: 등원 시 긍정적 정서(5.6%), 실외자유놀이 시 긍정적 정서(17.1%)로 혼자 등원하면서 교실로 들어오는 유아들은 긍정적인 정서가 낮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실외자유놀이(바깥놀이)는 긍정적인 정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어린이집은 아침 등원을 즐겁게 하는 [어서와~ 이런 등원은 처음이지?]라는 여러 등원놀이를 유아들과 함께 계획,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등원이 늦었던 유아들은 등원 시간도 빨라지고, 부모와 울면서 헤어지던 유아들도 즐겁고 신나는 ‘굳모닝’ 등원 놀이가 되었다. 그 진행은 다음과 같다. 1. 선생님이 놀이터에서 기다릴게 2.자, 가보자 앞마당으로 3. 현관 말고 유희실로 들어와 4. 집에 있어~ 형아가 같게 5. Let's go adventure. 또한 가정과 협력하여 등원을 돕는 지원을 진행하였고,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여름철 시원하고 신나는 등원 놀이를 진행 할 수 있었다.

II.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 1) 활동기간: 2023년 3월1일~2023년 9월8일
- 2) 활동대상: 만3세~만5세 유아반
- 3) 프로그램 연간계획안

월	활동 주제	활동 내용	가정연계 및 지역사회 활동
3월	즐거움 마음으로 늦지 않게 등원하기	■ 선생님이 놀이터에서 기다릴게 -놀이터로 등원하기	□ 엄마, 아빠가 놀이 선생님? □ 단지 내 바닥분수 놀이
4월~7월			
5월~7월	어린이집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등원하기	■ 자, 가보자 앞마당으로 -어린이집 앞마당으로 등원하기	□ 야외용 분필로 바닥 그림그리기
6월~8월		■ 현관 말고 유희실로 들어와 -유희실로 등원하기	□ 유희실 탐험 세상으로 꾸미기 □ 흙놀이터 만들기
7월	형, 누나와 등원하기	■ 집에 있어 형들이 같게 -집으로 데리러 가기	□ 무전기로 얘기하기
8월	온 마을과 함께 하는 즐거움 등원하기	■ Let's go adventure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지	□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다담채)로 등원하기
9월			
10월	계절을 느끼는 등원하기	■ 선생님과 형아들이 놀이터에서 기다릴게 -가을 놀이터로 등원하기	□ 부모님들과 놀이터 청소하며 꾸미기
11월			
12월	형,누나와 겨울 놀이하며 등원하기	■ 앞마당에서 겨울 놀이 -눈썰매 타며 등원하기	□ 눈썰매, 눈오리, 눈사람 만들기
24.1,2월			

4) 활동방법



- [등원 하기의 어려움 발견 & 지원 방법 고민]: 유아들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놀이를 한다. 유아반이 되면 그렇게 활동도 커지고, 스스로 할 것도 많아진다. 그에 따라 심신이 피곤해지기도 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도 많아져 영아기의 어린이집 생활과는 다른 정서를 보이고, 아침에는 부모님들과 헤어지기 싫어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중복되어 어린이집 등원을 어려워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에 보편적으로 늘 해왔던 등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등원하기의 놀이化’를 계획하여 어린이집 현관으로 등원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등원 장소를 달리해보는 [어서와~ 이런 등원은 처음이지]의 [등원 놀이]를 유아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1. 선생님이 놀이터에서 기다릴게 - 놀이터로 등원하기		활동기간	2023.4월~7월
		활동시간	9:00~10:00
놀이 시작		-즐거운 등원하기를 고민하는 교사들 부모님과 헤어지기 힘들어 하는 유아들, 늦어진 등원으로 하루일과가 어렵게 시작하는 유아들의 즐거운 등원을 고민하고 논의하던 중 “아이들의 등원 장소를 왜 꼭 어린이집으로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되면?”이란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하루 일과 중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바깥놀이를 생각하여 [놀이터로 등원하기]를 계획하였다.	
놀이 실행 내용		-어린이집 앞 놀이터로 등원하기 유아들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사과 놀이터’로 등원하기를 정하고, 그 시간 전에 등원한 아이들과 놀이터로 가서 등원하는 유아들을 맞이하였다. 유아들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놀이터로 가방을 메고 오면서 함께 온 엄마와 쉽게 헤어지며 즐거운 마음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다가왔다. 부모님들도 웃으며 인사하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출근하였다. 그리고 놀이터 옆동에 사는 유아들은 친구들의 놀이 소리를 듣고 스스로 준비해서 놀이터로 나오기도 했다.	
놀이 지원		-출석판 만들기 “선생님, 누가 먼저 왔어요?” “선생님, 00이 왔어요?”하며 등원한 순서와 등원한 친구들을 궁금해 하여 화이트 보드에 오는 순서대로 이름을 적게 하였다. 그러자 “내일은 더 일찍 와서 위에 적어야지” 하며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시간 내 모두 등원하여 놀이터에서 놀게 되었다. -들어오는 문 만들기 한 유아가 “선생님, 여기는 어디로 들어와요? 문은 없어요?” 하며 교실의 문처럼 들어오는 문을 제안하여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옷행거’에 [들어오는 문]을 유아들과 함께 꾸며 설치하였다. 다음날 부터 유아들이 그곳을 통해 놀이터로 들어오고 놀이 후 어린이집으로 갈 때도 그곳으로 나왔다. 아이들은 문을 통과하며 놀이의 시작과 마침을 인식하였다.	

놀이 확장



-침이 필요해

한참을 놀고 나서 쉬고 싶어 하는 유아들의 모습을 보고 놀이터 한쪽에 돛자리를 깔아주고, 누워서 쉴 수 있도록 하였다. 돛자리 위에서 쉬는 유아. 누워서 하늘을 보는 유아, 다른 놀잇감을 가지고 와서 놀이하는 유아. 책을 보는 유아들이 생겨났다. 또한 비 온 다음날 젖은 미끄럼틀을 닦을 준비를 해오기도 하고, 우산을 가져와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하며 또래들의 놀이와 침을 돕는 유아들도 있었다.



가정 연계



-엄마, 아빠가 놀이터 선생님?

아침 시간이 여유가 있는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재미나게 노는 것을 보시고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주며, 나무 열매도 같이 따주고, 시소도 밀어주면서 놀이 선생님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한 아버지는 놀이터 바로 옆 축구장으로 아이들을 데려 가서 축구 경기를 같이 해주었다. 축구 경기에 맞는 복장까지 준비 하여서 유아들은 축구선수가 된 듯 열심히 공차기 놀이를 하였다.

지역 사회 협력



-바닥 분수 놀이

놀이터로 등원하기가 6~7월까지 진행되며 날이 점점 더워지자, 아이들은 시원한 놀이를 찾기 시작했다. 놀이터 옆 바닥에 설치된 바닥 분수는 코로나 이후 한번도 작동된 적이 없는데, 바닥분수를 본 유아들은 바닥 분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바닥분수 작동을 부탁하고, 그전에 수질 검사를 마쳤다. 7월부터는 놀이터 옆 바닥분수가 9시40분부터 작동되어 시원한 물놀이를 놀이터 놀이를 마무리하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교사의 활동 평가

-[놀이터로 등원하기]를 하면서 유아들의 등원 시간은 평균 20~30분 가량 앞당겨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침에 놀이터로 바로 와서 신나게 노는 것은 유아들 뿐 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선생님, 놀이터로 등원하는 거 너무 신박한 아이디어예요.” 하며 함박 웃음을 짓는 어머니도 있었다. 또 아침부터 교사들이 아이들과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시겠냐며 커피를 사오며 감사함을 표하기도 하였다.

오전에 바깥에서 충분한 신체 놀이로 에너지를 발산한 유아들은 교실에서의 놀이 집중도는 증가하고, 다툼은 감소되며, 움직임이 많아져 식사량도 늘었다. 또한 낮잠, 밤잠을 숙면을 할 수 있어 키가 부족 커졌다는 부모님들의 의견도 있었다. 날이 더워져 여름에는 잠시 중단 했지만 날이 선선해지는 가을에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2. 자, 가보자 앞마당으로 - 어린이집 앞마당으로 등원하기

활동기간	2023.5월~7월
활동시간	9:00~10:00

놀이 시작



-킥보드를 타고 등원하는 유아

‘놀이터로 등원하기’시 킥보드, 자전거를 타고 등원하는 유아들이 놀이터에서 놀이하기보다 킥보드, 자전거를 더 타고 싶어했다. 그렇게 등원하는 장소가 놀이터에서 어린이집 앞마당으로 확장되어 앞마당으로 등원하는 놀이가 시작되었다. 유아들과 만든 들어오는 행거 문은 다시 앞마당에 설치되었다.

놀이 실행 내용



-같이 타고 바꿔 타고

자전거, 킥보드를 타고 등원한 유아들은 자신의 것을 타고 놀이하다, 친구와 형들의 탈 것을 서로 바꿔 타며 놀이하였다. “형, 자전거 타도 돼?” “응, 내가 뒤에서 잡아 줄게” “고마워”. 앞마당으로 등원하는 날이 반복되면서 친구와 동생들에게 빌려주기 위해 집에서 탈 것을 가지고 등원하는 유아들도 생겼다. 어린이집에 있는 코레카 자동차를 앞마당에서 타고 싶어해, 유희실에서 타던 자동차가 앞마당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린이집 앞마당은 이렇게 즐거운 소란이 이어졌다.

놀이 지원 및 확장



-운동과 놀이를 함께 해요

유희실 놀이감인 코레카 자동차가 앞마당으로 나오자 여러 신체활동 놀이가 아침 등원 시간에 진행되었다. 줄넘기를 가져와 놀이하는 유아, 탕탱공으로 차고 던지고 놀이하는 유아, 줄넘기로 교사와 기차놀이를 하고, 날이 더워지자 물총을 가져와서 물총 놀이를 하기도 하고, 분무기로 화초에 물을 주기도 하며 여러 놀이들이 앞마당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줄넘기 놀이는 매일 매일 반복되며 줄 밟기, 기차놀이, 혼자 줄넘기, 여럿이 꼬마야 꼬마야 하기 등 혼자, 둘이서, 여럿이 놀이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가정 연계



-바닥 그림 그리기

아이들이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자전거 타고, 줄넘기 하며 자유롭게 놀이하는 것을 본 어떤 어머니가 집에 있는 워셔블 야외용 분필을 색깔별로 보내셨다.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걸로 집 앞 바닥에 그림 그리고 놀았는데요..” 보내주신 분필은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바닥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료가 되어 아이들은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그림을 크고, 작게 그리게 되었다. 며칠 후 비가 와서 바닥 그림이 다 지워지자 “어, 내가 그린 그림이 없어졌어요, 다시 그려야 되겠어요” 하며 물로 지워지는 과정도 알게 되었다.

신체가 발달한다는 것, 즉 영유아가 신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그로 인해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조복희, 2017)는 것처럼 [앞마당으로 등원하기]는 유아들의 행동반경을 넓게 하여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경험하는 등원 시간이 되었다.

‘유아들의 동선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아무 놀잇감도 없는 앞마당에서 유아들이 즐겁게 놀이할 수 있을까?’ 등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어린이집이 위치한 단지는 지상으로 차가 다니지 않아 앞마당 놀이하기에 위험 요소가 적었고, 유아들은 타고 왔던 킥보드, 자전거, 어린이집의 자동차를 넓은 앞마당에서 타며 즐거운 웃음을 만들었다. 그리고 주변의 것들을 놀잇감 삼아 놀이터에서 보다 더욱 다양하고 즐겁게 놀이하는 모습이 보였다. 부모님들 또한,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에서 안 나오려 해서 매일 늦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제일 먼저 가야한다고 서두르더라구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앞마당, 혹은 놀이터 등원을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전하였다. 바깥에서, 형님, 동생들과 다양한 놀이를 하는 것이 유아들에게는 특별한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현관 말고 유희실로 들어와 - 유희실로 등원하기

활동기간 2023.6월~8월

활동시간 9:00~10:00



-왜 현관으로만 들어와야 해?

교사들은 유아들의 등원 동선이 외부에서 점점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원심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지원하였다. 놀이터, 어린이집 앞마당,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외부 환경인 어린이집을 둘러싸고 있는 우드데크를 생각해보았다. 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외부를 우드데크가 둘러싸고 있고, 우드데크에서 어린이집 유희실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큰 통창문이 있다.

앞마당 놀이 시 필요한 자동차, 공, 줄 등의 놀잇감을 가져오며 유희실 출입문을 사용해본 유아들의 제안으로 현관문 외 [유희실 문으로 들어오는 등원하기]가 시작되었다. 이에 교사들은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유희실로 등원하는 시간과 방법을 이야기하고 아침에 유희실에서 유아들을 맞이하였다.



-유희실로 등원하기

유희실로 등원하는 첫날, 입구를 헛갈려 하는 유아들도 있었지만, 교사가 유희실 통창문을 통해 반갑게 맞이하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며 즐겁게 유희실 문으로 등원하였다. 평소에는 드나들지 못했던 곳이 개방되자 유아들은 친구의 등원을 반갑게 맞이하고, 등원하는 유아들과 부모님들도 신선하고 재미있어 하였다.

-유희실 문 이름을 만들어요

“선생님, 유희실 문 이름은 뭐예요?” “유희실 문 이름을 만들어줘요. 어린이집 문에는 예쁜 그림도 있는데 유희실 문도 예쁘게 꾸며 주고 싶어요” 유아들은 유희실 들어오는 문을 꾸며 주고 싶어 했다. 유아 간 협의를 통해 유희실 등원 문 이름을 ‘탐험 문’으로 정하고 탐험에 적합한 환경구성 또한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놀이동산 사파리로 탐험 떠났던 게 생각나”, “동물도 보고 정글 같은 숲이 있었어.” 유아들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며 아이디어를 내어 유희실 환경구성에 동참하였다. 정글처럼 꾸며 탐험 놀이를 하자는 유아들의 의견대로 그렇게 유희실은 정글 탐험 공간이 되었다.

놀이 지원



-유희실 문: 신나는 탐험 놀이 문으로 변신했어요.

유아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유희실의 실내.외를 탐험 장소와 같이 꾸며 주었다. 유아들이 등원하면서 “내가 만든 나뭇가지다!”, “탐험문이야” 하며 직접 꾸민 유희실을 보고 즐거워했고, 교사는 정글 환경을 위해 정글 배경의 현수막과 잔디 현수막을 주문 제작하였고, 고릴라 인형으로 환경구성을 해주었다. 그리고 유아들과 같이 꾸민 정글 나뭇잎, 나뭇가지 등을 달았고, 유희실 문은 나뭇잎과 넝쿨로 정글처럼 변신하였다. 유아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탐험문’으로 꾸며지는 유희실을 보고 흥미로워 하였다. 멀리서도 보이는 유희실 모습에 서둘러 달려오는 유아도 있었고, 신체 활동의 요구가 큰 유아들은 유희실에서 놀이하기 위해 평소 보다 일찍 등원하여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였다.

놀이 확장



-자유롭게 넘나들고!, 여기는 진흙탕이에요

유아들은 유희실에서 우드데크로 자유롭게 공간을 넘나들며 [등원 놀이]를 하였다. 화초에 물을 주고 유희실 정글속으로 들어가 기린과 호랑이, 고릴라와 놀이 하였다. 정글 배경의 현수막 뒤로 숨으며 “애들아, 나 정글속에 숨어 있어, 나를 찾아봐” 하며 정글 숨바꼭질 놀이로 확장되었고, 색습자지를 찢어 담아놓고 “여기는 정글 속 진흙탕이에요” 하며 눕고 뒹굴며 진흙탕 놀이도 함께 병행했다.

-비오는 날에는 우드데크에서 감상하자

그러던 중 아침에 비가 오자 유희실 앞 데크에서 떨어지는 비를 보고 싶어하는 유아들이 있어, 의자를 나란히 놓고 앉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들은 조용히 비 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며 비를 온전히 느끼는 듯했다. 7~8월 잦은 비로 유희실 탐험문으로 등원하기와 함께 데크에서 비 감상하기도 자주 진행되었다.

가정 연계



-사파리 차를 만들어 주신 어머니들

유희실에서 타고 놀이하는 코레카 차를 사파리 차로 꾸미는 것을 어머니들이 도와주셨다. 동물 무늬를 오려서 우드락에 붙이고 코팅하여 코레카 차 앞쪽에 붙여 얼룩말 차, 기린 차, 호랑이 차가 완성되었다, 또 같은 무늬의 머리띠까지 함께 만들어주셔서 아이들은 머리띠를 하고 사파리차 놀이를 할 수 있었다.

-아빠가 만든 흙놀이터

우드데크에서 놀 수 있는 것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 하던 중 견학 갔던 곳처럼 흙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유아들의 의견을 부모님들께 전하고 재료와 매트 구입은 어린이집이, 설치하는 아버지들이 함께 해주었다.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만들어 준 흙놀이터라고 애착을 갖고 더 신나하며 놀이 하였다. 이렇게 [아빠가 만든 흙놀이터]가 완성되어 유희실과 우드데크는 유아들의 등원을 지원하는 멋진 놀이공간이 되었다.

-[놀이터로 등원하기→ 앞마당으로 등원하기→유희실로 등원하기]놀이를 진행하였다. 교사들은 유아들이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어린이집 안으로 등원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등원은 아침에 잠을 깨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활동으로 유아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규칙적인 활동이지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하루 일과이다. 이에 교사는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유아들의 놀이를 잘 들여다보고, 귀 기울여 유아들의 흥미를 찾아 이처럼 [등원하기]와 연계하였다.

하루 일과를 지내는 유아들은 “유희실에서 놀이하고 올게요~”라는 이야기를 자주한다. 어린이집 현관으로 등원한다는 틀에서 벗어나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 유희실을 등원 장소로 활용하니 유아들은 하루의 시작을 가장 좋아하는 공간에서 시작하여 마음껏 놀이할 수 있었다. 차례로 등원하는 친구를 반갑게 반기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더불어 등원의 즐거움을 느끼는 유아들의 변화와 다양한 등원 지도를 시도하는 교사들의 연구 활동을 직접적으로 보고 느낀 부모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글 탐험 공간인 유희실의 놀잇감이 풍성해지고,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훌날이터도 만들 수 있었다. 참여하신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놀이를 돕고,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끼셨다. 이처럼 유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때 부모-교사-기관 간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4. 집에 있어 형들이 갈게 - 집으로 데리러 가기

활동기간	2023.7월~8월
활동시간	9:00~10:00



-00아 어서와~~

앞의 등원 놀이를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유아들이 아침부터 놀이하기 위해 약속된 시간에 등원하였으나, 여전히 등원이 늦은 친구들이 있어 방법을 찾아보았다. 조부모와 등원하는 유아, 아침밥을 늦게 먹어서 등원이 늦는 유아, 부모님이 늦게 일어나서 등원이 늦는 유아 등 다양한 이유로 등원이 늦었다.

유아들과 같은 반 형, 동생들이 늦지 않게 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하던 중 ‘데릴러 가자’라는 의견이 나왔다.



-선생님이 데릴러 가기

매번 등원이 늦은 부모님의 시간 내 등원이 힘든 가장 큰 이유가 아이 셋을 동시에 등원 준비시키며 본인의 출근 준비를 해야 해서 바쁜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과 등원 준비로 바빠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해 아이들은 매일 아침 짜증과 화를 내며 등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돕기 위해 “00이 집에 00이 데릴러 같이 갈래?” 하며 이미 등원한 유아와 함께 가정으로 친구를 데리러 갔고, 00이와 그 동생 둘은 집으로 선생님이 찾아온다는 소식에 서둘러 옷을 입고 등원 준비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찾아온 선생님과 친구들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고, 아침 시간이 바쁜 어머니는 교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며 가방을 건네주었다.



-형들이 동생을 데릴러 가요

본 원은 혼합연령(만4.5세로)으로 유아반이 운영되고 있다. 혼합반의 유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형들이 동생들의 새로운 기술, 태도와 지식의 습득을 돕고 동생들을 배려하고 협동하는 좋은 인성이 모습다. 규칙적인 등원은 동생들에게 다소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교사가 집으로 데릴러 가서 등원을 함께 하는 것을 본 만5세 형들은 “선생님, 우리가 **이 데릴러 가고 싶어요” 라는 의견을 내었다.

		교사는 뒤에서 유아들의 안전을 살피고, 만5세 형들은 만4세 동생을 데리러 가서 “형 손 잡아~ 같이 어린이집에 가자” 하며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형들은 동생에게 친밀한 유대감을 표현하고, 동생은 형들의 유능한 모습을 보면서 잠재적 발달영역이 실재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놀이 지원	 	<i>-혼합연령에서 또래 간 유능함을 나타낼 수 있는 놀이 지원 방법</i> Vygotsky의 scaffolding 이론을 혼합연령 운영에 적용하고 있는 본 어린이집 교사들은 유아 주도적으로 또래 간 등원을 돕는 방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를 교사 회의를 통하여 여러 의견을 제한하였다. 이중 ‘생활 무전기’를 지원하여 유아들이 스스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교사 협의 결과에 따라, 무전기를 구입하고 유아들에게 사용 방법을 알려주며 어린이집에서 사용해보았다.
놀이 지원 후 재확장	 	<i>-무전기로 소통하기</i> 어린이집에서 무전기로 다양하게 놀이하면서 사용법을 익히고 또래 간 소통을 하도록 하였다. 복도와 유희실, 교실과 바깥놀이터, 교실과 휴놀이터 등 서로 떨어진 다른 공간에서 유아들은 서로 하고 싶은 말을 무전기 버튼을 누르고 이야기하면서 사용법을 익히고 놀이하였다.
가정 연계	 	<i>-가정으로 무전기를 가져가서 일상 공유하기</i> 무전기로 대화하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유아들은 서로 짝이 되어 소통하고 싶은 친구들과 무전기를 나눠 가지고 하원하여 가정에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였다. “00아, 나 지금 저녁 먹고 있어? 넌 지금 뭐해?” “ 나 지금 책 보는데 넌 지금 뭐해? 아까 봤던 책 재미있었지?”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대화 방법이 신선하다며 재미있어 하였고, 어머니들도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교사의 활동 평가		본 원의 유아들은 모두 도보로 등원하기에 항상 부모님과 등원한다. 유아들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기 위해 교사와 형님, 친구가 직접 유아 집으로 찾아가 함께 등원하기를 하였는데 평소 등원이 늦던 유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 등원 준비를 마치고 교사와 형, 친구를 기다렸다. 유아에게 우리 집에 선생님이 찾아왔다는 것은 등원 준비에 동기부여가 되었고, 교사와 나는 특별한 관계라는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더불어 동생반 유아는 교사만큼 형들을 신뢰하고 형들의 말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형들은 동생의 성장을 돕는다는 보람을 느끼는 것 같다. 이러한 장점을 등원하기와 연계하기 위해 매체(무전기)를 활용했던 것이 적절했다. 어린이집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유아들은 무전기로 소통하며 “지금 뭐해?”, “밥 먹고 씻을 거야”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오늘도 집에 가서 무전기로 이야기 하자” 등 신뢰감과 친밀감을 갖고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 할 수 있었다.

5. Let's go adventure -함께 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활동기간	2023.8월~9월
활동시간	9:00~10:00

놀이
시작



-등원 탐험 놀이

‘놀이터로 등원하기’ ‘앞마당으로 등원하기’ ‘유희실로 등원하기’ ‘형님이 데리러 가기’ 놀이를 통해 규칙적인 시간에 즐겁게 등원하기 태도를 익힌 유아들은 자발적으로 “다음엔 어디로 등원할까요?” 하고 우리 동네에 등원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유아들이 어린이집 가까이 있는 장소를 직접적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등원 이벤트를 제안하는 유아들도 있었다. “울면서 등원하는 영아반 동생을 봤어요. 울지 않고 일찍 등원하는 동생들에게도 선물을 나눠주는 건 어때요?!” 하고 주변 환경과 다른 반 동생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시작하였다. 유아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를 놀이로 실행해보았다.

지역
사회
와
협
력
하
는



-우리 동네 탐험하기

유아들과 우리 동네로 등원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우리 동네의 다양한 장소를 알아보고 어린이집과 접근성이 좋고 아침 일찍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보았다.

첫 번째 등원 장소로 ‘우리 동네 산책길’을 선정하였다. 유아들은 동네 산책길을 탐험한다고 하며 사전에 필요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탐험을 떠나려면 지도랑 깃발이 필요해.” “탐험을 하면 배가 고프니까 식량도 챙겨야 해” “벌레에 물릴 수 있어 약도 가져가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발적으로 탐험 놀이를 준비하였다. 형들이 주도적으로 탐험 깃발과 지도를 구성하자 동생들도 만들기 놀이에 참여하였다.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 우리 동네 탐험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다. 유아들은 새로운 장소를 놀이 공간으로 개척한다는 탐험가 역할 놀이를 하며 자신들의 유능함을 발견하고 자연과 소통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놀이
실행
내용



-우리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다담채)로 등원하기

유아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가까이 있는 커뮤니티 센터(다담채)로 등원하기 놀이를 하였다. 사전에 등원 장소와 시간을 부모님께 안내하고 교사는 다담채에서 유아를 맞이하였다. 정해진 시간에 다담채로 등원한 유아들은 조용히 동화책도 읽고, 시원한 음료수도 마시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소 아이를 등원시키고 다담채 카페로 가는 엄마를 보았던 유아는 “우리, 엄마 된 것 같아! 재밌어” 이야기도 하고 평소 경험해 보고 싶어 하던 다담채 카페로 등원했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모든 유아들이 약속한 시간에 등원 했던 날이었다. 이처럼 어린이집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이용하여 유아들에게 다양한 등원 놀이를 할 수 있었고, 유아들의 경험도 넓어졌다.

놀이 확대 및 지원		-등원 이벤트 : 씩씩하게 등원한 동생에게 선물을 줘요! 규칙적으로 즐겁게 등원하는 유아들은 점차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졌다. 울면서 등원하는 영아반 동생을 보며 “나도 4살 때 울면서 등원했어, 지금은 어린이집에 오는게 재미있는데” 하며 동생들에게 등원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기 위한 방법을 서로 논의하였다. 유아들은 영아반 동생들에게 선물을 주면 울지 않을거라 했고, 나누어 줄 선물 정하기, 선물 사오기, 포장하기, 선물 뽑기 판 만들기 등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행했다. 직접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유아들은 이벤트 당일 평소보다 일찍 등원하여 직접 동생들을 맞이하고, 선물 뽑는 것을 돕고, 영아반 동생들은 등원 선물에 웃으며 등원하였다.
교사의 활동 평가		유아들의 등원 놀이는 이렇게 어린이집 주변에서 등원하는 장소를 스스로 찾아보는 주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을 알고 남과 더불어 사는 생활,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도 실제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배워 나가게 되었다. 즉, 유아들은 [등원 놀이]를 통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보고 또래들과 소통하면서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알아갔다. 이렇게 진행된 [어서와~이런 등원은 처음이지?] 활동이 계절의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2학기가 되면서 어떻게 확장될지 기대가 된다. 유능한 유아들이 1학기때 경험한 [등원 놀이]를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더욱더 창의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III. 활동평가

유아반 아이들의 늦은 등원과 현관에서의 부모님과 실랑이에 유아반 담당교사로서 아이들의 ‘굳모닝’을 고민하게 되었다. 유아들은 자신을 일을 스스로 하며 나타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기이다. 어린이집에 등원하면서 스스로 해야 하는 일상이 시작되니 매일 규칙적으로 등원하는 것도 쉬는 일은 아닐 것이다.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느껴지는 단체생활에 대한 피로감과 내 스스로 해나가야 하는 부담감보다는 기분 좋고 즐거운 ‘굳모닝’을 만들자는 [어서 와~ 이런 등원은 처음이지?]라는 [등원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놀면서 배우는 유능한 유아’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 유아 평가

유아들은 어린이집 현관이 아닌 놀이터, 앞마당, 유희실, 지역 카페 등으로 등원하면서, 단계적으로 어린이집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였다. 아침에 바로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시작하는 [등원 놀이]를 통해 유아들은 등원에 대한 부정적인 부담감은 버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놀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알아가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배워갔다.

유아들에게서 “내일은 더 일찍올래요!” “선생님 배고파요.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간식 먹을래요.” 등의 이야기가 자발적으로 나왔고, [등원 놀이]로 유아들은 교실에서의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안정적으로 몰입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내일은 어디로 등원할까? OO,너도 일찍 와” 하며 스스로 [등원 놀이] 대해 계획하였다. 유아들의 직접적인 소감은 다음과 같다.

‘어서 와 이런 등원은 처음이지?’ 유아 활동 소감				
노리터로 등원해서 재미있어서요	이런 놀이도 재미있어서 좋아요	동생이랑친해해서 좋았다	무전기 같이하기해서 신나고 재밌었다	선생님이랑 함께하기가 재미있어서 좋아요

2. 부모평가

‘어서 와~ 이런 등원은 처음이지?’ 등원 놀이에 대한 부모 평가를 설문지로 받아 보았다. 총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20명의 부모가 설문에 응답해 주었다. 등원 놀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이 즐거워졌다’ 질문에 모두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등원 준비 시간이 단축되었다’ 질문에 90%가 긍정적인 답을 주었다. ‘내 아이의 또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질문에 85%가 긍정적인 답을 주었고 ‘다양한 등원 놀이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에는 모든 부모님이 그렇다고 하였다. [등원 놀이]에 대한 서술형 답변은 다음과 같다.

■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매번 아이들의 등원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아이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해줄 만한 이야기 거리에 감사드립니다 / 놀이터를 많이 좋아하고, 많이 놀아야 하는데 하원 후 시간이 부족해요. 원에서라도 놀이터 활동이 많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 다양한 등원 놀이가 하루의 아침을 설레여 하며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 좋습니다. 더군다나 등원 준비도 수월하게 되어 더더욱 좋아요 / 아이들이 신나합니다 / 놀이터로 등원할때 00이가 많이 즐거워 했습니다 / 다양한 등원 놀이 앞으로도 지속되면 좋겠어요 / 색다르고 재미있는 등원 길이었습니다

간혹 부모님들은 교사 주도적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중심 보육과정을 요구하고 어수선한 교실 모습에 대한 의문을 던지곤 하였다. 그러나 부모 평가 후에는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유아들의 ‘놀이보고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매주 보내시는 놀이 이야기가 이제는 이해가 되요” 라고 해주셨다. 이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보육 활동을 부모님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 교사 평가

-*유아 이해하기*: 영아반에서 유아반으로 진급한 유아와 부모님들은 형님이 되었다는 기대감을 갖기도 하지만, 뭐든지 스스로 잘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가지는 유아와 부모도 있다. 이러한 부담감은 늦은 등원, 불규칙적인 등원, 어린이집 등원거부 등 일상생활을 어렵게 한다. 가정에서도 등원을 힘들어 하는 이유를 어린이집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에 교사 회의를 통해 아이들이 유아반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하고, 즐겁게 시간에 맞춰 ‘굳모닝’으로 등원하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발상의 전환, 교사의 창의력*: 등원이라 하면 어린이집으로 오는 것을 생각할 텐데, 이를 반대로 바꾸어 생각해보기로 하였다. 등원하면서 유아들이 좋아하는 ‘바깥놀이’를 하면? 놀이터로 등원하면? 으로 시작된 [등원 놀이]에 유아들과 부모님들의 반응은 너무나 좋았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놀이터로 등원하는 유아들의 눈빛은 현관에서 보았던 눈빛보다 미소가 가득했고, 출근하면서 부모님은 교사에게 감사함과 칭찬의 인사를 주었다.

-*지각 없는 등원*: “안정된 일과 운영을 위해 조금만 일찍 등원 부탁드립니다.” 라는 안내문을 반복적으로 보내면서도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어린이집에 오고 싶게 하는 방법을 왜 고민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였다. 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아들의 등원 시간은 빨라졌고, 매번 늦게 등원하여 놀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늦은 아침 식사로 어린이집에서의 점심 식사를 거의 먹지 못하던 유아들도 규칙적인 등원을 통해 바람직한 일상생활이 되었다.

-*교사들의 협업*: 유아들에게 등원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놀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교사들에게도 배움이 일어났다. 유아들의 [등원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아들의 놀이를 잘 들여다보고, 놀이를 확장 시키기 위해 관련 교육 듣기, 도서·교구 찾기, 인터넷 서치 등 매 순간 동료 교사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연구하였다. ‘바깥’이라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교사들이 소통하고 협업하게 하였다. 교실에서만 보육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동료 교사와의 소통은 어려웠을 것이다. 동료 교사와의 협업은 놀이를 통해 일상생활을 배웠을 때 유아들은 발달에 적합한 주도성을 키우면서 전인적으로 발달한다는 ‘놀면서 배우는 유아’ 개념을 느끼게 해주었다.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어서와~ 이런 등원은 처음이지]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교사의 상상력 아이의 놀이를 키워나간다*: 본 원의 교사들은 경력교사들이다. 경력교사들의 경험과 유아에 대한 이해는 유아반 운영에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치로 고착화된 반 운영을 한다면 이는 유아중심 보육과정에 부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본 원의 교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어” 라는 개념에서 탈피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일상생활 운영에 적용하여 유아들이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등원’이 아니라, 교사가 밖으로 나가는 ‘등원’을 선택했고, 이를 놀이화하였다. 이처럼 교사가 새로운 ‘등원’을 시작하자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앞마당으로, 유희실로, 실외공간 데크, 지역사회 공간으로 [등원 놀이]를 확장시켰고 동생들을 데리러 가고, 무전기를 사용하여 서로 대화하는 새로운 [등원 놀이]를 진행하였다. 교사가 상상력을 가지고 창의적이면 유아는 자신들에게 내재된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놀이를 확장하는 주도성을 보여준다.

-*놀이야 커져라 풍성하게*: 출생률 저하로 유아들의 수가 감소하여 동일반을 운영하기에 어렵고, 본 원처럼 물리적으로 교실의 수가 부족해 혼합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부모들은 혼합반에서 형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을까? 동일연령에서 자신의 아이가 돋보이고 리더가 되길 바라며 혼합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한다. 교사들도 혼합연령 지도가 동일연령을 지도보다 어렵기에 혼합반을 담당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놀이중심을 유아 주도적으로 풀어가는데 혼합연령이 함께 있는 교실은 최적의 조건이지 않을까?

유아가 도달해야 할 잠재적 발달수준으로 근접발달영역을 향상 시키기 위해 발판을 대어주는 유능한 존재가 교사보다는 한두살 많은 또래라면 실재적으로 도움이 되는 힌트와 지원을 줄 것이고, 형과 함께 놀이하면서 동생은 현재의 발달 단계보다는 조금 높은 목표와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여 구조적 놀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들은 나이 어린 동

생에게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유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놀이를 확장해가는 모습이기도 하다. 즉, 개정된 보육과정을 가장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반 운영은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교실이지 않을까? 그렇기에 교사들과 기관은 혼합반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배우고 자라 유능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최고의 교실이며 최선의 구성이라 자부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을 놀이로 ! 가정에서도** : “주말에 아빠랑 어린이집 앞마당에 있는 분필로 그림을 그렸어요” “ 아이는 킥보드 타고, 저는 자전거 타고 등원했어요” “휴놀이터에서 놀이하는 것을 보고, 집에서도 욕조에 물 받아놓고 한참을 놀고 목욕하니 목욕 시키는게 수월하더라구요” 이처럼 가정에서도 일상을 놀이로 전환시켜 본 부모님들이 생겼다.

2. 일반화 제언

- **교사 협의와 지원의 필요성**: [어서와~ 이런 등원은 처음이지?]의 [등원 놀이]는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것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며 교사의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이뤄진 활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의를 통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소통과 지원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른 아침 시간에 교실에서 나와 1시간 동안 유아들과 신체활동을 하며 부모님과 아이의 안부를 묻고, 자유로운 유아의 놀이에 대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에 진행하는 교사들의 의지와 협의가 중요하다. 그리고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의 조정이 있을 수 있기에 교사들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그렇게 동료 교사와 같은 생각으로 협업하다 보면 정보 공유, 지원, 배려 등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는 원장님과 주임 교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이 필수적이다.

- **공간과 등원 방법에 따른 안전 확보**: 놀이터, 앞마당으로 등원하기, 유희실과 어린이집 외부로 넘나들며 [등원 놀이] 하는 활동은 장소의 안전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유아들의 놀이와 활동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이 안전이기 때문이다. 차량 이동이 잦거나, 성인들의 출입으로 놀이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러한 방해 요소를 대비해 유아들의 안전을 확보 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원처럼 유아들이 도보로 등원하는 기관과 달리, 차량 운행을 하는 기관은 교사의 부재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또한 교사 배치를 적절하게 해야 할 것이다.

- **학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이해도**: [등원 놀이]는 아침에 1시간 동안 바깥에서 신체활동 후 교실에서 놀이와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놀이의 몰입도와 주도성에 대한 평가는 이미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이와 같은 놀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면 활동과 운영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유아들의 놀이를 통한 배움을 안내하고 부모님들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2024년 연간프로그램 계획

월	활동 주제	활동 내용	가정연계 및 지역사회 활동
3월 4월	어린이집 앞마당으로	■ 놀이터로 등원하기 ■ 엄마와 앞마당에서 놀이하기	□ 엄마, 아빠가 놀이 선생님
5월 6월	탐험 놀이	■ 부모님과 탐험놀이 ■ 형제 자매와 탐험놀이	□ 지역사회 공원, 산책로 탐험 □ 형제와 보물찾기
7월 8월	어린이집 앞마당으로	■ 물총놀이 ■ 여름 물놀이	□ 바닥분수 놀이
9월	온 마을과 함께 하는 즐거운 등원하기	■ 단지 내 다양한 장소로 등원하기	□ 단지 내 장소 찾기

월	활동 주제	활동 내용	가정연계 및 지역사회 활동
10월 11월	어린이집 앞마당으로	■ 가을 자연물 찾으며 등원하기 ■ 놀이터로 등원하기	□ 부모님들과 앞마당, 놀이터에서 가을 놀이하기
12월	즐거운 성탄절	■ 성탄 선물 찾기	□ 형님반과 동생반 성탄 선물 찾기
25.1월 25.2월	어린이집 앞마당으로	■ 앞마당에서 겨울 놀이 ■ 등원해서 겨울 놀이하기	□ 눈썰매, 눈오리, 눈사람 만들기

V.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9), 놀이이해자료

보건복지부(2019),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건복지부(2021),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2022), 2022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자료집

김정준, 최지은, 조경미, 신현정, 차기주, 양혜련(2022), 모두의 유아교육:앞으로, 兀Pro, 양서원

서화니(2022), 놀이하는 유아의 동선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유난순(2010), 비고츠키의 발달이론이 유아교육에 주는 시사점,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미(2009),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하루 일과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우익(2006),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 이론을 통한 기독교교육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우수상>
고양시립아름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국공립
지 역	고양시
프로그램명	엄마! 왜 벌써왔어?!
총 괄	심경숙
기획 및 운영	허 숙, 윤미경, 윤연숙, 최미선, 임세련

I.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선생님 우리 엄마는 언제와요?” 연장반 교사들은 기본 보육 시간을 마치고 부모와 함께 하원하는 또래를 바라보며 이런 질문을 하는 연장반 영유아들에게 대답하기 난처할 때가 많다. ‘어떻게 하면 연장반 영유아들이 부모님의 귀가를 잊고 즐거운 일상생활 놀이에 집중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졌다. 기본 보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는 영유아들에게 연장반에서의 생활이 지루하거나 부모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 또 다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더 이상 연장반은 기본반의 부수적인 역할이 아닌 영유아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동등한 반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연장반 영유아들에게 어린이집에서의 ‘놀이와 쉼’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반에서 일상을 마친 영유아들이 지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과 놀이를 균형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하며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놀이로 자연스럽게 배움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 언제와요?” 가 아닌 하원을 위해 어린이집으로 온 부모님을 보고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라고 말하는 연장반 영유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이론적 배경)

맞벌이 부모를 둔 영유아의 증가와 부모의 취업시간의 다양화, 이혼부모와 미혼부모의 증가, 지속적인 재교육을 요구하는 지식산업의 증가 등은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증대로 나타난다. 장시간의 보육에도 영유아가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보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며, 취업 부모들은 자신이 돌보지 못하는 시간동안 자녀가 따뜻하고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다음 출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일 기본 보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유아와 부모, 보호자를 위한 질적 보육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할 매뉴얼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 시간연장형 보육프로그램1, 2014.12) 연장반의 즐겁고 행복한 보육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적인 과제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표준보육과정에서 보육과정은 영유아 놀이 중심이며 이는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보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이다. 영유아는 놀이하면서 세상을 탐색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한다. 또한 영유아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즐겁게 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다. 이런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연장반 보육프로그램을 영유아들의 놀이로 접근하여 영유아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탐색과 놀이 속에서의 다양한 배움을 얻어갈 수 있어야겠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지원자의 역할을 진행하고 가정과 함께 보육의 동반자로 함께 소통해야한다.

II.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 1) 활동기간 (2023년 3월부터 시작 2023년 9월 현재까지 진행 중)
- 2) 활동대상 (연장반 영유아)
- 3) 활동방법

과정	내용
사전준비 및 계획	•연장반 영유아의 선호도 파악하기 •연장반 놀이활동 지원 방법 구상하기 •영유아 일상생활 지원 놀이 프로그램 계획하기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에 필요한 환경적 지원(공간, 재료 등) •영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통한 지원 •놀이 관찰 및 확장 지원 •가정연계 지원
결과 및 평가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결과 •영유아 측면에서의 평가 •교사 측면에서의 평가

3)-1추진과정



교사 구성 팀 1차
프로그램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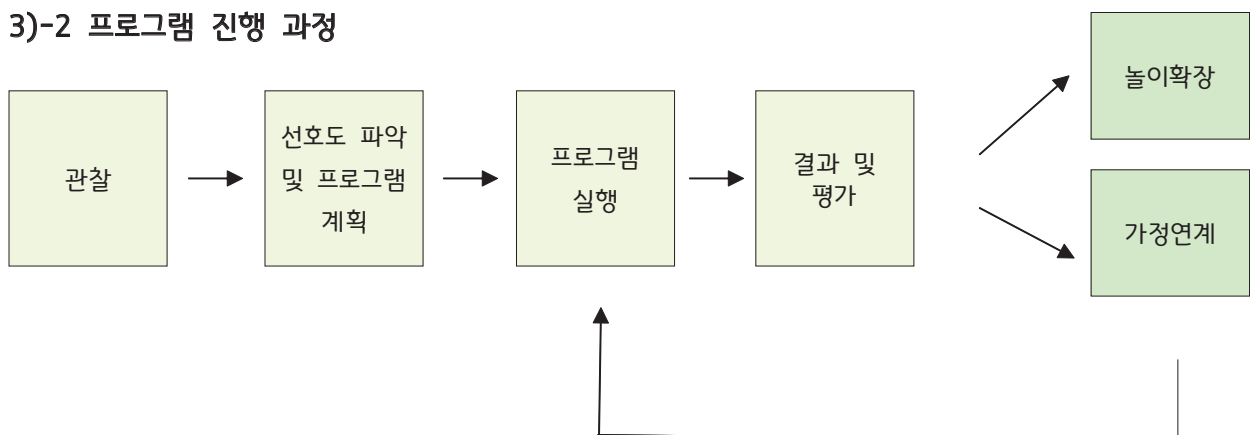
교사 구성 팀 2차
프로그램 회의



영아반교사의
공모전 교육 참여

교사회의를 통해 현재 운영되는 연장반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인식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연장반 영유아들이 ‘놀이와 쉬’를 적절히 분배하여 지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과 놀이를 균형 있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영유아들에게 요구되는 놀이 활동 구상하기 및 놀이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영유아 중심의 놀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3)-2 프로그램 진행 과정



4)연장반 영유아 일상생활 지원 놀이 프로그램

월	프로그램	내용	월	프로그램	내용
3	•내 친구 파스타	•파스타 음식점 •파스타로 모양만들기 •파스타 마라카스 •삶은파스타 점토놀이	9	•알록달록 개구리알	•불어나는 수정토 탐색하기 •수정토 담기 •수정토 물병만들기 •수정토에 행운목 심기
4	•나는 이제 네가 좋아졌어	•오이마사지 •배추 가면만들기 •채소 얼굴 만들기 •시금치 나물 만들기	10	•밀가루 반죽놀이	•밀가루 반죽하기 •모양틀로 찍기 •쿠키만들기 •밀가루 손도장찍기
5	•두부? 어디까지 돌아봤니?	•콩 심어 싹 틔우기 •콩 갈아 두부만들기 •두부 색깔 입혀보기 •두부로 만든요리 먹기	11	•쌀과자 놀이	•쌀과자 소꿉놀이 •쌀과자 미술놀이 •쌀 강정 만들기 •쌀과자 봄비
6	•휴지야 놀자	•휴지 뜯어보기 •휴지 꽃놀이 •휴지 미이라 •휴지 그림그리기	12	•겨울놀이	•이불 찢매타기 •눈오리 만들기 •겨울 양말꾸미기 •캐롤 악기연주
7	•감자로 놀아요	•감자캐기 •감자 도장찍기 •감자 샐러드 •감자 수경재배	1	•느낄 수 있어요	•로션놀이 •비닐 수영장 •젤리 놀이 •촉감상자 수수께끼
8	•나는 쓰레기가 아니야!	•택배상자 가면만들기 •휴지심 볼링 •페트병 물고기 •계란판 징검다리	2	•따뜻하게 놀아요	•이불 김밥놀이 •색깔 솜 찍기 •모닥불 캠핑 •털모자 꾸미기

4)-1 놀이활동 방법 및 평가

계절과 영유아의 관심도에 따라서 놀이 재료와 놀이활동을 제공하고 기록 관찰하며 놀이활동 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놀이가 확장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정하거나 다른 놀이로 전환한다. 긴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놀이 중간에 휴식영역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 내 친구 파스타

- ✓목표 : 파스타의 다양한 모양을 탐색하고 다른 그릇에 옮겨 담아본다
- ✓표준보육과정
- ✓활동대상 : 연장반 영유아
(자연탐구 > 탐구 과정 즐기기 >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 > 신체 활동 즐기기 > 대 소근육 조절)
- ✓자료 : 다양한 모양의 파스타, 쟁반, 볼, 소꿉놀이 도구, 놀이 매트



✓교사의 놀이 지원

딱딱한 파스타 면에 영아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확장 활동

말린 파스타 면과 삶은 파스타 면을 비교하고 맛보기



✓ 평가

단단한 느낌의 파스타 면을 시각적인 부분, 촉각적인 부분 등 다양한 감각으로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유아가 입에 넣어보고 싶어 하면 입에 넣어 보게 하였다. 물에 넣어 불린 파스타 면과 불리지 않은 단단한 면도 서로 비교해가며 느낌이 어떤지 질문하며 상호작용해 주고 삶은 파스타 면도 제공하여 맛을 보기도 하였다.

● 나는 이제 네가 좋아졌어

- ✓목표 : 녹색 채소를 스스로 탐색해 보고 도구를 사용하여 잘라서 작게 만드는 경험을 해본다.
- ✓활동대상 : 연장반 영유아
- ✓표준보육과정
(신체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감각능력 기르기> 다양한 감각적 차이에 반응한다)
- ✓자료 : 녹색채소, 빵칼, 접시



✓교사의 놀이 지원

영유아가 빵칼로 야채를 스스로 잘라보도록 격려해주고 어려워하는 영유아는 곁에서 함께 잘라주기를 지원하였다.

확장 활동

여러 가지 야채로 친구 얼굴 꾸미기



✓ 평가

영유아가 다양한 채소를 감각적으로 탐색하며, 탐색한 것에 대해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나누었다. 영유아들이 평소 선호하지 않았던 채소로 놀이하는 과정에서 관심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오이 마사지를 해보며 오이를 싫어하던 영유아가 스스로 냄새도 맡아보고 입으로 맛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번의 놀이로 편식 습관을 바로 잡을 수 없겠지만 이처럼 놀이를 통해 자주 접해본다면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 두부? 어디까지 놀아봤니?

- ✓목표 :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두부를 탐색할 수 있다.
- ✓활동대상 : 연장반 영유아
- ✓표준보육과정
(자연탐구> 탐구 과정 즐기기 >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
- ✓자료 : 두부, 과일주스, 큰 그릇



확장 활동

끓는 물에 데친 두부를 빵칼로 잘라 보고 양념장에 찍어 먹어 보며 요리 활동으로 확장하여 놀이



✓ 평가

영유아가 두부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을 시도할 수 있도록 탐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나누었다. 영유아는 두부에 높은 흥미를 보이며, 직접 손으로 만지며 탐색하는 과정을 즐겼고, 이러한 영유아의 모습을 언어로 표현하며 격려하였다. 두부를 편식하여 탐색을 거부하는 영유아는 강요하지 않고 두부로 만든 요리 사진을 보여주고 상호작용을 하며 기다려 주었다.

휴지야 놀자

✓목표 : 손으로 휴지를 탐색하며 다양한 놀이를 즐긴다

✓활동대상 : 연장반 영유아

✓표준보육과정

(자연탐구 > 탐구 과정 즐기기 >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 >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 몸 움직임 즐기기

✓자료 : 두루마리 휴지, 분무기, 바구니



✓교사의 놀이 지원

영유아들이 휴지 던지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확장 활동

휴지에 물을 적셔서 뭉쳐보거나 벽에 붙여보기



✓ 평가

영유아가 휴지를 다양한 감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나누었고, 휴지를 찢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재미있어하며 탐색을 즐겼다. 두루마리 휴지를 풀고 감아보며 놀이하는 과정에 대해 영유아가 높은 흥미를 보였으며, 휴지를 잡고 풀어보거나 굴려서 풀어보기도 하고, 한 칸씩 뜯고, 접어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영유아가 풀고, 다시 감아본 휴지는 바닥을 닦는데 사용하며, 그냥 버리지 않고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자로 놀아요

✓목표 : 감자를 이용하여 감각 놀이의 즐거움을 안다

✓활동대상 : 연장반 영유아

✓표준보육과정

(자연탐구 > 탐구 과정 즐기기 >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 > 신체 운동 >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자료 : 감자, 볼, 손가락, 간식 그릇



확장 활동

가정과 연계하여 감자요리 만들어 먹어보기



✓ 평가

어린이집 텃밭에서 직접 감자를 캐보며 부드러운 흙의 느낌도 느껴보고 동글동글 감자를 직접 만져보고 굴려 보고 물에 씻어 보는 활동도 해보았다. 영유아는 자신이 직접 캐보고 탐색했던, 감자를 맛보며 뿌듯해하는 모습이었고 찢 감자를 으깨어 샐러드를 만들어 맛을 보기도 하였다. 감자를 먹기 싫어하는 영유아는 손으로 으깨 보며 느낌을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집에서 또 먹고 싶어요”라는 영유아의 말에 가정과 연계하여 활동도 확장해보았다.

● 나는 쓰레기가 아니야!

✓목표 : 재활용품으로 멋진 가면을 만들어 본다.

✓활동대상 : 연장반 영유아

✓표준보육과정

(예술경험 >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자료: 택배상자, 안전가위, 풀, 색종이, 끼적이기 도구



✓교사의 놀이 지원

영유아들이 택배상자 자르는 것을 어려워하여 교사가 잘라서 제공하였다.

확장 활동

가면으로 친구와 역할놀이-“내 얼굴 멋있지?”



✓ 평가

택배 상자에 영유아가 관심을 보이며 상자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선호도를 파악해보았다. “동그라미로 잘라서 얼굴 만들고 싶어요”라고 하는 영유아의 흥미를 반영하여 다양한 미술재료를 사용하여 얼굴을 표현해 보았다. 안전가위로 색종이를 자를 때 손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였다. 자유롭게 꾸민 후 영유아가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자랑하며 역할놀이를 해보았고 버려지는 쓰레기로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알록달록 개구리알

- ✓목표 : 수정토의 물질변화를 관찰하고 촉감으로 느낄 수 있다.
- ✓활동대상 : 연장반 영유아
- ✓표준보육과정
(자연탐구 > 탐구 과정 즐기기 >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 ✓자료 : 수정토, 대야, 물, 재활용 페트병, 놀이매트



교사의 놀이 지원

활동 전 교사는 수정토를 보여주며 활동 방법과 입에 넣지 않아야 함을 알려주었고 물에 넣어 풀어냈을 때 바닥에 던지는 영유아가 있어 안전하게 대야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확장 활동

가정과 연계하여 수정토에 행운목 심기



평가

자유롭게 수정토를 탐색하는 영유아의 모습을 보며 언어로 표현해 주어 적극적인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했다. 영유아에 따라 수정토의 미끌미끌한 질감이 좋지 않았는지 표정이 어색하거나, 찡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정토를 충분히 탐색한 후에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영유아에 따라 다른 영유아의 놀이 모습을 탐색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했다. 원에서 놀이한 수정토를 가정과 연계하여 각 가정에서 행운목을 심어보았다.

III. 활동평가

1. 영유아 평가

연장반 놀이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영유아들과 그동안 놀이했던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사진을 보면서 미끌미끌하거나 촉촉한 느낌의 재료를 탐색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영유아가 “감자 으깨기 재미있었어” “나는 두부가 맛있었어”라고 말하며 활동했을 때 맛보았던 재료의 느낌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파스타 놀이와 휴지놀이 사진이 나왔을 때 “선생님 또 놀이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놀이가 매우 즐거웠음을 표현하는 영유아도 있었다. 다양한 식재료와 재 활용품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이를 즐기기 시작하였으며 단 것, 짠맛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영아들이 재료에 대한 탐색 놀이를 통해 재료에 대한 맛을 느끼고 친숙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유아들도 급·간식 시간에 함께 놀이했던 재료를 찾아보고 맛보며 즐거운 식사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식재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택배박스, 화장지, 보자기, 신문지, 얼음 등을 잘라보기, 찢기, 굴려 보기, 만져보고 흔들어 보며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며 스스로 다른 놀잇감과 결합하여 놀이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장반 놀이활동이 교사가 주도한 놀이가 아닌 영유아들이 선호하는 놀이 환경을 조성해 주어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놀이가 될 수 있었으며 스스로 놀이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또래 친구들과 교사와 함께 협력하여 재미와 기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정과 연계하여 요리 활동이나 식물심기 활동 등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높은 호응도가 있었으며 연장반에 대한 기대감과 긍정적인 요소가 발현되기도 하였다. 놀이는 영유아들에게 일상 그 자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놀이가 이루어지고 자발적인 놀이를 통하여 영유아는 놀이를 생활의 일부로 내면화 할 수 있었다.

2. 교사 평가

어떻게 하면 연장 반 영유아들이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고 집중도를 높이며 놀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에서 출발한 이번 프로그램은 영유아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와 재 활용품 등을 선택하여 특별한 거부감없이 자유롭게 탐색하고 음식이 될 수 있는 식재료가 즐거운 놀잇감이 될 수 있고 재 활용 쓰레기로 버려졌던 택배상자나 신문지 등이 새로운 놀잇감으로 재탄생되면서 창의적인 발상이 연출되기도 하였으며 탐색과 더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이를 즐기기 시작하였다. 식재료의 탐색 놀이는 급식 시간이나 간식 시간에 채소나 일부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영유아들에게 식재료를 탐색하고 맛보는 과정에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절감되었으며 평소에 잘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교사는 영유아가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 주제를 이야기하고, 놀이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영유아와 함께 안전한 놀이 규칙에 대하여 말해보며 상호작용 해주었다. 영유아가 스스로 참여할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었으며 교사의 모방을 통해 탐색하거나 영유아 스스로 탐색하도록 기회를 주고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영유아들의 자발적인 놀이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의 자발적인 놀이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몰입도와 집중력이 높아졌다. 놀이활동을 하는 동안 지속적인 흥미와 몰입이 유지되었으며 이는 영유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래와 교사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들을 배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오랜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게 되는 연장반 영유아들에게 오전 기본반 활동이 끝나고 또다시 시작되는 연장반 활동이 지루함으로 다가올 수 있었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시한 결과 영유아들이 끝없이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 내고 확장해 가면서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놀이가 될 수 있었다. 연장반 영유아들의 특성상 매번 같은 시간에 동시 하원이 어렵기 때문에 활동상 제한이 있기도 하여서 가정 연계활동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직장에 다니거나 재택근무 등으로 부모참여가 어렵거나 영유아들의 놀이 활동에 소통이 부족한 부모님들께 활동에 대한 안내나 놀이 지원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하여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연계되어 놀이하며 연장반 놀이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올리고 선생님 우리 엄마는 언제와요?” 가 아닌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즐거운 연장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기대효과

본 프로그램은 연장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경험하는 놀이를 식재료, 재활용과 연계하여 놀이하며 영유아들이 재미를 느끼고 행복감을 경험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영유아들이 등원부터 하원까지 긴 시간 동안 즐거움을 잃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속에서 영유아의 욕구를 해소하고 반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관찰을 통하여 개인적인 욕구를 빠르게 섬세하게 알고 언어표현이나 의사 표현이 부족한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자 고민하며 교사로서 전문성 또한 향상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 2024년 연간프로그램 계획 (계절을 느끼는 오감 놀이활동)

계절	자원	활동명
봄을 만나요	씨앗, 상추, 딸기, 식용 꽃, 냉이, 진달래, 개나리, 쭉, 주방 도구	-꽃잎 물들이기 -향기 주머니 만들기 -꽃 샐러드 만들기 -딸기로 놀이해요 (봄에 만나는 새싹, 꽃, 채소와 과일 등 자연물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자유롭게 탐색을 즐긴다.)
여름을 느껴요	토마토, 수박, 오이, 얼음, 포도, 감자, 밀가루, 미역, 주방 도구	-수박 화채 만들기 -토마토 놀이 -포도로 물들이기 -얼음 놀이 -감자와 오이 샐러드 만들기 (영아들에게 익숙한 과일과 채소, 밀가루 등을 오감을 통하여 탐색하고 주방 도구를 이용하여 변형, 재창조하여 생각을 확장 시켜 본다)
풍성한 가을	도토리, 밤, 솔방울, 콩, 쌀과자, 감, 호두, 대추, 벼	-열매 소꿉놀이 -쌀과자 놀이 -곡물 미술놀이 -가을 열매 옮기기 (가을이 되어 수확되는 다양한 곡식과 과일 등을 탐색하며 놀이를 통해 영아들의 유능감을 발현시킨다)
따뜻한 겨울	고구마, 굴, 배추, 봄동, 무, 시금치, 당근, 코코아	-굴 놀이 -고구마 경단 만들기 -무 깎두기 만들기 -채소 꾸미기 -코코아 색깔 우유 (겨울철에 만나는 다양한 재료와 놀이해 보고 따뜻한 느낌과 계절을 감각적으로 느껴본다)

3. 일반화 제언 및 향후 프로그램 확장

▶영유아들의 놀이를 계획할 때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놀이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친해지도록 기다려주는 교사의 자세가 필요하고 식재료를 이용한 오감 활동 시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영아들을 놀이로 이끌어 주기 위한 다양한 놀잇감 제공이나 교사의 모델링 등 교사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영아가 건강하고 즐겁게 놀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놀이 소재 개발에 대한 고민과 놀이에 다가가는 교사의 창의적 사고 역시 필요하다. 일상을 놀이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 역시 인식이 변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외부 전문가 컨설팅 등 보육 현장의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대부분 직장을 다니거나 영유아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연장반 학부모들의 특성상 놀이활동에 관한 관심이 거의 미미하여 부모와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정에 놀이의 계획을 알림장 매체를 통해 전달하여 부모와 의사소통을 활발히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하며 교사 역시 다각적인 시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식재료를 활용한 오감놀이와 재활용 놀이 두 개의 주제로 놀이활동을 나누어 탐색과 놀이 위주로 계획하였지만 이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에 볼 수 있는 채소나 꽃, 식재료 등을 이용하여 영아들이 계절을 느끼고 맛보고 탐색하며 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영아가 오감을 이용하는 활동과정을 통해 영아의 기본 정서 및 사회적 행동, 자아개념, 자기조절이 발달 되고 오감 놀이를 통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창의적 및 사회성이 발달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의 오감 자료를 놀이에 반영해 볼 것을 제언한다.

V. 참고문헌

중앙유아지원센터(2023).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놀면서 자란다’ 영아(0~2세 보육과정)

보건복지부(2020) 4차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경기북부우수보육프로그램(2022),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우수보육프로그램 콘텐츠 공모전 자료집(2021),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

강운경, 김원철(2017) 장난감이 필요없는 아이주도 오감놀이백과(0~4세)-두뇌 발달을 위한 오감자극 놀이 레시피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우수상>

시립다산아이사랑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국공립
지 역	남양주시
프로그램명	우리가 정하는 오늘 (하루일과)
총 괄	정연일
기획 및 운영	유문희

<운영 사례>

1.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어린이집은 연간, 월간, 주간 및 일일보육계획에 따라 보육을 실시하고 이를 평가하여 다음 보육계획에 적용하는 순환적인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 중 하루일과가 모여 주간, 월간, 궁극적으로 연간 보육과정을 이루는 것을 감안한다면 어린이집 보육과정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단위를 하루일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어린이집 하루일과는 유아가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과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하게 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협동, 인내심, 창의성 등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놀이는 신체, 인지, 사회 및 정서발달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유아에게 있어 놀이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즐거움을 주는 핵심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발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놀이는 놀이 자체가 그 목적이 되어야 하며, 놀이참여자가 자유롭게 놀이활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놀이를 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하며, 놀이하는 사람의 흥미에 맞는 상상적 요소도 포함되어야 하고, 놀이참여자가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놀이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아동이 놀이의 본질에 맞는 놀이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아의 가장 밀접한 환경인 가정과 기관에서 놀이의 본질을 포함하여 발달에 적합한 놀이가 제공되어야 한다.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 (이론적 배경)

자발적 의지로서의 놀이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리는 것이 바로 자유놀이이다. 자유놀이란 교사가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자신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자유롭게 놀이하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신체, 인지, 정서, 사회, 창의성 등 모든 영역의 통합적 발달과 개별 학습,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의사결정력, 독립심, 책임감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들의 충분한 놀이시간 편성과 자유놀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바람직한 자유놀이 운영을 통해 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촉진하고자 하였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즉 유아를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진 학습의 주체자로써 인식하고, 유아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알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양옥승, 김혜리, 1995: 황운세, 강현석, 이현경, 2004)

Erickson(1963)은 유아기를 자율성 획득을 위한 중요한 발달단계로 보았으며, 이 시기 유아들은 독립심, 자율성, 자아 통제 등이 성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도성이 높은 유아는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도 강한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성취 의지를 나타낸다. 이는 유아들이 어려운 문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도전의식을 갖는 기회가 된다(배선희, 2005; 이효진, 김명순, 2019; Kostelnik, 2002).

이러한 주도성을 획득한 유아는 놀이에 있어서도 내적 동기에 의해 놀이의 내용과 통제방식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끌어 가게 된다. 놀이 주도성은 자유놀이 상황에서 유아가 수행하는 역할이며, 놀이를 이끌어가고 진행시키기 위한 전략이다.(Goncu,1993; Pfeifer, et al, 2011), 따라서 놀이 주도성이 높은 유아들은 놀이과정에서 다양한 능력을 보인다.(McAloney & Stagnitti, 2009).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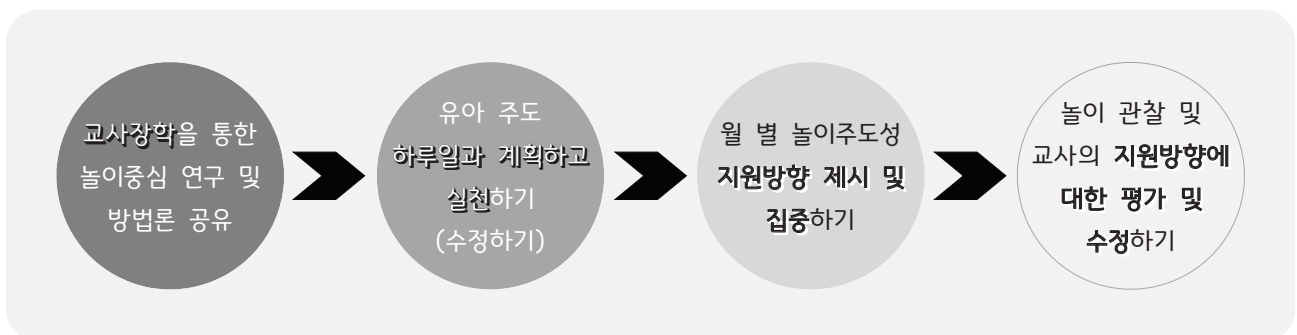
1. 프로그램 내용

- 1) 활동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2월
- 2) 활동대상 : 만 5세 유아
- 3) 프로그램 연간

① ‘우리가 만드는 오늘’ 하루일과+놀이 프로그램 연간계획 (유아/교사 대상)

	유아 대상 프로그램	교사 장학 프로그램
3월	-	2023년 교사 장학 활동 소개 및 진행방향 논의
4월	놀이는 시간이야 (하루일과 정하기)	놀이를 기록하는 보육일지1 (의미있는 기록의 힘)
5월	놀이는 공간이야 (놀이공간 정하기)	놀이를 기록하는 보육일지2 (영유아 놀이 지원을 위한 관찰과 기록)
6월	놀이는 자료야 (물적 자원 활용하기) (+추가 하루일과 정하기 하계)	놀이 키워드 (놀이의 다양성, 범위 알기)
7월	놀이는 사람이야 (인적 자원 활용하기)	놀이지원과 반영적 사고 공유하기
8월	놀 이로 몰입하기 (직접경험 찾기)	연령별 놀이 참관 (상호작용 관찰지원)
9월	놀 이로 확장하기 (새 놀이 발견하기)	영역별 놀이지원 (교사의 반영적 사고)
10월	놀 이로 만나기 (지역사회 연계활동)	놀이 관련 도서 탐독하기
11월	놀이는 시간이야 (하루일과 점검하기)	놀이 문제점 찾아보기
12월	우리가 만드는 오늘 (놀이전시회)	영유아의 놀이지도 및 흥미도에 따른 주제 변화 공유하기
1월	-	연령별 놀이 참관 (놀이의 흐름 관찰지원)

4) 활동방법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1) 하루일과를 유아가 정한다. (4월, 6월, 11월 점검예정)

① 변경 전 하루일과 vs 변경 후 하루일과 (몰입하는 놀이의 종류에 따라 시간 등의 자원을 변경한다.)

시간	활동		시간	활동명	방법
07:30 ~ 09:00	등원 및 통합보육	← 변경 전	07:30 ~ 09:00	등원 및 통합보육	-
09:00 ~ 09:20	오전간식		09:00~11:00	실내 자유놀이 및 오전간식 (자율배식)	오전간식 배식 9:00 자율배식으로 놀이 중 간식 식사 후 정리 정리시간 9:40
09:20 ~ 10:50	실내자유놀이				
10:50 ~ 12:00	실외자유놀이		10:50 ~ 12:00	실외자유놀이	실외놀이 시간에 놀이와 관련된 바깥놀이를 진행함. 유아들이 놀 잇감을 선정하거나 함께 협의함.
12:00 ~ 13:00	점심시간 및 이 닦기		12:10~12:50	점심시간 및 이 닦기	식사에 필요한 시간을 협의하여 정함.
13:00 ~ 14:30	실내자유놀이		12:50~15:00	실내 자유놀이 (특별활동)	오전 놀이를 연계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추가하여 놀이를 진행함.
14:30 ~ 14:50	활동				
14:50 ~ 15:20	오후 간식		15:00~15:20	오후 간식	오후간식 시 놀이가 진행되던 놀 잇감을 완전한 정리가 아닌 부분 정리 후 식사 후 놀이를 진행함.
15:20 ~ 16:00	실내자유놀이 기본보육 하원		15:30~16:00	실내자유놀이 기본보육 하원	놀이를 마무리하며 기본보육 하원 을 진행함.
16:00 ~ 19:30	유아반 연장보육 통합보육 및 귀가		16:00 ~ 19:30	유아반 연장보육 통합보육 및 귀가	보육실이 통합반으로 운영되어 놀 이를 연장하여 진행하고 낮은 연 령도 함께 놀이를 진행하도록 놀 잇감을 공유함.

▶ 하루일과 협의 시 지켜야 하는 필요시간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유아에게 필요한 하루일과를 계획하였다.
(자유놀이시간&실외놀이시간의 확보, 점심식사 및 특별활동 시간의 배분, 오전, 오후 통합보육 시간의 한계점 제시)

② 놀이주제 및 주요놀이에 따라 당일 오전 및 하루 전 수정 가능함을 전제로 유아들에게 하루일과 결정권을 부여한다. (큰 틀의 하루일과는 유아가 정하고 일과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다.)

③ 필요한 공간을 유아가 선택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날씨, 놀이에 따라 필요한 물적요소를 유아가 주도하여 찾고 교사는 유아의 의견에 따라가는 방법으로 놀이 지원을 한다.

④ 교사는 인적자원 및 직접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항상 고민하고 이를 놀이안에 담아내도록 한다.

2) 유아가 변경하는 하루일과와 자원

▶ 놀이는 시간이야 (하루일과 정하기) - 4월

: 토론방법으로 반 구성원과 함께 협의하여 놀이에 필요한 하루일과를 변경한다.

4월 교사장학 주제 : 놀이를 기록하는 보육일지1 (의미있는 기록의 힘)	
장학 내용 및 반영 내용	주간보육일지를 작성하면서 매일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지원계획을 세워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와 유아들의 놀이가 성장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 보육일지에 나타나는 놀이와 지원 방향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음. → 유아들의 놀이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자주 나왔음을 소개하며 유아들의 생각을 반영한 하루일과를 계획해보고자 교사장학 시 교사의 놀이방향성을 소개하였다.

4월 놀이주제 : 꽃		
기간	놀이소주제	주요놀이
4월 1주	봄꽃 종류 / 식목일	꽃 놀이, 점토놀이
4월 2주	꽃의 구조	모형 꽃으로 놀이하기
4월 3주	꽃의 성장	우리가 심은 꽃 관찰하기
4월 4주	꽃사세요 봄꽃이요	색종이로 꽃 선물하기

놀이의 흐름 및 유아 요구도			
			
▶ 놀이가 끝나지 않았는데 정리정돈해야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표현함. ▶ 블록을 쌓고 내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숨기거나 종이접기한 결과물을 전시하는 전시대로 활용함.		▶ 봄꽃 모형으로 소꿉놀이, 봄꽃음식점 놀이를 진행함. ▶ 놀이하던 놀이 결과물을 보관하거나 전시하며 성취감을 갖음.	

하루일과 토론 진행 (4월)			
			
그룹 토의 (하루 일과 정하기)	찬반 투표 토론하기 (기본 하루일과 결정하기)	우리가 정한 하루 시간표에 따라 놀이하기 → 필요한 시간을 추가하거나 분배하는 방법 알기	

교사의 지원	하루일과는 변화할 수 있음을 유아들의 인식이 변화하도록 토론을 진행하였고 매일 일어나는 주요놀이를 파악하고 시간을 분배하고 조절하도록 안내하였다.
유아의 반응	놀이를 긴 시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놀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가능한 놀이자료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거나 전시하여 놀이를 연장할 수 있으니 놀이에 대한 몰입이나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남.

▶ 놀이는 공간이야 (놀이공간 정하기) - 5월

: 종이접기를 하던 유아 “오늘은 종이비행기 놀이를 해볼래요.”

: 복도에서 종이비행기 날리던 유아 “바람이 부는 곳에서 비행기를 날리면 더 잘 날아가겠죠?”

→ 다양한 놀이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 후 2담임 중 1담임의 지원으로 공간이동, 실외놀이 공간 변경

5월 교사장학 주제 : 놀이를 기록하는 보육일지2 (영유아 놀이 지원을 위한 관찰과 기록)	
장학 내용 및 반영 내용	보육일지와 관찰일지의 작성법을 알아보고 각 개별 유아 및 반 구성원이 필요한 놀이 자원을 파악하였다. 지난달에 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제공한 뒤에 5월에는 공간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놀이에 필요한 공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5월 놀이주제 : 어린이날&어버이날 / 공기와 바람 / 교통기관 놀이		
기간	놀이소주제	주요놀이
5월 1주	어린이날&어버이날	종이접기 / 비행기 날리기
5월 2주	공기와 바람 (1)	바람 실험 놀이 / 비행기날리기
5월 3주	공기와 바람 (2)	바람 실험 놀이 / 풍향계 설치하기
5월 4주	공기와 바람 (미세먼지)	대기오염 알아보기 / 미세먼지측정기놀이
5월 5주	교통기관 놀이(표지판)	표지판 찾기 놀이 / 자동차길 놀이

놀이의 흐름 및 유아 요구도			
			
▶ 교실 문 앞에서 스카프를 이용한 신체놀이를 함.	▶ 색종이로 비행기 접기를 반복함.	▶ 복도에서 종이 비행기 날리기 실험을 함.	▶ 유아가 원하는 실외놀이 장소를 정함.
			
▶ 교실 문 앞에서 자동차 길 만들기 놀이를 시작함.	▶ 교실 밖으로 길이 확장되어 놀이공간이 변경됨.	▶ 교실 책상 배치를 모두 바꾸고 바닥에서 놀이함.	▶ 자동차 길을 만드는 재료를 변경함.

교사의 지원	놀이에 필요한 공간적인 지원에 집중하며 교실, 교실의 비품의 배치, 복도, 유희실, 놀이터, 인근 공원으로 넓히며 공간의 지원을 하였고 유아가 필요한 공간을 선택하여 하루 놀이계획을 세우고 그 장소에서 놀이에 몰입하도록 지원하였다.
유아의 반응	놀이에 필요한 공간을 직접 정하고 이동하며 놀이할 수 있다는 자유를 만끽하며 놀이를 즐겼고 실내공간에서 자유롭게 놀이하는 유아들이 실외공간도 스스로 선택하여 바람이 잘 부는 장소를 찾고 바람놀이에 몰입하였다.

▶ 놀이는 자료야 (물적 자원 활용하기) - 6월

: 도로 구성 놀이, 자동차 굴리기 실험을 하는 유아 “여기에서는 계속 자동차가 미끄러져! 다른 건 없을까?”

: 높아진 기온에 실외놀이 시간이 적절하지 않음을 유아들이 파악하여 실외놀이시간을 이른 시간으로 변경

6월 교사장학 주제 : 놀이 키워드 (놀이의 다양성, 범위 알기)	
장학 내용 및 반영 내용	각 반에서의 예상 놀이 주제 키워드에 대해 공유하고 여러 놀이주제를 간접 경험하고 놀이확장 사례를 탐구해본다. → 만5세 반에서는 교통에 대한 놀이키워드를 갖고 활용가능한 물적자원(놀잇감, 가정 지원 등)을 최대한 넓히기로 하였다.

6월 놀이주제 : 교통기관 놀이		
기간	놀이소주제	주요놀이
6월 1주	바퀴&주차장	마을 구성하기, 차도 구성하기
6월 2주	일하는 자동차	직업과 관련된 자동차 놀이
6월 3주	친환경 자동차	다양한 교통기관 구성하기 놀이
6월 4주	자동차 여행	바다 구성 놀이 / 도로 구성놀이

놀이의 흐름 및 유아 요구도			
			
▶ 자동차 도로를 구성하는 자료를 유니트블록을 한정하여 사용하며 놀이를 시작함.		▶ 종이, 비닐, 천 등을 다양하게 요구하여 놀이 실험 자료로 제시하였고 책상도 도로 구성 자료로 활용함.	
			
▶ 도로를 구성할 수 있는 실제 도로와 비슷한 모형으로 지원하니 여행, 바다, 교통체증을 표현하며 놀이함.		▶ 교통질서, 표지판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유지되는 모습에 교통공원으로 현장학습을 진행함.	

교사의 지원	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놀이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원해주고자 유니트블록, 종이류, 천, 비닐, 책상, 도로모형 등을 양적인 제시를 하였다. 더불어 유아들에게 관심있는 관련된 장소도 함께 지원하며 경험이 양적, 질적으로 확장되도록 하였다.
유아의 반응	유아들이 물적 지원을 양과 종류를 확장하도록 하니 자동차 실험(경사로, 빠르기, 굴러가는 모습 등)을 다양하게 시도하였고 여행 경험을 극놀이로 표현하거나 교통질서에 대한 지식의 획득도 도모할 수 있었다.

▶ 놀이는 사람이야 (인적 자원 활용하기) - 7월

: 가정지원 사진을 보는 유아 “여기로 여행가보면 좋겠다~ ○○야 여기 가려면 얼마나 가야되?”

: 여행을 다녀온 유아 “비행기 타고 여행가봤어? 비행기 타면 귀가 느낌이 이상해져!”

7월 교사장학 주제 : 놀이지원과 반영적 사고 공유하기	
장학 내용 및 반영 내용	놀이를 관찰하며 놀이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 후의 놀이의 전개에 대해 공유하였고, 교사의 반영적 사고가 도입된 부분을 소개하였다. → 유아의 놀이의 교사지원 방향을 잘 결정하고 질적인 확장을 이루는 놀이 지원을 하고자 하였다.

7월 놀이주제 : 두근두근 세계여행 / 여름놀이		
기간	놀이소주제	주요놀이
7월 1주	여행계획	자동차 여행 놀이 / 종이접기(팽이)
7월 2주	여행준비	종이접기(팽이)
7월 3주	공항놀이	공항&비행기 놀이 / 팽이 시합
7월 4주	여름놀이	종이접기(팽이)

놀이의 흐름 및 유아 요구도			
			
▶ 자동차여행을 표현하고 도로 구성하는 놀이를 지속하는 유아들! 여행장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가정에서 지원을 받아 다양한 여행지의 모습을 보며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는 횟수가 많아짐.	
			
▶ 세계문화유산을 사진으로 제시하니 유적지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구성놀이를 표현함.		▶ 비행기를 타고 여행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유아들에게 그림자료, 음원 등을 지원하여 놀이가 전개됨.	

교사의 지원	매체를 사용하고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가정에서 지원을 요청하여 유아의 경험이 담긴 사진도 제시하였다. 더불어 놀이경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교실 한공간을 표현놀이 장소로 구성하도록 교구장으로 분리하고 재료를 지원하였다.
유아의 반응	포스터를 보고 모방하여 구성놀이를 하거나 직접 경험한 여행뿐만 아니라 상상속의 해외여행을 표현하며 놀이가 전개되었다. 실제로 해외여행을 가본 경험이 없는 유아들도 공항에서의 역할을 표현하거나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놀이로 몰입하기 (직접경험 찾기) - 8월

: 태풍예보를 함께 시청하던 유아 “강수량이 뭐예요?”

: 카누 모형에 배를 꾸며 놀이하던 유아 “배는 무거운데 왜 물 위에 뜨는 거지?”

8월 교사장학 주제 : 놀이 참관하기 (상호작용 관찰지원)	
장학 내용 및 반영 내용	다른 연령의 놀이 진행과정을 참관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었고 교사의 역할과 놀이의 진행과정, 환경구성 등을 관찰함을 통해 우리반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 직접 경험을 통한 놀이의 표현은 더욱 풍부하게 나타남을 인식하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8월 놀이주제 : 여름놀이 / 건강한 여름		
기간	놀이소주제	주요놀이
8월 1주	여름놀이	여름 날씨 놀이 / 종이접기(물고기)
8월 2주	여름(날씨)	자연재해 및 날씨 관측 놀이
8월 3주	바다	해양생물 놀이 / 바다 수영 놀이
8월 4주	수상스포츠	카누 놀이 / 배 낚시 놀이
8월 5주	운동	헬스장놀이 / 공 놀이 / 종이접기(미니카)

놀이의 흐름 및 유아 요구도			
			
▶ 비가 오는 날씨, 직접 강수량 측정 실험을 제시함.		▶ 배낚시 놀이를 하는 유아들과 배 띄우기 실험을 함.	
			
▶ 해양생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생물의 종류와 생태에 대한 관심을 직접 아쿠아리움을 방문해 경험하도록 지원함.			

교사의 지원	유아들의 놀이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접 경험에 집중하며 지원하였다. 강수량 측정 실험, 배 띄우기 실험, 해양생물 직접 관찰하기로 놀이 관심에 따라 놀이와 활동경험을 제시하였다.
유아의 반응	놀이 관심사에 따른 개념이해가 쉽게 이루어지고 자연현상이나 생물의 생태에 대한 궁금증이 깊어짐을 알 수 있었다.

▶ 자료(놀이감) - 9월

- : 마을 구성하기 놀이를 하는 유아 “우리 동네에도 마트도 있잖아! 우리 아파트 앞에 ○○○마트!!”
- : 생선가게 놀이를 하던 유아 “아쿠아리움에 전기뱀장어 있었는데, 마트에서도 팔까?”
- : 유희실에서 축구하던 유아 “축구할 때 다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앉아서 하는 축구 어때?”

9월 교사장학 주제 : 영역별 놀이지원 (교사의 반영적 사고)	
장학 내용 및 반영 내용	교실에서 교사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놀이의 종류(놀이영역)를 발견하고 지원계획을 세워 실천한 후의 반영적 사고를 공유한다. → 교실에는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의사소통, 자연탐구의 영역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관심을 바탕으로 놀이지원해보고자 한다.

9월 놀이주제 : 우리가 사는 곳		
기간	놀이소주제	주요놀이
9월 1주	우리동네	지도 놀이 / 건물구성 놀이 / 축구놀이
9월 2주	시장(마트)놀이	마트놀이 / 푸드트럭 / 축구놀이
9월 3주	우리동네 전통 - 예상놀이	-
9월 4주	우리나라 전통(추석) - 예상놀이	-

놀이의 흐름 및 유아 요구도			
			
▶ 아쿠아리움에서 본 해양생물로 시작한 생선가게놀이!	▶ 인근 마트로 방문해서 파는 물건이나 상인의 모습을 직접 관찰함.	▶ 판매물건을 담을 장소가 필요해요! (종이집 만들기 제시)	▶ 사세요~ 사세요~ 생선도 있고요, 신발도 있고요,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 교실 밖 놀이 (미니카 놀이, 축구 놀이, 손 축구 놀이, 축구장 구성하기)가 유아의 흥미에 따라 변화하며 진행되었고 교사가 놀이방법을 제시하거나 유아가 원하는 자원을 지원하며 놀이를 변형시킴.			

교사의 지원	관심의 변화를 느끼고 놀이 방향성을 지원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놀이재료를 지원하였다. 유아들이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트 방문, 시장놀이 원내 행사로 지원하였다.
유아의 반응	판매하는 물품을 섞어서 놀이하다가 분류하거나 간판을 직접 만드는 등 놀이가 이루어졌고 신체놀이하는 유아들이 대근육 이외의 소근육 놀이도 진행하였다.

3) 유아가 몰입하는 놀이

2시간 이상 지속하는 놀이 (점심식사 시간 전까지로 연장하여 놀이시간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놀이)

공간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놀이 (복도, 유희실, 교구장으로 분리한 장소, 평소에 가지 않던 인근 공원 등)

새로운 매체로 제시되는 놀이 (종이접기 매체 영상으로 제공, 디오라마 배경, 종이집 가게놀이 등)

정리하지 않고 보관하며 연장하는 놀이 (보관하는 장소를 정하지 않고 교실 주변에 보관하며 지속하는 놀이)

유아의 직접경험을 바탕으로 한 놀이 (보관하는 장소를 정하지 않고 교실 주변에 보관하며 지속하는 놀이)

III. 활동평가

★ 하루일과 등을 유아가 주인이 되어 조절하며 나타난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함.

1) 놀이의 변화

① 연간 보육계획의 변화

- 첫 1~2개월은 유아들의 놀이에 대한 흥미도를 반영하기도 하였지만 새로운 교실환경과 놀이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세운 연간계획을 따라갔다.
-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에 대한 흥미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매 월, 매 주의 놀이주제를 변경하였고 유아들의 주요 놀이에 따라 관련 주제를 선정하고 소주제를 변경해 보았다.
- 변화하는 유아의 흥미도에 따라 놀이주제를 변경하며 교실을 운영하고 유아의 관심놀이(종이접기, 운동경기 관련 놀이 등)도 인정하여 함께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자원(교사의 배치, 놀이자료 제공 등)을 활용하였다.
- 교실 안에서 연 초에 진행하는 교실에 계획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변화할 수 있는 것임을 교사 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인식하도록 변화하였다.

2023학년도 만 5세 연간 교육계획안

월	주제	매상놀이	월	주제	매상놀이
3	봄	꽃은 봄의 꽃 꽃이 봄에 피어났 단단한 놀이 방법 꽃의 반 고흐 봄꽃과 곤충	9	우주 과학에 대한 우리가 사는 곳	우주과학-행성 관찰놀이 우주과학-행성 관찰놀이 우주과학-행성 관찰놀이 우주과학-행성 관찰놀이
4	봄	봄꽃 놀이 꽃의 곤충 꽃의 곤충 꽃의 곤충	10	수확	수확 놀이 농작물 놀이 농작물 놀이
5	봄 자연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우주과학 자연과학-우주과학 자연과학-우주과학 자연과학-우주과학	11	환경	환경 놀이 환경 놀이 환경 놀이
6	봄 과학 과학	과학-우주과학 과학-우주과학 과학-우주과학 과학-우주과학	12	겨울 놀이	겨울 놀이 겨울 놀이 겨울 놀이
7	봄 자연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우주과학 자연과학-우주과학 자연과학-우주과학 자연과학-우주과학	1월	새해 놀이	새해 놀이 새해 놀이 새해 놀이
8	봄 자연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우주과학 자연과학-우주과학 자연과학-우주과학 자연과학-우주과학	2월	봄 놀이	봄 놀이 봄 놀이 봄 놀이

② 놀이의 몰입도 평가

- 유아가 원하는 놀이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종이접기를 선호하는 유아들이 비행기, 팽이,

해양생물, 미니카, 동물 등으로 주제에 따라 종이접기의 종류와 분야도 변화하고 있고 접는 방법과 매체의 선택도 스스로 주도하여 진행한다. (사용하는 매체는 도서관에서 웹검색이나 영상을 요청하여 제공하고 있다.)

- 놀이 전시하는 장소를 교실의 군데군데 유아가 스스로 전시하고 보관하며 놀이를 연장한다. 하루 동안 한가지의 놀잇감으로 놀이를 하는 유아들도 있었고 놀이시간 및 정리시간도 스스로 조절하며 차후의 놀이방향도 계획할 수 있다.
- 놀이에서 새 놀이로 변화하는 과정을 유아가 직접 참여하고 키워드를 찾아 교사에게 요청한다. 예를 들어 마을 구성하기 놀이를 하다가 우리마을, 동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우리 동네에 대해 알아보는 놀이주제로 변경하여 새로운 놀이를 시작한다. 매 주차별, 매 월별 새로운 놀이에 대한 교사의 관찰과 유아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반영하였다.

③ 유아 주도적 성향에 대한 평가

- 교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유아가 스스로 꺼내어 사용하고 정리하는 방법도 유아가 정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하루 동안 정리정돈을 하지 않고 놀이를 하여도 유아들이 스스로 불편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정돈하는 습관도 길러지는 모습이다.
- 유아가 진행하는 놀이의 진행시간이나 마무리시간을 정할 수 있고 교사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전반적인 놀이진행에 대한 결정을 유아가 스스로 한다.
- 필요한 놀이자료를 가정에서 지원을 받도록 스스로 요청하여 가지고 등원하거나 교사에게 요청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바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은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놀이를 진행하고자 한다.
- 공간의 이동이나 놀이시간의 변경에 대해 교사의 허락을 구하기보다 또래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의논하고 교사와 함께 결정하고자 소통한다.

2) 교실의 변화

① 환경구성의 변화

- 학기 초에는 놀잇감의 종류에 따라 교구장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 현재는 보육실 입구에는 복도나 유희실에서 하는 놀잇감이 위주로 배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블록을 배치한 교구장 중 하나를 흥미를 보이는 놀이에 대한 놀잇감을 보관하는 교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비어있는 바구니를 배치하여 수시로 보관하도록 함)
- 교구장이나 책상의 배치는 놀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고 복도에 의자를 옮겨 놀이하거나 교실에 책상을 치워 놀이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유아가 직접 옮길 수 있고 책상이나 교구장은 교사의 도움을 받도록 함.)

② 놀잇감의 변화

- 구조화된 교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비구조화된 놀잇감(재활용품, 자연물, 휴지나 비닐 등의 생활용품 등)을 활용하며 놀이에 사용한다.
- 놀이주제 별로 가정의 지원이 가능한 물품(사진, 재활용품, 놀잇감, 생활용품 등)을 흥미에 따라 요청하거나 유아가 직접 찾아서 등원하는 경우에 놀이자료로 활용한다.

- 새로운 놀잇감을 자주 교체해주기보다 교구장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유아들이 놀잇감을 변경하기를 요구하거나 놀이하고 싶은 놀잇감을 다른 교실에서 탐색하여 바꾸어 사용한다.

③ 학부모의 인식 변화

- 유아가 놀이에 필요한 물품을 요청할 때 큰 반응이나 지원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나 수시로 재활용품을 모아서 제공하거나 놀이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놀잇감, 재료를 지원해주는 변화가 생겼다.
- 놀이 주제에 관련된 장소에 주말동안 다녀오거나 가정에서 관련 놀이한 모습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공유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 가정통신문을 읽거나 주간 알람장을 읽고 난 후 댓글이 달리는 횟수가 늘어났고 놀이를 통한 배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교사의 변화

① 하루일과 + 놀이에 대한 인식 변화

유○희 교사	하루일과는 교사가 정하고 운영해야하는 영역으로 생각했다. 유아들이 직접 정하고 운영함으로써 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진행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전반적인 놀이에 대한 자원을 유아가 주도할 때 놀이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짐을 알게 되었다.
변○영 교사	하루일과에 대해 특별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개정누리과정 이후 잘 놀 수 있는 시간의 확보, 유아들이 몰입도, 흥미의 지속 기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때 유아의 놀이는 더욱 빛이 나고 즐거운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조○기 교사	놀이 공간과 하루일과를 정하며 시작하는 하루에서 유아들의 자존감이 향상되어 놀이 시 새로운 도전과 놀이를 개척해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전의 이유로 공간의 허용에 소극적이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류○원 교사	전반적으로 교실안에서의 교사의 태도가 유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유아들은 놀이를 좋아하고 유아가 주인인 놀이가 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지속적으로 교사간 반별 놀이를 소통하는 장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중심을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
윤○정 교사	만5세 교실에서 놀이를 참관하기 전에는 하루일과는 유아들이 하루 일과를 정하고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실제로 참관했을 때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하루일과를 정했고 교실이나 놀이하는 장소의 분위기가 활발하고 적극적인 놀이가 이루어짐을 느꼈다.
이○현 교사	교사가 지원한 다양한 놀이 지원방향을 통해 무엇을 놀이할지 유아들이 직접 선택하는 모습이 교사가 어떻게 지원해주냐에 따라 유아들이 직접 놀이의 계획과 흐름을 선택하고 진행할 수 있음을 알았고, 교사의 태도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② 관찰 방법의 변화

보육일지 작성방법의 변화 (교사의 지원과 유아의 반응을 색깔로 표시하고 지원방향을 모색함)

개별 유아 지원 방법의 변화 (놀이 관찰을 바탕으로 개별 유아의 놀이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함)

③ 교사 장학 내용의 변화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고찰을 위한 장학
(놀이중심 보육과정 배우기)



영유아가 만드는 놀이와 환경 &
유아 자율성, 주도성을 높이는 놀이를
발견하는 교사의 역할 높이는 장학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2024년 연간프로그램 계획

① 놀이 주도권을 갖게하는 교사 장학 프로그램

▶ 교사는 놀이중심보육과정의 큰 틀에서 보육과정을 운영하며 영유아의 놀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놀이주제를 찾거나 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한다. 놀이를 통해 유아가 각 발달영역의 발달을 도모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교사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매 월 진행하는 교사장학프로그램을 영·유아 중심의 놀이와 영·유아 중심의 보육 과정이 되기 위한 재교육과 장학프로그램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②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놀이지원 프로그램

▶ 영·유아는 나와 관련있는 자원이 도입되었을 때 더욱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배움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중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놀이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자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놀이주제와 관련된 가정의 지원과 어린이집으로의 가정지원이 투입될 때 더욱 긍정적인 놀이중심, 영유아 중심의 보육과정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③ 낮은 연령으로 프로그램 실시 확대

▶ 현재 만5세를 대상으로 하루일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질적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꾀하고 더 나아가 낮은 연령도 유아가 참여하고 정하는 주도적인 놀이 운영. 교실의 운영을 하기 위해 연령과 반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④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의 지원 확대 모색

▶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하고 영·유아들에게 놀이몰입도가 높은 효과적인 방법을 통한 지원을 하고자 해야한다.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지역사회, 놀이관련 직업 등) 뿐만 아니라, 물적자원(놀이 자료, 공간이나 장소, 시간 등)도 아낌없이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V. 참고문헌

1. 이재영, 강향숙(2022), 자유놀이에서 유아 놀이 주도성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Q방법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2-4.
2.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 2019 개정 누리 과정 해설서, 서울: 교육부, 보건복지부.
3. 김균희, 송요현(2017), 놀이환경이 유아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정 및 육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2-4
4. 황혁, 나종혜(2016), 어린이집 유아반 하루일과 유형과 물리적 보육환경과의 관계 탐색. 50-51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우수상>
시립역북동원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국공립
지 역	용인시
프로그램명	구해줘! 면역력
총 괄	김은경
기획 및 운영	이선미

1.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질병관리청이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눈곱을 동반한 감기 증상인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높게 나타나 위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6세 이하의 영유아가 89%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같은 기간 대비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영유아 외출 전후, 기저귀 교환 후, 물놀이 후, 음식 조리 전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혼잡한 장소를 방문하는 등에는 가급적 마스크 쓰기 등 위생 수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열린뉴스통신,2023)

‘음식 섭취 어려워 ‘탈수’ 조심해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3~5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손바닥이나 손가락 옆, 발, 입 안 등에 수포가 생겨난다. 수포는 엉덩이, 팔뚝 등에 나타나기도 하며, 발열,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수족구병은 백신도, 근본적인 치료도 없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통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감염은 환자의 물건을 만지거나 분변 접촉, 침·호흡기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입으로 들어가면서 이뤄진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위생이 중요한데 이때 코로나19처럼 알코올 손소독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세계일보,2023)

최근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해줘! 면역력’ 활동을 통해 영유아들 또한 자신이 일상생활 속 여러 감염병 및 질병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다. 또 주변의 다양한 놀이를 통해 면역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놀이로 지원을 해준다면 내 몸과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신체 조절 능력의 향상 및 질병을 예방 할 수 있는 면역력 증진의 전체적인 방법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길 기대해본다.

따라서, ‘구해줘! 면역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자신의 몸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질병을 예방한다.
- 2) 균형 잡힌 식습관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한다.
- 3) 일상생활 속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기초체력을 향상시킨다.
- 4) 위 목적들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면역력 증진을 포함한 신체 건강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갖는다.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이론적 배경)

① 시기적절성

최근 몇 년간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covid-19 등의 바이러스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질병에 노출이 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후유증을 앓기도 하고 심하게는 생명을 잃는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물론 이러한 질병들을 대항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백신들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일상생활 속 어떠한 질병들이 또 발생이 되고 인류에게 위협으로 다가올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100세 시대에 맞게 미래의 큰 역할을 할 유아들이 앞으로의 질병들에 대비 할 수 있도록 ‘구해줘! 면역력’은 우리 스스로부터 면역력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하길 기대하게 된다.

② 요구도

만 5세반의 끈 놀이에 관심을 보이던 만 4세 유아들. “선생님! 저도 줄넘기 하고 싶어요!”, “우리도 끈으로 줄넘기를 만들까?” 그 중에서도 끈을 이용한 줄넘기 놀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교사는 유아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줄넘기를 제공해주기도 하였고 가정에서의 지원을 받아 줄넘기를 가져온 유아들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하루도 빠짐없이 놀이 시간에는 ‘줄넘기 ZONE’이 비치되어 있는 복도로 나가 차례차례 질서를 지켜 놀이를 하던 유아들이었는데 그때 한 유아가 “줄넘기를 하면 키도 커지고 몸이 튼튼해진대!”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유아들은 몸이 튼튼해지는 다양한 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OO이는 감기에 걸렸대. 덩다고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돼.”하며 몸이 아파 결석을 한 친구들을 보며 질병 예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이에 교사는 유아들의 흥미를 고려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놀이 지원을 고민하였고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나 몸을 튼튼하게 하는 면역력 증진을 놀이에서 지원하고자 한다.

③ 이론적 배경

건강은 생존의 조건일 뿐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다.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호조건에서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없으며, 건강하다고 하는 최대의 조건은 사회생활에서의 활동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생명의 유지에 불안감이 없는 것은 물론, 사회생활에서의 왕성한 활동능력,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건강의 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한명규 2003).

건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폭넓은 의미로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건강보건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2009. 7. 31., 노영희, 홍현진)



<건강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

II.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 1) 활동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8월
- 2) 활동대상 : 만 4세 유아
- 3) 프로그램 연간

◆ 통합 연간계획안 (만4세) ◆

월	주제	소주제	월	주제	소주제
3	우리 원과 친구	원에서의 새로운 환경	9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우리 반의 하루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
		우리 반에서 만난 친구들			차별스러운 우리나라
		원에서 만난 선생님			우리나라 전통 명절 '추석'
4	봄	함께 만드는 우리 원	10	가을	가을 날씨 느끼기
		지역사회 연계			가을 풍경 즐기기
		- 우리 원 주변 산책			풍성한 가을 곡식과 열매
					가을 나뭇잎
5	나와 가족	- 꽃집 방문	11	환경과 생활	생활 속 온
		지역사회 연계			생활 속 온과 흙
		나의 꿈과 마음			생활 속 바람과 공기
		소중한 나			생활 속 소리
6	모든 것은 연결	소중한 가족	12	겨울	생활 속 빛
		다양한 가족의 생활과 문화			겨울 날씨와 생활
		지역사회 연계			신나는 겨울 놀이
		- 우체국에서 편지 부치기			이웃과 함께하는 겨울 / 성탄절
7	마음 온은 연결	-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2024 1	새해 / 생활도구	한 해의 마무리
		즐거움 놀이			지역 소장서
		내 마음을 표현해요			새해가 되었어요
		건강한 여름 놀이			다양한 생활도구
8	함께 만들어 가는 연결	- 마트에서 물건 구매 (롯데마트)	2024 2	수요	생활도구를 움직이는 힘
		즐거움 놀이			다양한 미디어
		내 마음을 표현해요			이만큼 성장했어요
		건강한 여름 놀이			동생들에게 알려주어요
	지역사회 연계	- 어린이급식관리 센터 방문		지역사회 연계	즐거웠던 우리 반
		친구들과 실천해요			7세 반에 가요
		가족들과 실천해요			- 박물관 방문
		연말연시 준비해요			- 미술교육관
	지역사회 연계	동네에서 찾는 우리 건강 1			
		동네에서 찾는 우리 건강 2			
		- 지하철타기			
		- 입실화재교정방문			

4) 활동방법

· 진행단계

준비, 설정, 계획, 실행, 평가 5단계를 기준으로 교사회의를 통한 프로그램 계획, 주제 및 구성 잡기, 다양한 프로그램 놀이를 위한 자료 수집, 유아들과의 프로그램 실행, 교사회의 프로그램 평가 및 가정연계 놀이신문 등의 과정으로 유아들과의 「구해줘! 면역력」 놀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한다.

단계	내 용	기간
1. 준비	교사회의를 통한 프로그램 계획	5월
2. 설정	프로그램 주제 및 구성 잡기	
3. 계획	자료 수집	6~8월
4. 실행	<유아들과의 프로그램 실행> -원에서 함께 하는 면역력 증진 -가정에서 실천해보는 면역력 증진 -지역사회에서 찾는 건강    <친구들과 하는 요가> <가족들과 클라이밍>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 평가	교사회의 프로그램 평가 가정연계 놀이신문   	9월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원에서 함께하는 면역력 증진

▶ 줄넘기를 이용한 놀이

만 5세반은 끈 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확장해나가 복도에 줄넘기존을 만들어 줄넘기 놀이를 시작하였다. 그것을 본 만 4세 유아들은 “선생님 저도 줄넘기가 하고 싶어요!”라며 관심을 보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줄넘기 놀이가 시작되었다. 놀이를 하다 보니 줄넘기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줄넘기로 모양 만들기’, ‘줄넘기 거미줄 놀이’, ‘전깃줄 놀이’등으로 확장이 되며 만 4세반에게 관심을 보이는 만 3세 동생반을 위해 줄넘기 체험관을 열어 시범을 보이고 알려주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복도에 만들어 놓은 ‘줄넘기존’에 흥미를 보이며 줄넘기존에서의 놀이가 시작되었다.



‘줄넘기로 다른 놀이도 해보자!’ 한 유아의 말에 유아들은 삼삼오오 모여 교실을 넓게 만들고 줄넘기로 할 수 있는 여러 놀이를 생각해보며 친구들과 함께 모양 만들기, 전깃줄, 거미줄 놀이 등을 하게 되었다.



우리 반 놀이에 관심을 보이는 동생 반을 위해 “우리가 알려주자!”라는 의견이 나와 직접 초대장도 만들고 ‘줄넘기 체험관’을 만들어 줄넘기의 장점이거나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 신체 측정 놀이

줄넘기 놀이에 폭 빠진 유아들. 그때 한 유아가 “줄넘기 하면 몸도 튼튼해지고 키도 커진대!”라는 말을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아들은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키 측정기를 이용해 키를 재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키가 달라”, “내 키가 어디였었지?”하며 문제가 시작되어 측정한 곳에 붙일 수 있는 이름표를 만들고 발판과 줄자의 선도 표시했어요.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태권도 띠를 꺼내 친구들의 신체를 측정하는 유아. 새로운 측정법에 흥미를 보이던 유아들은 교실에 있는 우유갑, 벽돌블록 등과 같은 사물을 신체 옆에 나열해보며 측정놀이를 확장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체를 움직이면 역시 측정 결과가 달라져 유아들은 교사에게 큰 종이가 필요하다는 요청하였다. 교사가 지원해 준 자료를 이용해 누워만 있으면 신체를 측정할 수 있는 신체측정판을 만들었으며 내용을 기록 할 수 있는 기록지도 제공을 해주니 놀이가 계속하여 진행되었다.



교사의 놀이지원

- 좀 더 정확한 신체측정도구를 원하는 유아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측정 시 필요한 이름표가 구겨지지 않도록 코팅을 해주었고 잘 부착될 수 있도록 뒷면에 벨크로를 붙여주었다.
- 생활 속 물건을 이용해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여 신체측정판을 만들 수 있는 유아들의 키보다 큰 상자과 기록을 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신체측정기록지를 만들어 지원해주었다.

놀이평가

줄넘기를 넘어 성장을 하는 신체에 대해 흥미와 호기심을 보이며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측정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탐구하고 놀이로 진행해 볼 수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유아와 교사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완해나가며 놀이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었고 서로의 신체를 측정해주는 과정에서 일상에 필요한 협동심 또한 기를 수 있었다.

▶ 우리가 만드는 운동

줄넘기놀이와 신체측정에 이어 계속해서 몸을 이용한 놀이에 즐거움을 느끼는 유아들. 그때 한 유아가 “그런데 운동하면 키가 더 커져! 우리 키 커지라고 운동하자!” 하며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는 운동을 탐색 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나처럼 해봐라~” 한 유아가 요가동작을 선보이니 주변에 있던 유아들도 “나는 태권도 다녀!”하며 태권도를 보여 주기도 하고 “나는 다리 찢기도 할 수 있는데”하며 신체표현을 하기 시작한다.



★교사의 고민

“그럼 유아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운동에 흥미를 보일까?”, “유아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떠올라 고민을 하고 유아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하여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발표를 통해 유아들의 자신감 향상은 물론 운동선호도를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운동들을 알게 된 유아들은 “운동 페스티벌을 열어요!”라고 놀이 제안을 하였고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운동페스티벌을 만들어 열고 참여하게 되었다.



유아들이
만든 ‘운동
페스티벌’
간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소개합니다.



좋아하는 운동 소개를 시작으로 내가 몰랐던 운동들도 새롭게 알게 되고 다양한 운동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유아들이었다. 그 중 유아들이 직접 움직임으로 표현해보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몇몇 운동을 알아보며 ‘운동 페스티벌’도 시작해보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도 지원해주었다.



우리 엄마가 하는 요가!
친구들과 선생님이 만든
요가, 체조 존에서 해보자!



집에서 엄마가 하는 요가를 본 기억이 난 유아가 동작을 보여주니 “나도 할 수 있어!”하며 서로의 동작을 뽐내기 시작한다. 유아들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여 요가&체조 존을 만들고 난이도에 따른 동작 자료를 그림으로 제공해주었다. 또한 동작을 어려워하는 유아들을 위해 교사나 친구들이 코칭해주는 요가&체조 시간도 따로 마련하여 놀이하였다.



교실에 있는 리본을 발견한 유아들이 체조에 관심을 보이며 놀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이하고자 하는 유아들에 비해 개수가 부족하여 교사는 리본 만들기 자료를 지원해주었고 나만의 리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지원받은 공을 이용해 어떤 놀이를 할지 의견을 모아보았다. 유아들은 “농구를 해요!”, “축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럼 패스 연습도 하자.”라는 생각들이 모여 유아들의 요구를 반영해 함께 놀이장을 구성하였고 놀이해보았다.

가족들과 볼링을 즐긴 친구의 경험을 듣고 관심을 보이는 유아들.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며 볼링대를 만들 때 도움을 주니 어느새 멋진 볼링장도 완성!



교사의 놀이지원

- 좋아하는 운동 소개를 위해 사전에 유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발표 ppt를 제작해주었다.
- 요가, 체조존의 공간을 제공해주며 난이도 별 동작 자료들을 게시해주었다.
- 리본체조에 필요한 나무젓가락, 리본 등을 지원해주었고 볼링대 만들기에 필요한 큰 상자, 볼링핀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요구르트병을 지원해주었다.

놀이평가

부모님의 모델링, 원 또는 가정에서 볼 수 있던 운동 용품 등을 이용해 다양한 놀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유아들 스스로가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해 소개해보며 그 속에 있는 운동에도 참여를 하니 더 흥미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놀이를 구성해가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다. 알림장을 통해 원에서의 놀이를 공유하니 가정에서도 여러 운동하는 모습들을 사진 및 영상으로도 제공받아 유아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의미 있었다.

* 가정에서 실천해보는 면역력 증진(가정연계)

원에서 유아들이 만들어 가는 ‘운동 페스티벌’을 진행하다보니 유아들은 가정에서 경험했던 연계활동을 놀이 중 자연스레 이야기하며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교사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실천해보는 면역력 증진 활동이 있다면 알람장을 통해 소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건강한 몸을 위해 필라테스, 클라이밍, 볼링, 태권도, 축구 등의 운동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유아들>



집에서도 밥을 골고루
먹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내 몸을 깨끗하게
씻은 후 뽀송한 피부를 위해
로션을 발라 보습도
해주었어요!

가정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면역력 증진을 위한 실천! 친구들과 공유할 방법은 없을까?



일상생활에서 진행되었던 놀이프로그램 연계 내용에 대한 소통이 증가하며 친구들의 놀이와 실천이 궁금해진 유아들이었다. 각자의 경험을 반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도 생기고 시야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에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야기로 표현하는 유아들도 있었고 직접 시범까지 보이며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유아들도 대다수였다. 그러한 친구들의 발표 덕분에 건강한 몸과 마음에 한 발자국 다가선 유아들이었다.

★놀이평가★

가족들과 실행해본 면역력 증진을 가정에서만 해보았던 경험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실천한 유아들도 그렇지 않았던 유아들에게도 큰 의미 없이 지나가는 활동 중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이 정보들을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인 언어적 상호작용이나 신체표현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니 일상생활 속 새로운 건강실천법도 알게 되며 즐거움도 함께 자라나 놀이 속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루어졌다.

▶ 청결한 내 몸

운동 뿐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한 유아들은 생활 속 청결로 확장이 되어 친구 손에 묻은 사인펜을 보며 “이렇게 손이 지저분하면 세균이 우리 몸으로 가!”라고 말한다. 그런 유아들의 관심도를 수용하여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방법을 실험으로 느껴보기도 하였다.

<물속으로 사라진 세균 실험>



빛의 굴절로 세균을 사라지게 하는 실험을 통해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 흥미를 느껴보았다. 지퍼백에 자신의 손바닥을 따라 그린 후 종이에 세균을 자유롭게 상상하여 표현해본다. 그 다음 지퍼백 안에 세균이 그려진 종이를 넣고 그대로 물에 쏙 넣은 후 위에서 바라본다.
빛의 굴절로 인해 사라진 세균을 발견하며
“우와~ 진짜 세균그림이 어디로 갔지?” 하고 신기해하는 유아들이었다.



<후추 비누 실험>



물에 후추를 풀어 손을 넣으면 손에 후추가 다 붙어버린다. 그러나 손세정제를 바른 후 물에 다시 넣으면 후추가 손세정제에 묻은 손가락을 피해 가는 모습을 발견 할 수 있다. 이 실험 속에서 손 씻기 과정 중 비누가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으며 비누로 깨끗하게 손을 씻는 유아들의 모습이 발견되었다.

교사의 놀이지원
- 손에 있는 세균에 관심을 보이는 유아들을 위해 손 씻기의 중요성을 놀이로 느껴볼 수 있도록 두 가지 실험을 지원해주었다.
놀이평가
손 씻기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습관화가 되지 않아 실천으로 옮기기 힘들어하는 유아들도 있었다. 그러나 위 실험들 특히 ‘후추 비누 실험’을 통하여 유아들은 세균이 손 비누를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확인 후, 손 씻기의 중요성은 물론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도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몸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찾는 건강

▶ 골고루 섭취하는 영양소(지역사회연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번 ‘구해줘! 면역력’ 프로그램을 지역사회로 연계하여 유아들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견학을 가보았다. 그 곳에서는 우리 몸을 좋은 영양소로 채워주는 식재료를 이용해 ‘사과 깎두기’를 만들어 보았고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이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놀이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체험해보는 요리교실 ‘사과깎두기 만들기’ 활동



-놀이체험관에서 여러 가지 놀이로 느껴보는 영양소 섭취의 중요성



견학을 다녀온 이후로 점심을 먹을 때마다 “나는 오늘 싹싹이 해야지! 영양소를 다 먹을 거야!”, “밥은 탄수화물이야!”, “이 계란은 단백질이잖아!”하며 생활 속에서 영양소를 찾아보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유아들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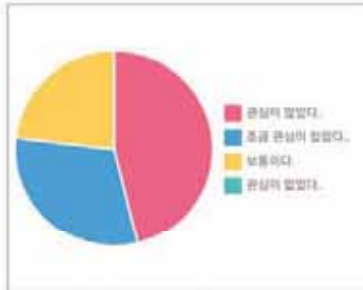
또한 영양소에 대해 관심이 커져 견학 장소에서 본 식품구성자전거를 회상하며 5대 영양소 퀴즈도 하고 오늘 내가 섭취한 영양소도 체크를 하며 골고루 먹는 식사의 즐거움을 느껴보았다.

교사의 놀이지원
- 교사회의를 통해 여러 교사들과 함께 프로그램과 관련 된 지역사회연계 활동을 조사하고 계획하였다. -영양소 섭취에 흥미를 보인 유아들을 위해 ‘식품구성자전거’ 게임판을 지원하여 그 속에 들어 갈 음식들을 유아들과 함께 표현해보고 게임을 진행하였다. -점심시간에 나오는 반찬을 보며 어떤 영양소인지 맞추어 보는 유아들을 위해 유아들이 더욱 즐거움을 느끼고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영양소 체크판’을 지원해주었다.
놀이평가
평소 편식을 많이 하던 유아들도 지역사회연계활동을 계기로 다양한 음식과 영양소를 찾는 데에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를 연계, 확장해 생활 속 유아들의 관심이 지속 될 수 있도록 게임과 체크판으로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니 유아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골고루 먹는 식습관이 실천될 수 있었다.

III. 활동평가

1. '몸 튼튼 마음 튼튼 면역력' 놀이를 하기 전 유아들의 관심도 정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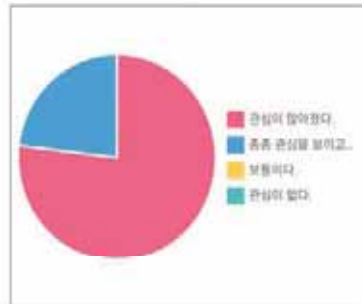
출기기 취소 | 답을 초기화



응답	응답수
관심이 많았다.	6 46.2%
조금 관심이 있었다.	4 30.8%
보통이다.	3 23.1%
관심이 없었다.	0 0%

2. 놀이를 진행하며 유아들의 관심도는 어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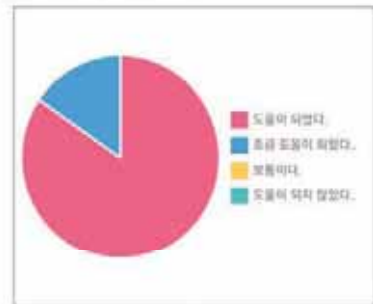
출기기 취소 | 답을 초기화



응답	응답수
관심이 많아졌다.	10 76.9%
종종 관심을 보이고 있다.	3 23.1%
보통이다.	0 0%
관심이 없다.	0 0%

3. 해당 놀이 프로그램이 유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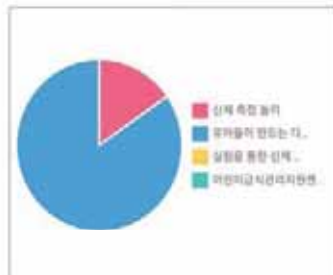
출기기 취소 | 답을 초기화



응답	응답수
도움이 되었다.	11 84.6%
조금 도움이 되었다.	2 15.4%
보통이다.	0 0%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0%

4.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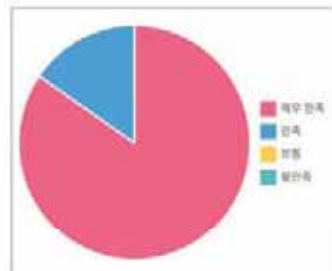
출기기 취소 | 답을 초기화



응답	응답수
신체 측정 놀이	2 15.4%
무엇들이 만드는 다양한 운동	11 84.6%
실황을 통한 신체 정교	0 0%
마음마음치관리지원센터	0 0%

5. 어린이집 '몸 튼튼 마음 튼튼 면역력' 프로그램을 평가한다면?

출기기 취소 | 답을 초기화



응답	응답수
매우 만족	11 84.6%
만족	2 15.4%
보통	0 0%
불만족	0 0%

<학부모 프로그램 활동평가 결과>

처음 유아들의 프로그램 관련 관심도는 '관심이 많았다'부터 '보통이다'까지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유아들의 관심도는 '관심이 많아졌다'가 7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유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도움이 되었다'가 84.6%를 차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되었는가는 질문에서는 '유아들이 만드는 다양한 운동'이 84.6%로 가장 높았으며 프로그램 자체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이 84.6%로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놀이프로그램 놀이신문>

유아

유아들이 줄넘기, 볼링, 요가 등과 같은 관심이 있던 신체활동에 참여를 하며 기초체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놀이를 스스로 만들고 즐기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개인이 하던 놀이에서 반 전체 유아들이 참여하는 놀이로 확대가 되며 신체적 건강은 물론 놀이를 즐기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정신적 건강의 상승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양한 작용이 골고루 이루어지게 되며 유아들 사이에 협동 및 협력심 또한 상승함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교사

유아들과 함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면역력과 관련된 놀이들에 관심을 갖고 탐색해가며 생활 속 놀이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건강을 위한 운동의 개념이 아닌 유아 중심 사고에서 생각하고 어떤 부분들이 흥미를 유발하는지, 그 흥미가 어떤 놀이로 연계 및 확장이 되는지, 놀이과정을 통해서 유아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고민하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 속에서 유아들의 놀이가 잘 진행되도록 이끌어가기 위해 계속하여 고민하고 소통하며 연구를 하였다.

부모

놀이신문(월별),알림장(주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한 달 동안 어떤 프로그램과 놀이들이 이루어졌는지 살펴 볼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유아들의 새로운 관심사나 모습들을 발견하였고 소통 할 수 있었다. 특히 여름이지만 유행처럼 번지던 감기를 항상 달고 살아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몸이 아픈 부분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 마냥 즐거워하는 놀이를 넘어 놀이 속 발견을 통해 건강이나 면역력에 대한 배움이 있어 더 인상이 깊었으며 유아들이 앞으로 인지하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을 놀이를 통해 느끼게 되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자체평가 및 학부모 변화>

일상생활 지원 놀이 '구해줘! 면역력' 프로그램 시행 후 놀이신문을 통해 유아들의 놀이과정을 가정으로 보내드리고 그 동안 어떤 놀이에 관심이 있었는지 이해 할 수 있도록 안내드렸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유아, 교사의 자체 평가와 학부모님들의 인식 개선 변화는 위 내용과 같다.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2024년 연간프로그램 계획

2023년 「구해줘! 면역력」 프로그램은 만 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면 향후 2024년에는 유아뿐 아니라 원내 영아 또는 교사들도 함께 참여를 하여 폭 넓게 확장해 나가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수록 면역력 뿐 아니라 영유아들의 사고 또한 건강해져 타인을 위한 배려와 같은 친사회적 요소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원내 활동을 넘어 가정에서도 놀이 흐름에 연관된 원활한 상호작용과 소통을 하여 가정연계로 나아간다면 좀 더 활발하고 구체적인 놀이진행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올해처럼 프로그램이 3개월로 이루어져 진행되기 보다는 1년 장기 프로그램으로 늘려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다면 영유아들 대부분이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을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나의 몸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다.

V. 참고문헌

- 노영희, 홍현진, 「건강보건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2009
- 김희선, 「질병관리청, 6세 이하 영·유아 ‘눈곱’ 동반한 감기 유행」, <<열린뉴스통신>>, 2023.08.22., <https://www.oney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77921>
- 정진수, 「‘난이도 상’ 유아 수족구병 예방 위해 알코올 소독만으로 OK? No[정진수의 부모 백과사전]」, <<세계일보>>, 2023.08.13.,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13503968?OutUrl=naver>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우수상>
시립종합복지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국공립
지 역	시흥시
프로그램명	태어난 김에 놀이일주
총 괄	이정순
기획 및 운영	이효은

1.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놀고 생각하며 배우는 행복한 영유아’라는 말은 영유아기 놀이의 중요성과 놀이의 교육적 가치 및 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놀이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특징은 즐거움이며 영유아에게 놀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껏, 자발적으로 해보는 즐거운 행위’이다. 놀이를 통하여 영유아들은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하며, 자기 주도 학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놀이에서는 놀이 결과보다 놀이 과정이 중요시되어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해보면 영유아가 놀이 도중에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하는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놀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끊임없는 창의와 도전을 경험하게 해준다. 그 결과 영유아는 창의적 문제해결의 즐거움을 알아가게 될 것이며 이러한 영유아 주도 놀이의 경험을 통한 발달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를 통하여 공감할 줄 아는 사회성이 길러진다.

놀이의 기본적인 방법은 ‘소통’과 ‘모방’이다. 이러한 소통과 모방은 ‘대인관계 기술’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인데 교사 및 또래와의 놀이 속의 다양한 상호작용 및 소통을 통해 사회관계가 증진된다.

둘째, 놀이 과정은 발달을 견고하게 한다.

영유아가 즐기는 놀이는 그 시기에 영유아가 당면한 발달 과업을 반영하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성공하는 경험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셋째, 정서적 스트레스의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린이집, 새로운 환경 등 영유아가 직면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놀이를 통해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정서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놀이이다. 놀이하는 경험을 나눔으로써 긍정적으로 관계를 배울 수 있다.

넷째, 놀이 과정에서 언어적 능력과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킨다.

영유아들이 놀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래와 소통하며 주고받는 언어적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표정과 몸짓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태어난 김에 놀이일주’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놀이의 중요성을 토대로 흥미에 따른 놀이를 경험하고 영아들의 탐구 본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면서 자연스러운 놀이를 통해 계절의 변화 및 특징에 대해 알아가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립하였다.

첫째.

계절의 변화에 따른 날씨의 특징과 관련된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한 전인적인 발달

계절과 관련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여러 가지 자연물 또는 자연현상의 변화를 알아가고 놀이를 통해 배우고 탐색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영아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가치 등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한다.

둘째.

영아들의 놀이 주도를 통한 자신감 및 자기 주도성 향상

영아 스스로 주도하는 놀이방법으로 사고력을 키우고, 자기 스스로 주도하여 노는 동안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자신감 및 자기 주도성 향상을 돕는다.

셋째.

친구와의 병행 및 협동 놀이 경험을 통한 사회관계 증진

놀이 속에서 풍부한 사회경험을 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양보, 협동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놀이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연습하고 갈등을 처리하며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실시배경 및 이론적 배경

교사는 자신의 아동관이나 교육적 신념, 발달과 학습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 영유아들을 지도하는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교사들이 계획하고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은 교육적 신념에 따라 상이하며 이는 프로그램의 방향이나 교육적 의사결정, 상호작용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태어난 김에 놀이일주’ 프로그램에서는 영유아들의 놀이에 대한 가치와 의미, 시기 적절성 및 경험적 기반, 놀이 특징과 이론을 중심으로 놀이에 대해 고찰하고 진행하며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1) 놀이의 이론적 특징

놀이는 성인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정의할 것이 아니라 놀이의 주체인 놀이를 하는 영유아의 성향과 관련지어 놀이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관점이 유아교육에서는 보편적인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놀이 주체자인 영유아의 내적인 동기가 놀이의 주요한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놀이하는 영유아는 학습의 결과와 같은 산출물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두며 놀이에서의 목표와 행동 역시 자발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Pellegrini, 1991; Saracho, 1991).

영유아가 자유롭게 놀이의 과정을 선택하지 못하고 재미가 없어 몰입하지 못하는 것은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영유아가 흥미를 보여도 진짜 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진짜 놀이와 가짜놀이와 같이 따로 구분하여 양극단에서의 일과 놀이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는 자신의 교육적 의도에서 지원되는 놀이를 포함하여 놀이의 주체자인 영유아의 관점에서 ‘더 많이 놀거나 적게 노는 것’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진짜 놀이와 가짜놀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영유아가 자신의 놀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필 수 있어야 하며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놀이에 주체가 되는 영유아 중심의 관점에서 놀이를 이해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Wood, 2014). 또한 영유아는 반복적으로 놀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놀이의 과정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의 경계선을 협상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놀이를 경험하며 배우게 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영유아가 놀이를 경험하며 탐구하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배움이 일어나며, 영유아가 자신의 놀이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때 영유아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의 배움이 되는 것으로 놀이를 이해하고자 한다.

2) 영아들의 놀이의 의미와 가치

인간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우며 상상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간접 경험할 수 있고 놀이를 통해서 이러한 해방과 자유를 느낄 수 있다(Schiller, 1795).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자기통제의 상태는 행복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해방시키고 자기를 다스림과 동시에 자기 힘을 긍정하며 스스로를 재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놀이는 비생산적인 오락 활동이 아닌 스스로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자아 발달에 최적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큰 가치를 지니는 놀이의 흥미로움은 모든 활동에 동기를 가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능함을 깨닫고,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의사결정과 협력을 배워가는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시기 적절성 및 경험적 기반

자율성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발적이기에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능동적인 행동이다. ‘태어난 김에 놀이일주’ 프로그램은 사계절 중 여름철 장마 시기에 영아들이 스스로 주변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비’로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계절의 특징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놀이가 이루어졌으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과도 연계해 다양한 놀이 지원을 이룰 수 있었다. 놀이를 통해 영유아가 자신의 경험을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때 그 영유아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며, 자신의 놀이 과정에 즐겁게 몰입하는 경험은 진지하고 흥미롭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주체적인 삶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II.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1) 활동 기간 및 대상

- 활동 기간 - 7월 1주~ 7월 4주
- 연 령 - 만 1, 2세

2) 프로그램 연간

월	주제	소주제	기본생활습관	지역사회연계
3월	따뜻한 봄이에요.	어린이집 주변 공원을 탐색해요.	[소통] 부모님과 울지 않고 헤어져요. [책임] 선생님과 함께 가방과 옷을 정리해요. [존중] 친구의 얼굴을 살펴봐요. [정결] 선생님과 손을 씻어요.	어린이집 주변의 어른들에게 인사해요.
4월		노란색 개나리곤아 안녕?	[배려] 내 자리를 알아요. [예절] 선생님과 눈을 마주쳐요. [정결] 바깥놀이 후 손을 깨끗이 씻어요. [소통] 선생님이 부르면 바리바요.	
5월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책임] 꽃을 함부로 꺾지 않아요. [효] 부모님을 안아드려요. [예절] 식사할 때 돌아다니지 않아요. [존중]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비둘기 공원을 산책해요.
6월	바스락 바스락 비닐 놀이해요.	바스락 바스락 비닐 놀이해요.	[소통] 친구에게 미소를 지어요. [예절] 식사 전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책임] 놀잇감을 던지지 않아요. [정적] 친구의 놀잇감을 찢지 않아요. [정결] 바닥에 흘린 음식을 먹지 않아요.	
7월		주룩주룩 비가 내려요.	[소통] 친구를 기다려줘요. [책임] 내 물건을 알아요. [존중]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지 않아요.	
8월	신나는 여름이에요.	첨병첨병 물놀이해요.	[예절] 부모님께 고개 숙여 인사해요. [배려] 이야기하는 사람의 눈을 봐요. [정적] 친구에게 '빌려줘' 하고 물어봐요. [정결] 선생님의 도움받아 입을 닦아요. [소통] 친구 이름을 불러요. [예절] 물건을 두 손으로 받아요.	마트에 구경가요.
9월		다양한 동물이 있어요.	[배려] 차례대로 간식을 받아요. [소통] 선생님의 품에 안겨요. [정결] 선생님과 함께 이불을 정리해요.	
10월		가을에 피는 꽃이 있어요.	[책임] 책꽂이에 책을 넣어요. [정적] 놀잇감을 가져가지 않아요. [예절] 손가락과 포크를 사용해요. [존중] 천천히 걸어다녀요.	떡 가게 방문해요.
11월	알록달록 가을이에요.	낙엽 소리를 들어봐요.	[책임] 신발을 신발장에 정리해요. [정결]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요. [예] 식사 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요. [정적] 실수했을 때 '미안해'로 표현해요.	
12월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배려] 친구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요. [책임] 계단에서는 천천히 다녀요. [존중] 낮잠에서 깨면 조용한 놀이를 해요. [정적]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구세군 냄비로 사랑을 전해요.
1월		겨울 놀이해요.	[효]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느껴요. [협동] 친구와 함께 놀잇감을 꺼내요. [예절] 입을 가리고 기침해요. [배려] 친구의 물건을 갖다 줘요.	
2월	추운 겨울이에요.	휴지가 데굴데굴!	[소통] 친구를 때리지 않아요. [협동] 친구와 함께 놀이해요. [정결] 콧물이 나오면 선생님께 말해요. [배려] 친구가 '미안해'하면 받아줘요.	도서관에 가요.
			[존중] 선생님과 함께 간식을 먹어요. [소통] 친구에게 놀잇감을 나눠줘요. [예절] 입에 있는 음식을 삼킨 후 이야기해요. [존중] 다양한 감정을 공유해요.	

* 연간 계획은 영·유아의 흥미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활동방법

영아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놀이하기 때문에 영아의 놀이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교사는 영아의 놀이를 자율적으로 지원하는데 고민하고 어려움을 보였었다. 영아들의 놀이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줄 방법에 대해 연구하다 사계절 속에서 영아들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시공간적 배경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생활주제 사계는 큰 의미를 나타내 ‘계절’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었다.

‘계절’은 영아가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느끼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주제가 되며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하므로 흥미 있는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영아들과 함께 계절과 관련된 다양한 놀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맨 처음, 겨울에 눈이 오는 모습을 보며 할 수 있는 놀이를 찾아보고 교실과 바깥에서 놀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며 바깥에 피는 봄꽃 또는 소풍 등에 흥미를 보이던 영아들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끌며 계절 놀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여름을 맞이하여 영아들의 여름 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풀어보았다.



<계절 놀이에 대한 교사 연구 및 전문성 강화>

교사 회의 및 놀이 관련 교육을 통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영아들의 놀이의 개선 및 직접 놀이 경험을 해봄으로써 영아들의 놀이를 이해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



<계절 관련 원내 행사>

바깥에서 느껴보는 계절의 변화 외에 각 계절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원내 행사를 진행하여 영아들이 계절마다 느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함.



<부모님과 함께하는 계절 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통해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놀이를 해보며 유대감 강화 및 영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지원함.



<봄 놀이 진행 과정>

봄을 맞이하여 바깥에서 산책을 해보며, 봄이 되어 달라진 날씨, 환경, 옷 등의 다양한 변화를 알게 되며, 꽃, 곤충, 날씨 등 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놀이를 진행함.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이번 여름의 놀이는 평소 바깥 놀이 및 주변 풍경 관찰을 즐기는 영아들이 교실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어린이집에 등원하며 비를 보았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비가 올 때 필요한 것에 대하여 말해보며 “나는 우산이 없는데.”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응을 관찰하며 영아가 놀이를 통해 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으며, 교실 환경구성, 영아 놀이 관찰 및 놀잇감 지원등 영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추가로 제공하여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다.

1) 놀이 진행 과정

가) 관심의 시작 - ‘비를 만났어!’

장마 기간 비가 많이 오는 날 환기를 시키기 위하여 문을 열어놓았는데, 한 영아가 창문으로 가까이 다가와 바깥을 탐색하였으며 “선생님 이게 뭐야?”하고 물어봐 ‘비’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빗소리를 들어보고, 비에 대한 경험을 나누던 중 영아들이 다가와 함께 비를 관찰하며 놀이가 시작되었다.



“이건 뭐야?”
“창가에 비가 있네요~”
“비가 차가워!”



<창가에서 비를 탐색하는 영아들>

한 영아가 “나 엄마랑 비 봤어!”하고 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다른 영아들이 다가와 창밖을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 키가 작아 창가에서 밖이 보이지 않자 “빗나도 보고싶어.”하고 이야기하거나 “응응”하며 바깥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교사가 영아들과 상호작용하며 “우리 어떻게 바깥을 볼 수 있을까요?”하고 묻자 한 영아가 비블록을 가지고 창문이 있는 벽에 놓고 블록 위로 올라가려고 하였다. 영아들이 올라가자 미끄러지는 블록으로 인하여 위험한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안전하게 계단을 만들 수 있도록 벽돌블록 및 자석블록을 추가로 제공하여 주었더니 영아가 계단을 만들고 비를 관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비가 올 때는 어떤 물건이 필요할까?’



이건 뭐야?
나도 이거
입어볼래!

교실에 비가 올 때 필요한 물건 끼적이기 자료와 실물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더니 “이거 뭐야?”하고 관심을 갖는 영아들이 우비를 입어보기도 하였는데, 우비의 사용법을 잘 모르는 영아들이 있어 우비를 입는 방법을 알아보고, 우비의 쓰임을 이야기 나눠보았다.

친구들이 우산을 이용하여 놀이하는 것을 본 영아가 “나도 우산 쓰고 싶어!”하고 우산을 써보기도 하고 교실을 걸어보며 “나 멋지지?”하고 우산을 쓴 자신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자랑하여 보기도 하였다.

자연스럽게 우비와 우산, 장화를 이용한 놀이가 이루어졌으며, 교사가 제공해준 투명우산에 스티커와 색연필을 가지고 꾸미려고 하였다. 하지만 색연필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속상해하는 영아들을 위하여 우산에 그림이 잘 그려지고 지워지지 않는 매직을 제공하여 주었다.



<비가 올 때 필요한 물건 실물 자료>

교사의 놀이 고민&지원

- | | |
|--------------------|--|
| [관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밖을 보며 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비가 잘 보이지 않자 빅블록을 가지고 와 밟고 올라가 비를 관찰하려고 하였으나 바닥이 미끄러워 지속적으로 블록이 밀리는 것을 관찰함. ▶ 미끄러지거나 부숴지지 않고 안전하게 쌓을 수 있는 블록을 고민해보고 자석 블록을 제공하여 주었더니 영아들이 직접 계단을 만들어보며 안전하게 놀이함. |
| [상호
작용]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밖을 보며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우산을 궁금해하며 “선생님 저거 뭐야?”하고 교사에게 질문하고 자신은 우산이 없다며 속상해 함. ▶ 우산이 없어 속상해하는 영아들을 위해 우비, 우산, 장화 등 비가 올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 후 어떤 놀이가 이루어지는지 관찰하여 보기로 함. |
| [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산을 제공하여 영아들이 교실에서 놀이할 경우 다른 친구들의 놀이가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
| [안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들과 우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책상을 이동하여 교실 앞쪽으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주어 안전하게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로 함. |

다) ‘나도 우산을 만들거야!’



<멋지게 그림을 그리자!>



<내 우산 멋지지?>

매직을 제공하여 주었더니 영아들이 투명우산에 다양한 색으로 끼적이기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우산에 붙이고 싶은 스티커를 선택하여 직접 붙여보며 우산 만들기 놀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신이 만든 우산을 직접 써보며 뿌듯해하고 즐거워하는 영아들을 위하여 우산을 쓰고 놀이할 수 있도록 책상을 치워 공간을 확장시켜 주었으며, 놀이시간에 자유롭게 우산을 꺼내 놀이할 수 있도록 교실 한편에 우산꽃이를 만들어 주었다.

교사의 놀이 고민&지원

- | | |
|--------------|---|
| [자료]
[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산을 가지고 놀이하고 싶어하지만 비가 오지 않아 바깥에 나가 경험을 할 수 없는 영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비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있을까? ▶ 교실에서도 비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분무기를 이용하여 비를 만들어 주자, 분무기를 사용해보고 싶어 하는 영아들이 있어 비 놀이를 경험할 자료를 제공해 보기로 함. ▶ 창문과 가까운 곳에 구름과 빗방울, 물웅덩이 등 바깥에서 비가 올 때 볼 수 있는 다양한 자연에 대한 환경을 구성해주고 영아들이 교실에서도 비와 관련한 놀이를 즐겨볼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준 후 영아들의 놀이를 관찰해보기로 함. |
|--------------|---|

라) ‘비 놀이하자!’

색깔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아 교사가 분무기로 비를 만들어 뿌려주었더니 “아! 차가워!”, “이게 뭐야! 비가 오잖아!”하고 즐겁게 놀이하였다. 교사가 사용하는 분무기를 보며 “나도!”하고 분무기를 사용하여 물을 뿌려보고 싶어 하는 영아들이 있어 교사가 눈에 보이는 비를 볼 수 있도록 색깔 비구름과 분무기를 준비하여 주었더니 영아들이 분무기로 색깔 구름 위에 물을 뿌려 다양한 색의 비를 만들어보고, 바닥에 생긴 물웅덩이가 신기하였는지 손으로 만져보며 탐색하였다. 색깔 비를 만든 후 습자지를 뜯어보며 만지고 탐색하는 영아들을 위하여 습자지를 만져보며 놀이할 수 있도록 비를 만들어 길게 늘어뜨려 주었더니 비 사이를 뛰어다니며 “나 여깁어!”하고 숨바꼭질 놀이를 즐겨 보았다.

빗방울이 생겼어!

지속적으로 물방울에 관심을 갖는 영아들을 위해 창문과 가까운 곳에 비구름과 빗방울을 걸어주었더니 창밖을 함께 관찰해볼 수 있었다. 천장에 있는 빗방울을 보고 “나 저거 만져보고 싶어.”하고 이야기하여 교사가 빗방울을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더니 직접 빗방울을 만져보고 구름을 탐색하며 신기해하였다.



비구름, 빗방울 등 환경구성



교실에 비구름이 생기자 “나 이거 하고 싶어.”하고 장화를 가져와 신어 보기도 하고, “이거 내가 만들었어!”하며 자신이 만든 우산을 가져와 쓴 후 빗방울 사이를 걸어보며 놀이가 이루어졌다. 비가 올 때 바깥의 풍경 사진을 제공해주자 사진을 보며 “선생님 여기도 비가 왔어?”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탐색하며 비가 내릴 때의 바깥 풍경을 궁금해하였다.



<교실에 생긴 비구름과 빗방울을 탐색하며 놀이하는 영아들>

물웅덩이 징검다리를 건너자!

색깔비 놀이 중 바닥에 생긴 물웅덩이를 신기해하는 영아들을 위해 물웅덩이 징검다리를 바닥에 붙여주었더니 친구들과 함께 웅덩이 위를 점프하며 신체 놀이를 즐겨보았다.



<물웅덩이를 점프하여 건너는 영아들>

교사의 놀이 고민&지원

[시간]	-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비와 관련된 놀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비가 올 때 영아들과 함께 산책을 가면 바깥에서 어떤 것들을 관찰할 수 있을까? - 비가 올 때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바깥 놀이를 계획하였으며, 바깥을 산책하며 볼 수 있는 다양한 자연물과 소리들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로 함.
[관찰]	우산 사용 시 우산을 앞으로 해서 쓰거나 접은 우산을 흔들며 놀이하는 영아들의 모습이 관찰됨.
[안전]	바른 우산 사용법에 대한 사진을 제공하여 주고, 교실뿐 아닌 바깥에서 안전하게 우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영아들에게 우산이 조금 커서 안전한 놀이를 위해 조금 더 작은 우산을 사용하도록 가정과 연계해보기로 계획함.
[자료 및 가정과 연계]	교실에 있는 비가 올 때 쓰는 물건을 보며 “선생님 나도 집에 이거 있어!”하고 이야기하는 영아들이 있어 가정과 연계하여 영아가 사용하는 장화와 우산, 우비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등원 시 착용하고 올 수 있도록 한 후, 바깥 놀이를 나갈 때 사용하기로 함.

밖에서 놀이하자!

비가 오는 날 한 영아가 “선생님 비와! 우리 나갈까?”하고 이야기하여 장화와 우산, 우비를 입고 바깥에 나가 산책하여 보았다. 그리고 영아들이 자신의 우비와 장화를 신고 등원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부모님들께 안내하여 가정에서 보내주신 우산과 우비, 장화를 바깥 놀이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과 연계하여 비가 왔을 때 바깥에 나갔던 사진을 제공받아 교실 벽면에 부착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산과 우비, 장화를 신고 나가요!>

바깥에 나간 영아들은 물웅덩이를 발견하고, 웅덩이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관찰해보기도 하였으며, 산책을 나온 형님들과 함께 물웅덩이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또한 장화를 신고 물웅덩이를 밟아보며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선생님 매미!”하고 말하며 주변에서 들리는 매미 소리에 귀 기울여보고 찾아보는 등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졌다.



<비가 오는 날 산책하는 영아들>

바깥에 나가 놀이한 후 어린이집으로 돌아온 영아가 “이게 뭐야.”하고 울먹여 교사가 살펴보았더니 영아의 손과 발에 흙이 묻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가 올 때에는 흙이 나의 발이나 팔에 묻을 수 있어 깨끗이 씻으면 된다는 것을 알려준 후 화장실로 이동하여 손과 발을 닦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더니 교실로 돌아온 영아가 역할장에 있는 수도꼭지에 손과 발을 닦는 흉내를 내며 “반짝반짝~”하고 자신의 손바닥을 보여주었다.

교사의 놀이 고민&지원

[관찰]

[자료]

- 교실에 돌아와 역할장에 있는 수도꼭지에 손을 닦고 “내 손 깨끗하지?”하고 물어보며 놀이하기도 하고, 바닥에 흘린 물을 보며 “비 왔어?”하고 휴지로 깨끗이 닦는 모습이 관찰됨.
- ▶ 수건과 비누통 등 영아들이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함.

[상호작용]

- ▶ 자신의 몸을 깨끗이 닦고 싶어하는 영아들과 함께 몸을 닦을 때 필요한 물건을 이야기 나누어보고,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서 손과 발을 닦고 목욕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상호작용함.

2) 놀이의 확장

가) 목욕 놀이가 시작되었어요!

교실에서 역할장에 있는 수도꼭지를 이용하여 손과 발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영아들이 있어 비누통을 제공하여 주었더니 비누를 짜는 흉내를 내며 놀이하였다. 또한 휴지를 가져와 자신의 손과 발을 닦는 영아들을 위해 놀이 바구니에 수건을 함께 제공하여 주었더니 “차갑지? 내가 닦아줄게~.”하며 친구들의 손을 닦아주었다.



교사의 놀이 고민&지원

[관찰]

[자료]

&

공간]

- 비누를 짜서 몸을 닦는 것과 수건을 이용하여 놀이를 즐기는 영아들의 모습이 관찰되었음.
- ▶ 손과 발뿐 아닌 자신의 몸을 씻는 놀이를 즐기는 영아들을 위해 교실 한쪽 벽면에 목욕탕 그림을 붙여주고 실제 샤워기를 제공해주면 어떻게 놀이가 확장될까?
- ▶ 비 놀이를 즐기는 영아들이 아직 있는데 안전하게 놀이가 이루어지기 위해 어떻게 공간을 나눠 환경을 구성해주면 좋을까?

비 놀이와 목욕 놀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대편 벽면에 목욕탕 그림과 함께 샤워기 및 거울등을 제공하여 주었다. “나 씻을거야!”하고 샤워기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는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우산을 쓰고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며 목욕 놀이가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혼자 놀이를 즐기던 영아들이 점차 놀이가 진행되며 친구에게 샤워

기로 물을 뿌려주거나 머리를 감겨주기도 하는 등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가 이루어졌다. 머리를 손으로 비비며 샴푸를 해 주는 흉내를 내는 영아들의 놀이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누와 샴푸, 샤워볼, 헤어 머리띠 등의 목욕용품 을 제공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좋은 냄새나.”하고 말하며 머리에 샴푸를 뿌려보는 흉내를 내보기도 하며 목욕 놀이를 즐 겨보았다.



<목욕 놀이를 즐기는 영아들>

깨끗이 씻어보자~

놀이 중 한 영아가 아기 인형을 가지고 와 “아가도 씻어.”하고 말하며 목욕 욕조에 아기 인형을 넣고 비누를 짜서 문질러준 후 “슈~”하며 물을 뿌리는 흉내를 내며 놀이하였고 이 모습을 본 다른 영아들도 동물 모형과 인형을 가져와 의자에 앉히기도 하고 욕조에 넣어 목욕시켜주며 놀이를 즐겨보았다.



<욕조에 놀잇감을 넣고 목욕시켜주며 놀이를 즐기는 영아들>

욕조에 직접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욕조 크기가 작아 바닥으로 넘어지자 “아아~”하고 교사를 쳐다보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바닥에 누워 “어?”하고 고개를 흔들어보며 다시 욕조에 들어가는 것을 반복하며 놀이하였다. 영아들이 조금 더 큰 욕조에 들어가 놀이할 수 있도록 큰 대야를 준비하여 주자 그 안에 들어간 영아들이 바구니에 누워 휴식을 취해 보기도 하고, 샤워기를 가지고 와 친구에게 물을 뿌려주기도 하고, 바디워시를 묻혀 친구의 머리와 몸을 닦아주는 흉내를 내며 활발하게 놀이가 이루어졌다.



<욕조에 들어가서 놀이하는 영아들>

친구들도 함께 놀이하자!

친구들과 함께 놀이에 참여하여 목욕 놀이를 즐기는 영아들을 위해 다른 반 친구들을 초대해 주자 놀이 방법을 알려주

기도 하고, 다양한 목욕용품들을 활용하여 놀이를 함께 즐겨 보았다. 놀이 중 샤워기를 들고 “물, 물”하고 이야기하는 영아를 위하여 비닐로 물을 만들어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자, 대야에 있는 비닐을 보며 “우와 물이다!”하고 좋아하며 비닐을 하늘로 던져보기도 하고, 친구들의 머리 위에 뿌려보기도 하며 목욕 놀이를 즐겼다.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즐기는 영아들>

교사의 고민

-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흉내내는 영아들의 놀이가 더욱 즐겁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물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 친구들과 함께 대야에 들어가서 놀이하고 싶어하나 대야가 작아 3-4명의 영아들이 함께 들어가기엔 작아 갈등이 일어나는 영아들을 위해 어떤 것으로 대체하여 놀이할 수 있을까?

교사의 지원

- ▶ 물을 대신하여 하얀색과 파란색의 비닐을 길게 잘라 제공하여 놀이를 지원하여 주었음.
- [자료] ▶ 많은 친구들이 공간에 대한 갈등상황없이 함께 목욕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 대야가 아닌 커다란 풀장을 제공하여 충분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동화] ▶ 목욕에 관한 동화를 제공하여 주었으며, 영아들이 동화책을 가져와 교사에게 읽어달라고 이야기 하고 함께 읽으며 목욕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며 놀이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었음.

3) 마무리 및 새로운 시작



나도 목욕하고 싶어!
세희거야!
나 혼자 할거야!



물이다!
나 찾아봐~
까꿍~

이건 뭐야?
미끌미끌해!
우리 같이
목욕해볼까?



우와!
커다란 목욕탕이
생겼어!
(물놀이를 즐기는
영아들)



새로운 놀이의 시작

-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고 싶어 여러명의 영아들이 대야에 들어가 갈등 상황이 생겨 교사가 넓은 풀장을 제공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었더니 물놀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며 물과 관련된 새로운 놀이가 시작되었음.

5) 가정과의 활동 연계

영아기는 모든 발달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영아는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이 서로 관련되면 더 큰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며,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함께 경험 중심의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영아 발달을 돕게 되어 놀이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집과 가정의 양방향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어린이집과 부모가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자녀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놀이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



가정 연계 활동

분무기를 이용하여 비 놀이를 즐기던 영아들을 위하여 가정에서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가정 연계 놀이를 지원함.



가정과 연계한 준비물 지원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가지고 와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에 안내하였으며, 교실에 제시해주어 놀이가 더욱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



비 오는 날 사진 연계



활동 카페 게시

가정에서 비가 왔을 때 찍은 사진과 영아들이 사용하는 우비와 장화, 우산을 제공받아 어린이집에서 놀이가 이루어짐.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졌던 놀이를 카페에 게시하여 가정에서도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를 있도록 안내함.

6) 놀이를 통한 표준보육과정 6개 영역 내용 연계

기본생활	- 비가 올 때 필요한 물건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장화, 우비, 우산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며 놀이를 즐긴다. - 스스로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는 방법을 놀이를 통하여 알고, 여름철 건강하게 생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신체운동	다리와 허리 등 자신의 움직임을 조절하며 대근육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물웅덩이 징검다리를 건너며 안정된 자세를 취하려고 시도한다.
의사소통	- 자신이 필요한 것들이나 하고 싶은 놀이에 대하여 말 또는 표정, 몸짓으로 표현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즐긴다. - 놀이가 진행됨에 따라 '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또래들과 생각과 느낌을 교류하며 놀이한다.
사회관계	- 내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선택하여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에 참여해 볼 수 있으며, 필요한 놀잇감을 양보하며 사용해볼 수 있다. - 친구, 또는 형님들과 함께 놀이하며 내 주변의 또래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놀이에 참여하며, 여러명의 친구들과 하는 놀이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술경험	자발적으로 미술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간단한 그리기 도구와 미술 재료를 사용하여 나타내 볼 수 있다.
자연탐구	'여름'이라는 계절에 관심을 갖고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계절의 특징을 알아보고, 자연을 탐색하는 것을 즐긴다. - 비가 올 때 필요한 물건, 목욕할 때 필요한 물건 등 자신이 관심이 있는 도구를 가지고 놀이하며 반복적인 탐색하기를 즐긴다.

III. 활동평가

1. 프로그램 결과

▶ 영아의 변화

[만 1세] 학기 초에는 영아가 계절에 관심을 갖기는 하였지만, 영아가 놀이를 주도하기보다는 교사의 놀이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속적인 계절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탐구하며 놀이하던 영아들은 이번 여름 ‘태어난 김에 놀이일주’ 프로그램 속에서 자신의 놀이를 펼치고 주장하며 스스로 하고싶은 놀이 방법을 찾아가 주도적인 놀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놀이의 주도성뿐 아니라 놀이 속 또래와의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친구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만 2세] 작년부터 계절의 변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날씨 탐색하기, 바깥산책 및 놀이를 통하여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이 놀이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새로운 놀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여름놀이에서는 한 가지의 놀이 방법에 머무는 것이 아닌 목욕 놀이, 물놀이 등으로 확장하고 이끌어가며 놀이의 즐거움을 알고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더욱 놀이를 즐겁게 경험하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 교사의 변화

영아들과 생활하며 아직 언어적 표현이 서툰 아이들을 보고 ‘내가 아이들의 흥미에 따른 놀이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아이들의 놀이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과 부담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영아들의 놀이에서 주제를 찾기 어렵다보니 교사의 계획에 의한 놀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하면 영아들의 놀이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교사 회의를 통해 ‘계절’이라는 주제가 영아들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새롭게 계절이라는 큰 주제로 놀이를 시작해보게 되었다. 놀이를 하며 나부터 내가 생각하는 계절을 토대로 놀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영아들의 시선에서 계절이라는 주제를 담게 되자 영아들이 봄이 되어 봄꽃을 보고 오감으로 탐색했을 경우 봄이 되어 볼 수 있는 다양한 꽃에 대해 알아보기 보다는, 꽃을 통해 색, 냄새, 촉감 등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놀이방식을 만들며 놀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영아들의 시선에서 놀이를 지원해주자 놀이는 점차 달라지고, 이번 여름 놀이의 경우 교사가 먼저 제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영아들의 호기심을 통해 놀이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혼자 놀이하던 영아들이 교사와 친구들이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보이며 함께 놀이해봄으로써 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상호작용의 대상이 교사에서 또래로 이동하며 또래 간의 상호작용도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놀면서 자란다.’, ‘잘 놀아야 잘 자란다.’라는 표준보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놀이의 중요성과 놀이의 모습이 점차 변화되는 영아들의 모습이 관찰되었고 교사로서의 자존감 향상 및 놀이에 대한 재미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 부모의 변화

학기 초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놀이학습에 대하여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특히 우리반의 경우 생일이 빠른 아이들이 많이 있어 특별활동을 왜 하지 않는지,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지 등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다. 교사는 알림장과 카페, 놀이기록지등을 통하여 아이들이 한 달 동안 가진 궁금증, 놀이하는 모습 등을 최대한 많이 가정에서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이 흥미 있어 하는 것에 대한 연계 놀이 방법 안내 등을 통하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놀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방법들로 인하여 어린이집에서 미술, 탐색, 언어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 속에서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등,하원 시 마주치는 부모님께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놀이를 이야기해 드리면 “우리 00이가 그 놀이를 좋아하는군요. 집에서 함께 놀이해줘야겠어요.”하고 이야기하시는 등 가정에서도 놀이 지원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변화를 볼 수 있었고, 어린이집 교육과정을 믿고 함께 동참해주시며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2024년 연간프로그램 계획

월	주제	소주제	지역사회연계	월	주제	소주제	지역사회연계
3월	봄	어린이집 주변 공원을 탐색해요	어린이집 주변의 어른분들에게 인사해요.	9월	가을	새로운 색이 생겼어요	어린이집 주변의 어른분들에게 인사해요.
4월		봄에 피는 꽃이 있어요		10월		알록달록 단풍놀이를 해요	
5월		봄 곤충을 관찰해요	비둘기 공원을 산책해요.	11월		가을 열매는 어떻게 생겼을까?	비둘기 공원을 산책해요.
6월	여름	나무에 열매가 열렸어요!		12월	겨울	겨울에 할 수 있는 놀이가 있어요	마트에 구경가요.
7월		빨강초록 수박을 만나요	마트에 구경가요.	1월		흰 눈이 펄펄 내려요	
8월		친구와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놀이		2월		따뜻한 간식을 먹어요	

2.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생활 속 모든 자극,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생활이자 놀이이다. ‘잘 놀아야 잘 자란다’라는 말이 있듯이 놀이는 영유아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세상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방식이다. 이번 ‘태어난 김에 놀이일 주’는 여름에 관한 놀이를 통하여 영유아가 자연스럽게 계절의 변화에 따른 날씨의 특징을 알아보고 주변 세계를 탐색해볼 수 있었으며, 영아들의 지속적인 흥미로 자발적인 배움이 일어날 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중 영아가 흥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정에 안내하여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놀이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으며, 추후에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과 가정의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져 영아들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각기 다른 교육방침과 환경을 지니고 있는 타 기관에서도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참고해야한다.

첫째, 계절 및 날씨의 특징에 대한 영아들의 흥미에 따라 놀이들을 진행하다보니 날씨의 변화나 흐름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여 교사가 계획하고 진행하기보다 영아들의 놀이 방향이나 흥미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적절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둘째, 각 어린이집 주변의 자연환경 구성이 다르다보니 영유아들이 직접적인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주변 환경 마련이나 장소 탐색 등을 미리 준비하여 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없어야하며, 교실 내에서도 다양한 자연물이나 계절환경 구성을 제공해주어 충분히 느끼고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V. 참고문헌

-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건복지부, 경성문화사 2020)
- 이미화 외 15인, 영아 보육과정 (에듀케어아카데미)
- 김희진, 「발현적 교육과정에 기초한 영아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파란마음, 2006)
- 2019개정 누리과정 놀이실행자료 / 2019개정 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우수상>

시립파크푸르지오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국공립
지 역	파주시
프로그램명	화장실 가기 좋은 날
총 괄	정윤미
기획 및 운영	최윤미, 이정희, 구나운, 최연아, 권애경, 신지혜

1.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출생 이후 누구나 사회화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간다. 사회화의 첫걸음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영아는 점차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 행동 습관을 배워 나간다. 하지만 핵가족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영아의 사회화에 영,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역할이 중요시되며 그 비중이 높아지고 바른 기본생활 습관 형성 및 지도 방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어린이집에서는 만 1세 영아들이 부모님의 문외와 상담으로 특히 배변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언제부터 배변훈련을 시작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른 친구들은 화장실 변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배변 학습으로 인해 고민하는 가정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배변 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에게 배변 학습이란 태어날 때부터 신체의 일부를 안정적으로 감싸고 있던 ‘기저귀’와 분리되고 스스로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이다. 배변 학습은 아기가 수많은 내적 혼란과 갈등을 이겨내고 성격의 그릇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 발달에 있어 그 의미는 아주 크다. 배변 학습 시 꼭 일정한 개월 수에 배변을 가려야 한다는 법칙은 없으므로 **영아가 배변과 관련된 다양한 놀이**를 접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긍정적인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배변 놀이 중 **공간의 변화**를 매개체로 **화장실**을 선택하였다. 기본 화장실 이미지를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 구성하여 영아의 배변 학습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방향을 잡아 보았다.

2. 프로그램의 실시 배경(이론적 배경)

▷기본생활 습관은 사람으로서 생활하는데 지녀야 할 기본 자질을 몸에 익히는 것으로 삶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키고 지녀야 할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고 한다.(국립 교육 평가원 1995) 또한 기본이 되는 것을 익혀서 습관화하는 것으로 관습과 전통 속에서 계승 되어진 사회규범과 원리에 따라 행동할 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양식에 적응하며 행동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이원영, 방인옥, 박찬옥1992)

이러한 기본생활 형성 시기는 1세에서 3세가 적당하며 음식 먹기, 옷 입기, **대소변 가리기**와 같은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해 가면서 영아는 자신을 통제하고 자율성을 갖게 된다.(이세림, 2011)

▷표준보육과정의 ‘**영유아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는 것은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건강과 행동, 놀이를 통한 배움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유아는 놀이하면서 세상을 탐색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교류한다. 또한 영유아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즐겁게 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운다. 본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주도적인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다.

▷**배변학습 과정**에서 영아는 **놀이**를 통해 새로운 대상과 상황에 대한 조절력을 키워 나간다. 놀이는 불안함을 달래주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수단이며 또한 새로운 대상과 상황에 대한 연습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Lieberman(1993)은 영아가 친숙한 대상에서 독립하려면 친숙한 대상과의 충분한 상호작용과 안정감을 중요한 요소로 본다. 즉 **놀이**는 친숙한 대상과의 충분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자 새로운 대상인 **변기로의 전이**를 위해서도 주로 활용된 방법으로 **친숙한 대상과 새로운 대상**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 볼 수 있다.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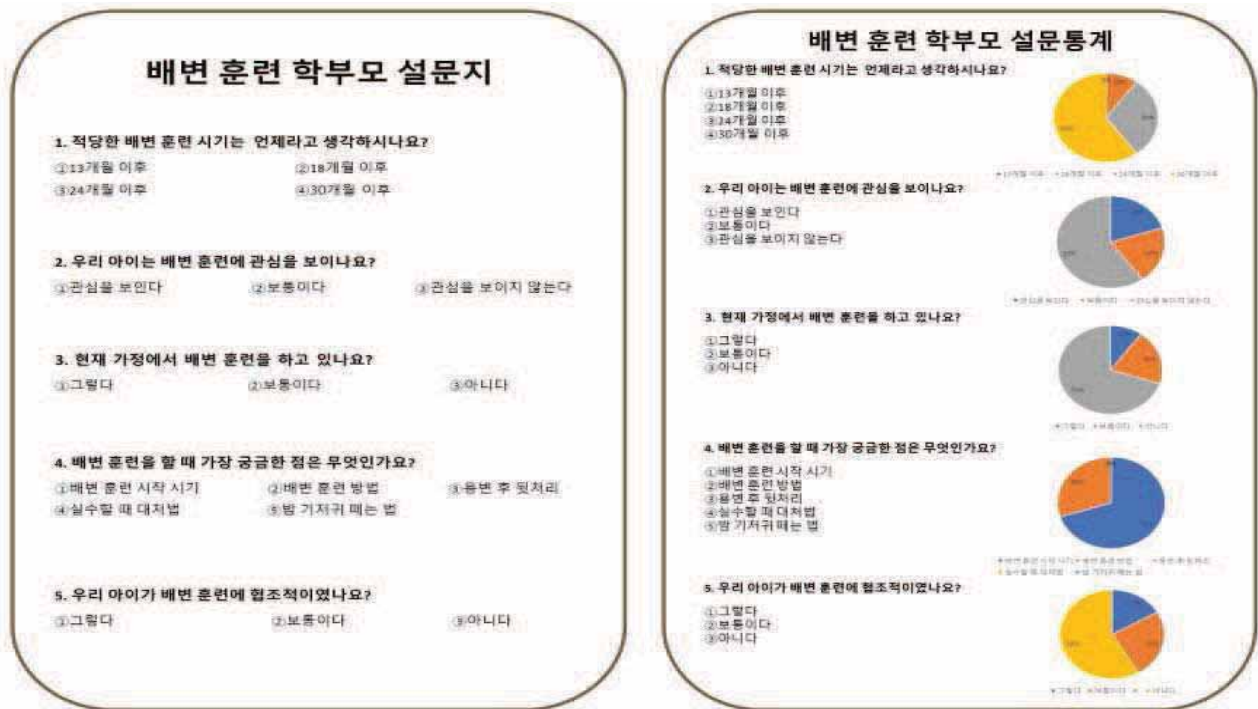
1. 프로그램 내용

- 1) 활동기간 : 2023년 5월~ 2023년 8월
- 2) 활동대상 : 만1세 10명
- 3) 추진과정

교사 회의	부모상담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평가
 영, 유아 일상생활 관찰 후 자체 회의를 통하여 영아와 유아에게 필요한 지원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다.	 부모 상담을 통하여 영아의 개별 발달 특성과 단계를 공유한 다음 가정과 연계하여 지원 방향에 대해 소통한다.	· 긍정적인 일상생활 습관 형성에 대한 필요성 · 배변 학습에 대한 중요성 · 사전 설문 조사 · 프로그램 계획 수립 · 프로그램 진행 및 지원 방향 모색 · 가정 연계 놀이 지원 · 관련 놀이로 인한 변화 과정 관찰	· 보육일지/관찰일지/발달 평가 작성 · 가정과 지속적인 소통 (키즈노트/등, 하원 시 대면) · 사후 설문 및 만족도 조사 · 교사 프로그램 평가 회의 · 배변 학습 진행 상황 정리 · 영아의 행동 변화 이해 및 새로운 지원 방향 모색

4) 프로그램 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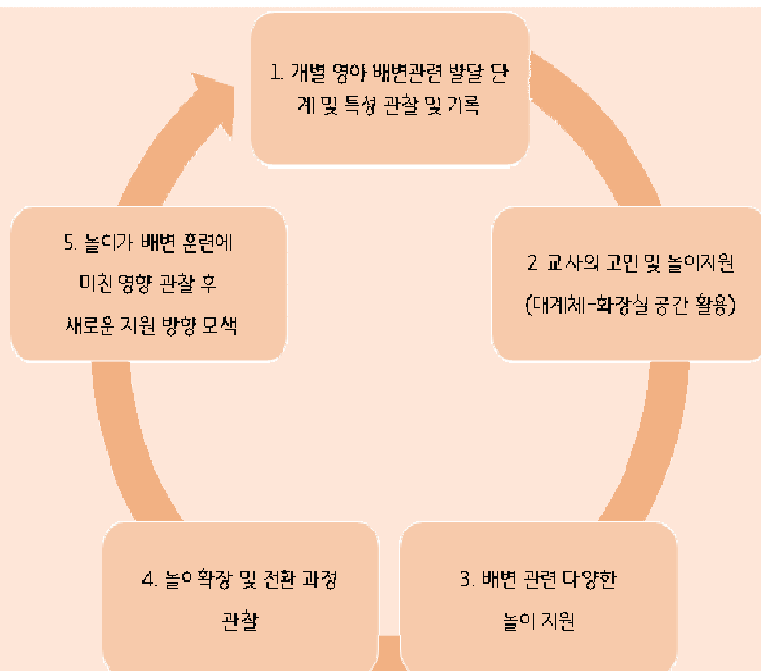
⇒ 프로그램 계획 전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배변 훈련을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만 1세 예상 놀이 연간계획안에 배변 놀이의 예상 계획안을 추가하여 자연스럽게 놀이 진행을 유도하였다.



5월	1~5	느낄 수 있어요 (운명으로 느껴보아요)	>1학기 부모 참여 수업 >제육대회(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 >생일 파티	뒷발에 물을 주어요	5월	1~5	느낄 수 있어요 (운명으로 느껴보아요) 기자귀는 내 친구 내 용가는 이렇게 생겼어요 용가 모양이 다 달라요	>1학기 부모 참여 수업 >제육대회(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 >생일 파티	뒷발에 물을 주어요
6월	1~4		>원내동요 발표대회 >생일 파티		6월	1~4		>원내동요 발표대회 >생일 파티	
7월	1~4	놀이할 수 있어요 (물놀이 경험)	>원내 물놀이 >생일 파티	분리수거를 해요	7월	1~4	놀이할 수 있어요 (물놀이 경험) 용가 주머니를 던져요 권티를 입고 싶어요 입고 벗을 수 있어요	>원내 물놀이 >생일 파티	분리수거를 해요
8월	1~5		>원내 물놀이 >생일 파티		8월	1~5		>원내 물놀이 >생일 파티	
9월	1~4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추석 행사 >생일 파티	가을 날씨를 느껴요 (나뭇잎 놀이)	9월	1~4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쉬'/'용가'소리 낼 수 있어요 내 번기는 마술사 용가 숨을 불러요	>추석 행사 >생일 파티	가을 날씨를 느껴요 (나뭇잎 놀이)
10월									

5) 활동방법

영아의 발달 특성과 단계에 따라 수준별 배변 놀이 지원을 통하여 영아의 놀이 관찰을 기록하고 지원 여부를 확인한다. 영아는 교사가 지원하는 방향(공간의 재발견)에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매체와 공간에서 놀이하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놀이가 확장되거나 수정 보완, 및 전환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5월 배변 길 만들기

✧ 기대 효과

화장실과 변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해 본다.

기저귀에서 변기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 놀이 배경

배변 훈련에 대한 고민으로 교사에게 상담을 신청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영아들이 어떻게 하면 배변 활동을 더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 과정에서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매력을 느꼈고 공간으로 영아들을 초대하는 기분으로 화장실로 통하는 교실 바닥과 공중에 똥 모양 모빌을 지원하게 되었다. 평소 교사와 손을 씻거나 양치질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화장실 입구에 놀이 환경을 지원하자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 영아 경험의 실제



영아들은 교실 바닥에 부착해 놓은 에어캡과 똥 그림에 관심을 가진다. 등원과 동시에 에어캡 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스럽게 화장실 입구로 이동한다. “엄마, 이거?”라고 언어적 표현을 하며 공중에 매달려 있는 똥 모양 모빌에 시선을 맞추기도 한다. 에어캡 길이 화장실 입구에서 끝나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영아는 자연스럽게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당기며 닫는 행동을 한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 똥 모양 모빌을 보고 “엄마, 이거?”라고 언어적 표현을 하며 모빌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었고 주먹을 접었다 펴며 똥 모빌을 잡으려는 행동을 한다.

교사가 모빌을 건드려 움직이게 하자 시선을 맞추고 관심을 보인다. 모빌이 매달려 있는 높이까지 영아를 안아주자 손으로 똥 모양 모빌을 만져보고 줄을 잡아당기며 모양을 탐색하고 주변 환경에도 관심을 가진다.



바닥에 부착된 똥 그림을 보고 “선생님~ 똥이야 똥”이라고 언어적 표현을 한다.

손바닥으로 그림을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였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림을 밟고 지나가는 교사의 행동을 모방하며 똥 그림을 밟고 걸기를 시도한다. 교사가 지원한 동물 스티커를 하나씩 떼어내어 바닥에 반복적으로 붙여준다.

영아는 자연스럽게 “똥”이라는 단어를 알고 소리 내어 자발적으로 표현하기를 반복한다.



똥 그림을 밟고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이동하여 다양한 모양 변기에 관심을 보였다.

변기 모양을 탐색하며 손을 넣어도 보고 소근육을 움직이며 레버를 조작하는 흉내를 내었다. 미리 교사가 변기에 부착해 놓은 눈과 입 모양 스티커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며 주기도 하였고 바지를 내리며 쉬를 하는 흉내를 내어 교사가 변기에 부착된 입 모양을 가리키며 “OO아 변기야 안녕! 하고 인사해 줄 수 있어?”라고 말을 하자 “안녕”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 가정 연계 〕

가정에서도 응가 모양 스티커를 스스로 떼어내어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더니 변기에게 가는 길을 만들어 발자국 모양처럼 바닥에 붙여 주었다. 응가 모양 스티커를 따라 변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고 “엄마 똥”이라고 말을 하며 변기에 앉아 힘을 주는 흥미를 내었다. 영아는 어린이집과 가정이 연계하여 쉬나 응가가 마려울 때 응가 그림을 밟고 이동하는 신체 놀이에 흥미를 보이며 변기에도 관심을 가져줄 수 있었다.

✧ 교사의 지원

공간	자료	안전(위생)	상호작용
교실과 화장실을 이어주는 공간을 비워 영아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응가 모양 스티커와 동물 스티커, 에어캡, 똥 모양 모빌과 놀잇감을 지원하였다.	바닥의 부착물로 인하여 영아가 미끄러질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책상 위치를 수정하여 놀이공간을 확보하였다.	개별적 상호작용으로 영아의 개인차를 존중하며, 특히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영아 경험 이해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이동과정(화장실 앞)에서 놀이 환경에 흥미를 보였다.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던 화장실의 다른 공간에도 시선을 맞추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교실에서부터 연결된 똥 그림을 밟으며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여 주었고 특히 대근육 활동을 시도하며 시선을 맞추고 물체를 탐색하는 과정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평소 “응가, 쉬”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영아들도 “똥”이라는 단어를 소리 내는 과정에서 놀이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몸짓과 말로 표현하였다.

✧ 활동 평가

화장실을 거부하던 영아들도 화장실로 가는 길이 즐거운 놀이라는 것을 알고 변기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배변 관련 놀이를 하며 친숙해진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똥 모양에 관심을 가지며 영아들이 ‘더러워’, ‘이상해’, ‘부끄러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즐겁게 놀이하며 대변과 소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평소 변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영아도 변기 모양에 관심을 가지며 변기 레버를 눌러보거나 물이 나오는 곳에 시선을 맞추고 신기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가정에서도 배변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자료를 공유하자 부모는 교사와의 소통을 통하여 우리 아이가 아직 배변 준비단계임을 받아들이고 공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배변을 놀이로 지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더불어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부모 교육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6월 내 응가는 이렇게 생겼어요

✧ 기대 효과

기저귀 뿐 아니라 변기에서 응가와 쉬를 경험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며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 놀이 배경

오감 놀이를 지원하며 밀가루와 계피가루를 섞어 보았고 반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영아들과 함께하며 밀가루 반죽 놀이가 이루어졌다. 반죽으로 모양 만들기를 하다 한 영아가 “똥”이라고 말을 하며 두 손으로 눌러 길게 늘어뜨린 반죽을 보고 다른 영아들도 관심을 보이며 영아들의 똥 만들기 놀이가 시작되었다.

✧ 영아 경험의 실제



하얀색 밀가루 위에 갈색 계피가루를 올리자 밀가루에 섞인 갈색 부분을 손으로 끌어 영아 앞으로 쏘아 놓았다. 교사가 물을 뿌려주자 밀가루가 손에 묻어 끈적거리는 느낌을 알고 교사에게 “떼떼”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였다. 교사가 반죽을 눌러 색을 골고루 섞어 주자 교사 손에 있던 반죽을 떼어내며 길게 늘어 뜨렸다. 길게 늘어난 반죽 모양을 보고 “엄마 똥”이라고 말을 하였고 다른 영아들도 반죽을 코 앞에 가까이 가져가 “으 엄마 예새”라고 말을 하며 코를 막는 행동을 하였다.



밀가루 반죽을 조금 떼어낸 영아가 인형 엉덩이에 가까이 대고 인상을 쓰며 힘을 주는 흉내를 내었다. 교사가 티슈를 작게 떼어내 건네며 “아기가 응가를 했네, 00이가 닦아줄 거야?”라고 말을 하자 티슈를 받아 들고 반죽 위에 올린 다음 반죽을 잡는 행동을 하였다. 티슈로 잡은 밀가루 반죽을 쓰레기 통으로 가지고 가 버리는 행동을 하여 아기 인형을 가지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엉덩이를 씻겨주는 놀이를 유도하자 세면대 위에 인형을 올려놓고 엉덩이를 닦이는 흉내를 내었다.



평소 애착 인형을 가지고 놀이하는 영아가 자신의 인형을 가지고 와 “엄마 이형”이라고 말을 하며 밀가루 반죽을 인형의 엉덩이 근처에 내려놓고 손바닥을 펼쳐 얼굴 가까이 가져가 흔드는 행동을 하였다. 교사가 “우리 하마가 응가를 했구나? 하마는 아주 큰 똥을 누었네”라고 말을 하자 다른 영아들도 관심을 보이며 인형을 가지고 와 동물들의 똥을 만들며 “응가”라고 말을 하였고 힘을 주는 흉내를 반복적으로 내어 주었다.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똥 모양을 기저귀 위에 올리고 기저귀를 접어 주는 흉내를 내었다. 반죽을 만지지 않고 기저귀를 접어 돌돌 말아 준 다음 “엄마, 엄마 응가 버려?”라고 교사에게 말을 하였고 접혀진 기저귀를 쓰레기통으로 가져가 버리는 행동을 하였다. 기저귀를 교체해 주는 교사의 행동을 모방하며 기저귀 매트에 기저귀를 채운 인형을 눕힌 다음 기저귀를 벗기며 직접 만든 똥 모양 밀가루 반죽을 보고 “엄마 아기 똥”이라고 말을 하며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동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소 교사가 하는 행동을 기억하고 새 기저귀를 들어 부채질 하는 흉내를 내었다.



〔가정 연계〕

밀가루 반죽을 가정에 지원하였더니 영아가 어린이집에서의 반죽 놀이를 기억하고 “똥”이라고 말을 하며 놀이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놀이 중에도 응가 포즈를 취하며 주먹을 쥐고 인상 쓰는 흉내를 내어 주었다. 가정에서도 변기에 응가를 해야한다는 것을 조금 인지하는 듯하며 변기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기저귀에 쉬나 응가를 하면 엄마, 아빠에게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 교사의 지원

공간	자료	안전(위생)	상호작용
보육실 가운데 넓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바닥과 책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물들의 응가 모양을 벽면에 제시하여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밀가루 반죽을 입으로 가져가 먹는 행동에 주의를 주며 교사와 함께 안전한 공간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주도적으로 놀이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교사는 소극적으로 개입하였고 행동 관찰 후 적절한 언어 표현으로 모방언어를 유도하였다.

✧ 영아 경험 이해

오감 놀이를 시작으로 배변 놀이로 확장 진행하며 스스로 모양 표현하기를 시도 하였다. 놀이 과정에서 평소 영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재현 놀이를 하며 교사의 비언어, 언어 표현을 모방하며 직접 기저귀를 처리하는 행동을 놀이로 실천할 수 있었다. 기저귀 안에 들어있던 밀가루 반죽도 만지기를 거부하던 영아들이 다른 영아들의 놀이 모습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며 배변 처리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 각자 이름을 이야기하며 “00이 똥”이라고 말을 하며 배변 놀이에 흥미를 보였다.

✧ 활동 평가

의도하지 않은 놀이에서 자연스럽게 배변 놀이가 진행되었다. 영아들이 자연스럽게 촉감 놀이를 하며 소근육 활동을 시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사가 “이건 누구 똥이지? 00똥이구나”라고 말을 하며 거부감 없이 놀이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똥 모양을 표현해 주었고 동물 피규어를 활용하여 “엄마 인형 똥”이라고 말을 하며 하마 인형이 똥을 누는 모습을 직접 재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저귀를 지원하여 영아들이 어떻게 놀이에 활용하는지 관찰하면서 평소 교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언어 또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모방하고 있었다. (ex기저귀를 흔들며 엉덩이를 말리는 행동을 재현함) 자신의 신체 일부인 대변과 소변을 알고 놀이를 통하여 거부감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역할 놀이를 하며 배변을 처리하는 흉내를 내며 영아 스스로 배변 학습에 관심을 보여 주었다.



7월 팬티를 입고 싶어요

✧ 기대 효과

팬티를 입고 벗는 행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스스로 대소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 놀이 배경

놀잇감과 함께 기저귀 뿐 아니라 다양한 그림 팬티를 지원하자 영아들이 팬티에 관심을 가졌다. 인형에게 팬티를 입히고 영아들도 손 근육을 움직여 직접 입어 보려고 시도 하였다. 자연스럽게 팬티를 입거나 벗으며 화장실과 교실을 오가며 놀이가 시작되었다.

✧ 영아 경험의 실제



인형에 입혀놓은 팬티에 관심을 보이며 “엄마 이거?”라고 교사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교사가 “토끼가 팬티를 입었네, 우리 00이도 팬티 입을 수 있지요?”라고 말을 하자 “응”이라고 말을 하며 바구니 속 다양한 그림 캐릭터가 있는 팬티 중 핑크퐁 그림이 있는 팬티를 골라 팬티 구멍에 다리를 넣고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영아들은 겉옷 위에 팬티를 입고 놀이를 하거나 입고 벗는 행동에 흥미를 보이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팬티를 입고 화장실과 교실을 이동하던 영아가 화장실 변기가 있는 곳의 문을 열어 변기에 관심을 보였다. 변기 커버를 올리거나 물을 내리는 레버에 관심을 보이며 만지고 조작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교사가 레버를 눌러주자 물이 내려가는 모습에 시선을 맞추고 있다 “쉬 안녕”이라고 말을 하는 교사를 보고 손을 흔들며 주었다. 교사가 팬티를 벗고 변기 위에 앉아 볼 수 있도록 유도하자 교사와 함께 팬티를 양 손으로 잡고 아래로 내리는 행동을 하였다. 변기 위에 앉아 본 영아가 교사의 손을 잡고 있다 내려오기를 시도 하였다.



팬티를 입고 놀이하던 영아가 화장실에 다양한 변기 모양에도 관심을 보였다. 배변 훈련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변기를 보고 흥미를 보이며 교사가 쉬를 하는 흉내를 내자 교사의 행동을 모방하기도 하고 친구의 모습을 보고 시선을 맞추며 관심을 보여 주었다. 양말공을 지원하여 자유롭게 변기 속에 던지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변기 커버 뚜껑을 올려 양말 공을 넣은 다음 뚜껑을 닫고 앉아 있기도 하고 공을 던지며 대근육 활동이 이루어졌다.



영아들은 끼적이기 자료를 보고 관심을 보였고 끼적이기 도구를 사용하여 종이 위에 자유롭게 선을 긋거나 손을 씻거나 변기 위에 앉아 있는 그림 속 캐릭터에 관심을 보이며 모방 행동을 하려고 하였다. 세면대 앞에 부착해 놓은 그림을 보고 세면대 위에 올라가 손을 씻는 행동을 하였고 앉거나 엎드린 자세를 취하며 자유롭게 놀이를 하였다.

한 영아가 화장실 티슈를 뜯어 그림 도안 속 변기에 앉아 있는 캐릭터를 보고 닦아주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 가정 연계 〕

영아들이 팬티와 기저귀를 스스로 벗고 다시 입는 소근육 행동에 자신감을 보였다. 가정에서도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등,하원시 옷을 갈아 입을 때 스스로 옷을 잡고 입어보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고 가정과 소통하였다.

영아가 좋아하는 팬티를 준비하여 배변 훈련 시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정과 상호소통을 할 수 있었다.

✧ 교사의 지원

공간	자료	안전(위생)	상호작용
공간의 제약 없이 화장실과 교실을 이동하며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영아들이 관심을 보이는 캐릭터 팬티와 놀이용 기저귀, 다양한 모양의 변기 뿐만 아니라 끼적이기 관련 자료를 지원 하였다.	화장실과 교실을 이동할 시 교사는 분리하여 영아들을 살필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화장실에서 놀이 시 위생 상태에 신경을 썼다.	팬티를 입고 벗을 때 격려와 칭찬의 비언어, 언어 표현을 사용하며 배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상호작용 하였다.

✧ 영아 경험 이해

영아는 놀이 환경과 물질적 지원(다양한 그림의 팬티)에 관심을 보이며 소근육을 조절하고 교사와 자신의 움직임에 흥미를 보였다. 교사와 함께 화장실과 교실을 이동하며 놀이하는 것을 즐겼고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놀이를 하며 주변 공간과 변기라는 물체의 모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탐색하기를 즐겼다. 교사의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을 알고 영아 자신도 배변 행동에 대해 교사와 소통하며 표정과 몸짓, 소리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놀이를 통하여 서로의 행동을 관찰하다가 이를 모방하는 것을 즐겼다.

✧ 활동 평가

자신의 배변 의사를 아직 표현하지 못하는 영아들도 배변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듣고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기저귀 뿐 아니라 팬티를 입고 벗는 행동에도 관심을 보였다. 처음에는 교사가 주도하여 팬티를 입고 놀이를 하거나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놀이 환경에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이후 영아는 주도적으로 팬티를 입어보거나 벗는 행동 뿐 아니라 팬티를 입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변기에 앉고 쉬와 응가를 하는 흉내를 내었다. 또한 소근육을 조절하여 팬티를 내리고 다시 입는 행동에도 자신감을 보이며 자신의 행동에 만족해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 영아는 배변 학습을 진행하며 변기에 쉬를 하는 모습에서 스스로 착용하고 있던 기저귀를 내리고 올리는 행동이 자연스러워졌고 가정에서도 기저귀 대신 팬티를 입고 생활을 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한다. 앞으로도 영아들의 개별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놀이 환경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8월 화장실에서 놀아요

✧ 기대 효과

배변 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화장실 공간에 대해 친근함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배변 학습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 놀이 배경

교실 놀잇감을 화장실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영아들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놀이를 진행하였다. 특정한 공간에 배치 되어진 도구에도 관심을 보이며 놀이에 활용을 하였고 교사의 지원을 받으며 교실에서처럼 다양한 놀이가 진행되었다.

✧ 영아 경험의 실제



영아가 역할 놀이 놀잇감 중 쟁반에 컵을 올려 화장실로 이동하였다. 화장실 세면대 의자 위에 쟁반을 올려놓고 마시는 흉내를 내어 교사가 스카프를 의자 위에 덮어 식탁보를 만들어 주자 다른 음식 모형을 가지고 이동하여 먹는 흉내를 내었다. 교사가 “00아 선생님은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자 교실 놀잇감 중 햄버거 모양을 가지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교사에게 건네주었다. 다른 영아들도 의자모양 식탁 근처에 다가와 음식을 먹고 마시는 흉내를 내었다.



영아가 음식을 먹는 흉내를 내고 다 먹은 음식과 그릇을 치우는 놀이를 하며 교사가 “00아 우리 다 먹었으니가 그릇을 씻어줄까요?”라고 말을 하자 자연스럽게 세면대로 이동하여 음식 모형과 그릇을 씻는 행동을 하였다. “엄마 이거? 해?”라고 말을 하며 한 영아가 교실로 이동하여 고무장 위에 있던 수세미를 가지고 이동하여 물을 묻힌 다음 그릇을 씻어 주었다. 교사가 “00이는 쉬하고 손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라고 말을 하 물을 틀어 손을 비벼 주었다.



화장실 벽면에 부착된 그림책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가 교사 손을 이끌며 화장실 바닥에 앉아 “엄마 쉬쉬”소리를 내었다. 그림 속 아이가 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교사가 그림책을 읽자 교사의 말소리를 듣고 그림책과 교사를 번갈아 쳐다보며 시선을 맞추었다. 그림책을 다 읽고 난 다음 영아는 휴대용 좌변기를 가리키며 “이거 이거”라고 말을 하였고 엉덩이를 뒤로 빼며 앉는 흉내를 내었다.



변기 모양 제할용품 용기를 보고 관심을 보이는 영아가 손가락으로 눌러 접어보기도 하고 교사가 지원한 모양 스티커를 붙이며 꾸미기 놀이를 하였다. “00이 변기를 예쁘게 꾸며주는구나”라고 말을 하자 “이거 00이꺼야”라고 말을 하며 다른 영아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손으로 막는 행동을 하였다. 교사가 미리 영아가 색칠한 코인 티슈를 용기 안에 넣어주며 “00이도 이렇게 변기에 응가 할 수 있지요?”라고 말을 하자 코인티슈를 눈으로 확인하고 ”응“이라고 말을 하였다. 약병에 물을 넣어 용기 안에 뿌리며 ”엄마 쉬 쉬“라고 말을 하였다.



〔가정 연계〕

영아는 어린이집에서의 놀이 경험을 기억하고 가정에서도 화장실을 사용하며 얼굴과 손을 씻거나 양치질을 할 때 편안한 기분으로 놀잇감을 가지고 이동하여 세면대에서 물과 함께 놀이를 하였다. 영아가 자유롭게 화장실에서 생활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손을 씻거나 옷을 입고 벗는 행동, 변기에 앉아 보며 쉬와 응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가정과 소통할 수 있었다.

✧ 교사의 지원

공간	자료	안전(위생)	상호작용
교실과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화장실 공간에 영아들이 유동성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다양한 놀잇감과 화장실 환경에 그림 자료를 부착하여 관심을 유도하였다. 변기 모형(간식 후 요거트 통 재활용)코인티슈, 약병	영아가 화장실 공간에 한꺼번에 모이지 않도록 교실과 화장실을 유동성 있게 활용하고 화장실 위생에 신경을 썼다.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하여 관련 언어와 행동 모습을 관찰하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며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영아 경험 이해

공간의 전환으로 영아는 주변의 새로운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놀잇감을 활용하며 놀이하는 것에 흥미를 가졌다. 교사와 또래 간 행동과 표정, 소리에 더 집중하며 시선을 맞추거나 모방 행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반복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공간을 탐색할 수 있었다. 또한 영아와 교사가 같은 시선으로 그림책을 보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친밀감을 더 느끼며 좁은 공간을 선호하는 영아는 또래, 교사와 가까이에서 놀이하면서 방해받지 않고 분리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개별 변기가 있는 공간-변기 뚜껑을 닫고 문을 열고, 닫으며 선호도에 따른 놀이 진행-문 안전 손잡이/교사관찰) 주변 공간에 대해 적극적인 호기심을 보였다.

✧ 활동 평가

놀이 공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아들이 한꺼번에 화장실로 이동하여 놀이하는 것을 걱정하였지만 영아들은 놀이 선호도에 따라 공간도 분리하여 놀이를 진행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필요한 놀잇감을 교실에서 가지고 이동하는 영아들과 먼저 놀이를 하던 영아들, 교실이라는 공간을 더 선호하여 다른 영아들의 놀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영아들까지 확장된 공간으로 여기며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교실과 화장실에 각각 배치되어 영아들의 놀이 지원뿐 아니라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였으며 특정 물건(변기와 세면대 등)을 놀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영아들도 놀이 중 자연스럽게 배변 행동을 흉내 내거나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III. 활동평가

※영아 평가

영아들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 뿐 아니라 두려움이 크게 나타났다. 안정적으로 기저귀 갈이를 하던 영아들도 막상 기저귀가 아닌 팬티를 착용하고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변기에 앉아 쉬와 응가를 하는 행동 자체에 거부감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배변과 관련된 놀이를 통하여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대한 거부감과 변기 사용에 대한 소극적인 모습이 능동적인 놀이로 변화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배변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영아 스스로 배변 훈련을 하는 방법을 알아가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또한 어린이집과 가정이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일관된 지도를 받음으로써 영아들은 프로그램 진행 후 배변 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배변 학습을 경험하였다.

※교사 평가

처음 만1세 영아반을 맡고 난 다음 10명의 영아들 중 맞벌이로 늦게까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아가 60% 정도였다. 가정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습관 형성을 어린이집에 의존하였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옷을 입고, 대소변을 가리는 모든 생활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 되었다. 그 중 가정의 부모님들이 특히 조급해하며 걱정하는 부분이 배변 훈련에 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발달 단계에 따른 이론적인 배변 훈련이 아닌 새로운 놀이로의 경험이 필요했다. 기본 배변 단계를 기반으로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놀이에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영아들이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지는 미지수였다. 다행히도 영아들은 공간의 전환 및 확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놀이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교사가 처음 기대한 부분 이상으로 적극적인 놀이가 진행되었고 더불어 배변 관련 행동 및 상호작용도 원활히 진행되었다. 현재 지원하는 놀이 방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다른 연령의 영아들, 교사와의 연계하여 영, 유아가 능동적으로 일상생활 습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원장 평가

일상생활 속에서 영아들의 배변 훈련은 아직 언어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교사가 영아들의 개인차를 파악해 가면서 적절한 지원전략을 세워 일상생활 속에서의 배변 훈련을 돕는 것을 보고 영아들이 의외로 배변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교사는 화장실과 교실, 유희실 등 어린이집 전체를 배경으로 다양한 놀이를 구성하면서 가정과의 연계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영아들에게는 흥미롭고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을 접할 수 있게 되고 교사들은 개별 영아의 발달 수준에 대한 이해가 높아 교사 자신의 교수 실재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었다. 이는 곧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발판이 되었으며 교사는 각 개별 영아의 기질 및 특성에 맞는 자녀 양육 태도와 의사소통 유형 등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교육적 지원 및 바람직한 부모 교사와 협조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내러티브(narrative)

전0준 엄마 : 아직까지 스스로 말하고 배변하러 가지는 않지만 제가 먼저 물어보고 가자는 의사를 표현하면 변기에 앉아 쉬를 하고 있습니다.

김0리 엄마 : 친구 집에서 변기에 앉아서 좋아하더라구요ㅎㅎ 집에서 혼자 기저귀 입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0희 엄마 : 배변 놀이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놀이 중에 응아하는 포즈를 취해주기도 했어요. 변기에서 응아를 해야한

다는 건 조금 아는 듯 하고 거부감은 크게 없어 보였어요. 어린이집에서 놀이를 해서 그런지 응어나 쉬아를 보고 나면 엄마나 아빠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 동료 교사의 내러티브(narrative)

최0아 교사 : 물이 담겨있는 변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영아들이 있었는데 놀이를 통해 친숙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신0혜 교사 : 화장실을 이용하여 영아들과 다양한 놀이하시면서 화장실이 낯선 공간이 아닌 친숙한 화장실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다양한 크기의 좌변기를 활용한 놀이도 즐거워 보였어요

권0경 교사 : 화장실에서의 놀이가 자연스럽게 배변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변기에 서서 쉬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 좌변기에 앉아 쉬를 하기도 하며 관심을 보이는 영아들이었습니다..

구0연 교사 : 동과 비슷한 모양, 색깔만 보아도 "응가"라고 친숙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배변 놀이를 통해 변기 사용, 팬티 입기 등에 대한 이질감이나 거부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정0연 교사 : 유아반에서도 기저귀를 착용하는 유아가 있는데 영아들의 놀이 모습을 보고 놀이 공간의 전환, 새로운 변신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아들도 아직도 변기에서 쉬를 하거나 응가를 할 때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화장실과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기대효과

▷ 일상에서 영아들은 배변 행위를 즐거운 놀이로 경험.

영아의 기본생활 습관인 수면 습관, 수유 및 식습관, 배변, 씻기 습관은 연령별, 월령 전, 후반기 집단 간에 차이가 있으며 부모를 비롯한 교사는 자녀의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개별적으로 다르게 지원을 해야했다.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양한 월령의 영아들의 관심 정도와 발달 단계의 개별화로 일관된 지도 방향을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상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지만 영아들의 특성상 교사가 지원하는 놀이나 활동보다 **영아들 중심**으로 놀이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져 자신의 배변 행위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배변 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

▷ 가정과 교사와의 긴밀한 소통 및 긍정적인 교류

가정에서 부모가 고민하는 부분을 알고 교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놀이와 배움의 연계성을 만들어 갔다. 가정에서의 배변 습관을 교사와 함께 공유하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관찰한 다음 다시 가정과 연속적으로 지원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프로그램을 가정과 지속적으로 연계하며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어린이집에 대한 긍정적 기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교사의 전문적 지식 향상과 역할의 중요성

영아들의 바람직한 배변 습관 형성을 위하여 교사는 관련 놀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개별 영아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각 영아의 배변 행동 리듬을 미리 파악,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대처하는 능력을 갖춘다.

영아가 가정에서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긍정적인 배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는 지속적인 관심과 칭찬, 격려의 행동 및 언어 표현이 이루어진다.

2. 2024년 연간프로그램 계획

2024년에는 구체적인 단계를 계획하여 영아가 배변 놀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실행 시 화장실 공간을 활용하며 지원 계획에 공간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 진행할 예정이다.

배변 놀이 계획안

단계	기간	공간(화장실) 주제	
1단계	3,4,5,6월	봄의 화장실	
2단계	7,8,9,10,11월	바닷속 화장실/동물원 화장실	
3단계	12,1,2월	겨울 왕국 화장실	

단계	기간	배변 주제	프로그램
1단계	3월	환경 탐색	편안한 장소에서 기저귀를 갈아요
	4월		내 기저귀 서랍을 알고 좋아하는 기저귀를 찾아요
	5월	기저귀 탐색	친구와 내 기저귀는 달라요/같아요
	6월		축축해요, 뽀송뽀송해요
2단계	7월	변의 표현	쉬, 응가를 표현해요
	8월	아기 변기와 친해지기	아기 변기를 꾸며요
	9월		아기 변기에 앉아 응가 책을 봐요
			아기 인형이 변기에 응가해요 아기 변기에 쉬, 응가하고 손을 닦아요
	10월	팬티와 친해지기	내가 좋아하는 팬티가 있어요
	11월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아기 변기에 앉아요
3단계	12월	화장실 탐색	배변 길을 만들어요(화장실은 새로운 놀이터)
	1월	화장실 변기 경험	낮잠 자기 전, 후에 화장실에 가요
	2월		변기에 앉아 쉬를 해요

V. 참고문헌

김영천 (2006). 질적 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나숙자 (1976). 부모들의 영유아 대소변 가리기 훈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희연 (2007). 배변훈련 과정을 통해 본 영아의 분리와 전이 경험. 유아교육학 논집, 12(1), 289-317

노희연(2010). 영아의 배변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놀이’의 의미 탐색. 숭의여자대학 사회과학>교육학 석사학위논문

국립 교육 평가원 1995

이원영, 방인옥, 박찬옥1992

보건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2022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사례집(일상생활을 놀이로 지도하기)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2023년 우수보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놀이」 공모

<장려상>

근로복지공단안산어린이집

어린이집 유 형	법인 · 단체
지 역	안산시
프로그램명	인성챌린지? 인성체인지!
총 괄	이형양
기획 및 운영	김혜정, 유혜영, 강은혜

I. 서론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인성’이 화두다.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의 유명 인사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인성에까지 세상 이목이 집중되어 있으며 누군가의 인성을 칭찬 또는 문제를 지적하는 뉴스기사나 상의 글들이 넘쳐난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못하여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통제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우발적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인성의 부재가 지적되면서 인성교육은 사회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급기야 인성교육을 법으로 제정하기에 이르렀다.(박리나, 황해익. 2017) 이처럼 인성이 부족한 우리 상황은 현재 사회에 닥친 큰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성이란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격, 성품, 성향, 개성, 기질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Berkowitz & Grych, 2000). 이렇듯 인간의 본성을 올바르게 다루고 형성시키기 위해서 인성교육은 필수이며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다. 또 한, 인성교육은 자신의 삶을 건전하게 지키며 타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길러주며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교육이다.

인성교육은 ‘지,정,의’를 골고루 갖춘 전인교육을 의미하며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유아들이 창의적이고 건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의 올바른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아들의 발달에 알맞은 교육 방법이 모색되어지고 또한 유아교육기관 인성교육의 중심은 유아 개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도울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하며, 경쟁주의가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중심에 두는 교육을 인성교육의 중심으로 삼고 교육 과정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인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계 하였다. 유아 인성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의 어느 한 곳의 문제만은 아니며 서로의 협조와 관심이 있을 때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유아교육 기관,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을 기하고 인성교육 활동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교육에 대한 더불어 사는 태도와 우리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부산교육청 인성교육.2013)

하지만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영향력 감소로 가정 내에서 자녀들의 기질 및 발달, 양육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인성교육에 대해 관심을 보이더라도 어떻게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효과적으로 인성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한 점차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인성 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르거나 부족한 경우가 보였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유아기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과 가정 내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성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인성교육을 다소 어려워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쉽고 반복적인 인성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 한 한 발 더 나아가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진 부모님들을 위해 조금 더 심도 있는 부모 인성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유아 뿐 아니라 한 가정 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올바른 인격형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는 유아기 시절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가정 내에서는 유아의 인성교육이 특별히 어렵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한 현재 추구 하고 있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으로 유아들이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의미를 알고 더불어 활동하는 놀이를 스스로 발견하고 경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프로그램의 실시배경 (이론적 배경)

현대사회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인간성의 타락 및 윤리부재의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는 미성년자들의 폭력 및 각종 범죄 사건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며, 현 교육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학교 내의 폭력이 학생들의 인성문제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폭력,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근절하기 위해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시책의 하나로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을 제시하였다. 이에 다양한 교육기관에서는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실천사례를 공모하는 등 학교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유아교육분야에서도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능력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인성교육의 덕목에 따른 활동과 가정과의 연계성이 강조되고 있으며(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최근 제정된 누리과정에서도 인성교육의 실천이 교육과정 구성의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되는 등(교육부, 2013) 인성교육의 적기가 유아기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Berkowitz & Grych, 2000).

인간성과 도덕성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폭발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유아기는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성인 및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과는 차별화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에서도 유아기 인성교육은 특정시간 동안 집중적인 지도를 통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생활하는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서 통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여 유아기 발달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박리나, 황해익. 2017)

인성교육은 형식적 교육보다 비형식적이고 일상적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특히 유아기에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교육부, 2012). 즉, 유아기는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형성된 인성은 전 생애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가정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습관과 문화 등을 배우는 삶의 터전으로 부모는 자녀의 행동구조와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연계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손봉호, 2010; 조을순, 2001; 이명순, 2008). 따라서 가정연계를 통한 인성교육활동은 유아기의 긍정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질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김창희, 2014).

유아 인성교육은 크게 기본생활습관 덕목, 사회정서적 덕목, 윤리도덕적 덕목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생활습관 덕목에는 청결, 정리정돈, 질서, 식습관, 예절, 절제, 공공규칙, 배려 등이 포함되고, 사회정서적 덕목에는 자아존중감, 협력, 대인관계기술 등이 포함되며, 윤리도덕적 덕목에는 효도, 우애, 애국심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최민수, 2011).

이처럼 오래전 OECD는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성공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역량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협업 능력, 글로벌 사회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성교육에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전한 인성을 함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미래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도 인성교육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다.

II. 본론

1. 프로그램 내용

1) 활동기간

- 2022. 04. ~ 2022.10

2) 활동대상

- 만 1세~ 5세 전체 영·유아 및 부모

3) 프로그램 연간

월	인성 덕목 및 목표	활동 그림책 및 UCC활동	대상	활동 내용	부모교육 (전체 교육 및 소모임)
4	소통	- UCC : 프로그램 전 반적인 소개 UCC	가정연계	- 프로그램 사전 설문지 - 전체 부모교육 가정통신문 '소통' 이란 무엇일까요?	- 부모 소모임 1기: ① 인성과 인성교육 / 소통이란?
			어린이집	- 바른 자세로 인사를 해요 - 어떻게 인사할까?	
5	소통 + 예절	- UCC : 예절 관련 안내	부모	- 전체 부모교육 가정통신문 '예절' 이란 무엇일까요? - '오늘 몇 번이나 인사를 했나요?' 체크리스트	- 부모 소모임 2기: ① 예절 교육
			아동	- 어른과 친구들을 대할 때의 행동	
6	소통 + 예절	- UCC : 그림책 내용 을 통한 예절 관련 활동 안내 - 그림책: 주세요, 주 세요	부모	- 공공장소 예절: 부모가 먼저해요	→ 활동 시 상장 배부 [부모인성 상-예절]
			아동	- 존댓말 알아보기	
7	소통 + 존중	- UCC : 존중이 뭐에 요?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존중 사례)	부모	- 전체 부모교육 가정통신문 '존중' 이란 무엇일까요? - 우리 가족만의 애정 표현법	- 부모 소모임 3기: ①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려면? (존중의 방법과 타당한 칭찬 방법 안내) ② 존중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③ '동화텔링'(다문화가 정의 엄마가 원어로 읽 어주는 동화)
			아동	- 나를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 - 친구들과 서로의 이름을 불러요	
8	소통 + 존중	- UCC : 그림책 속 다양한 존중과 그 의미 - 그림책: 하양이는 친 구가 많아요	부모	- 존중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존 중한 내용 수기 공모전)	→ 활동 시 상장 배부 [부모인성 상-존중]
			아동	-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서로 다른 모습 알아보기 - 존중 관련 포스터 만들기 (캠페인 활동)	
9	소통 + 협동	- UCC : 협동이 필요 한 이유	부모	- 전체 부모교육 가정통신문 '협동' 이란 무엇일까요? - 가족 구성원 도움을 준 인증 사 진	- 부모 소모임 3기: ① 부모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활동 ② 공동체 의식이란 무 엇일까요? - 우리 주변 에서 찾을 수 있는 공 동체 의식
			아동	- 나도 도움 수 있어요 → 동생, 형님 짝궁 반 만들기 → 오늘의 도움이 선정	
10	소통 + 협동	- UCC : 그림책 속 다양한 협동 방법 - 그림책: 민들레의 여 행	부모	- 우리 집만의 재미있는 가족 협동 놀이 (투표) - 자연을 위해 함께 해요 (환경 보 존을 위한 활동 인증사진)	→ 활동 시 상장 배부 [부모인성 상-협동]
			아동	- 자연과 함께 해요	

4) 활동방법

활동 방법	매 월 인성 덕목 관련 안내 및 활동 UCC 업로드 (한 달-기본생활/ 한 달-그림책심화)	어린이집 활동 (일상생활속 기본생활습관 / 전이시간 그림책 읽기 및 놀이연계)	가정연계 활동 (인증 활동)	부모 교육 (부모 소모임)	두 달씩 인성 덕목 관련 활동 마무리 안내
----------	--	---	--------------------	-------------------	----------------------------

단계	세부 단계	세부내용
1 단 계	준비	▶ 필요성 인식 - 최근 학교 폭력 및 무차별 살인 등 인성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유아 인성 교육에 대해 인식 - 코로나로 인해 가정 및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 속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과 함께 연계한 능동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 교사 교육 - 온라인 인성 교육 ‘한국보육진흥원 - 마음성장’ - 자체 인성 연수 및 토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성교육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상호작용 및 놀이 시 지원)
2 단 계	계획	▶ 진행계획에 대한 협의 -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활동부터 가정으로 연계되는 교육 활동을 계획함에 있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협의 ▶ 인성 활동 예상 계획안 수립 - 인성 관련 놀이 활동 자료 조사 - 사전 설문지를 통해 다양한 인성 덕목 중 기관과 가정에서 필요할 것 같은 인성덕목을 중심으로 예상 활동 계획안 수립 ▶ 가정연계 활동 및 부모교육 예상 계획안 수립 - 가정연계로 어린이집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의 활동 계획안 수립 -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성활동 활동 뿐 아니라 활동되는 인성 덕목에 맞춰 조금 더 심도 있는 부모교육 계획안을 수립
3 단 계	활동 진행	▶ 활동 진행 - 사전 설문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인성덕목을 주제로 일상생활, 기본생활 속에서 진행 - 인성 관련 그림책 읽기 및 놀이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짐 ▶ 진행과정에 대한 공유 - 유아들의 놀이가 가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성과 관련된 놀이 방법 제시 및 활동 방법 등에 대해 공유
4 단 계	활동 평가	▶ 부모님과 상담을 통한 일상적 평가 - 등, 하원 시 또는 수시로 전화상담, 정기적 상담을 통해 가정연계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 및 영유아와 부모의 변화 대해 매일 평가하고 지원하는 시간을 가짐. ▶ 체계적 평가 - 월 총 평가를 통해 기관과 가정에서 이루어진 인성 놀이에 대한 전체 흐름을 평가하며 부모 인성교육 활동을 평가하여 부족하거나 보충해야 할 부분을 평가함.

2.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

인성챌린지? 인성체인지! ‘소통’

주제	소통	활동 날짜	4월
소주제	올바른 인사예절	연계활동 여부	가정연계활동 ☒ 지역사회활동 ☐
활동목표	소통의 의미를 알고 실천해본다.		
활동자료	· 공통) 프로그램 사전설문지, ‘소통’이란 무엇일까 가정통신문		
표준보육과정 연계요소	· 기본생활>건강하게 생활하기>하루일과를 즐겁게 경험하기 · 사회관계>더불어 생활하기>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킨다.		
누리과정 연계요소	· 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 사회관계>더불어 생활하기>친구와 어른께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활동 방법 및 활동 사진	◆ 어린이집 활동  선생님께 인사해요  바른 자세로 인사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해요		
	1. 바른자세로 인사해요 ① 선생님께 인사하기 - 어린이집에 등원해 선생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② 바른 자세로 인사하기 - 바르게 인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 바른 방법으로 인사 해 보니 기분이 어떤가요? ③ 상황에 맞게 인사말 알아보기 - 밥을 먹기 전 어떤 인사말이 있을까요? - 밤에 잠을 자기 전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인사말이 있을까요? 2.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해요 ① 다양한 방법의 인사법을 알아보기 -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하는 인사법이 있나요? - 다양한 인사법을 알아볼까요? ② 친구와 선생님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인사 해 보기 - 다양한 인사법 중 친구에게 하고 싶은 인사법이 있나요? - 내가 하고 싶은 인사법을 사용하니 어떤 기분인가요?		

◆ 가정연계 활동



가정통신문 발송



우리가족의 놀이방법



우리 가족의 소통방법

1. '소통은 무엇일까요?'

① 우리 가족의 놀이방법

- 놀이 할 때 가족과 어떻게 소통하나요?
- 우리 가족만의 놀이 방법이 있나요?

② 우리 가족의 소통 방법

-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족만의 소통법이 있나요?
- 가정에서 언제 소통이 필요할까요?
- 가족만의 소통 법을 사용하니 어떤가요?

◆ 부모 소모임 활동



부모 소모임 1기



'소통이란?'



'나의 실천다짐'

① 인성과 인성교육

- 인성덕목을 알고 있나요? 영유아 놀이를 통한 배움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② 소통하기 위한 우리의 인성

- 우리 아이의 올바른 인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나요?
-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어린이집>

- 기본생활 습관 중 하나인 '인사'에 대한 활동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인성의 가장 기본인 인사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올바른 습관을 형성해 볼 수 있었다.
- 우리 반만의 다양한 인사법을 정해보고 기본적인 인사가 아닌 유아들의 개성 있는 인사법을 통해 평상시 인사를 하기 힘들어하는 유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해 볼 수 있었다.

<가정>

- 의사소통이 힘든 가정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가정연계활동으로 어려움 없이 참여 할 수 있었다. 또 한 자녀와 할 수 있는 소통법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자녀와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아빠도 함께 참여하면서 놀이, 소통하니 아이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어 좋았다고 평가해주셨다.

<부모교육>

- 부모 소모임을 통한 부모 교육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참여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으며, 인성의 첫걸음이 어렵지 않음을 알고 이해할 수 있었다.

평가 및
유의사항

인성챌린지? 인성체인지! ‘소통 + 예절’

주제	소통 + 예절	활동 날짜	5월 ~ 6월
소주제	예절을 배워요.	연계활동 여부	가정연계활동 ☒ 지역사회활동 ☐
활동목표	예절의 의미를 알고 때와 장소에 맞게 예절을 지킨다.		
활동자료	· 공통) 예절 그림책, 상황별 인사 사진 자료, 존댓말 교구		
표준보육과정 연계요소	· 기본생활>건강하게 생활하기>하루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 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누리과정 연계요소	· 사회관계>더불어 생활하기>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 사회관계>더불어 생활하기>친구와 어른께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활동 방법 및 활동 사진	◆ 어린이집 활동  예절 그림책 탐색  어른과 친구들을 대할 때 행동 알아보기  존댓말 알아보기		
	1. ‘예절이 필요해’ 그림책 탐색 ① 예절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 동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 동물들의 행동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2. 어른과 친구들을 대할 때 행동 알아보기 ① 같은 의미 속에도 어른과 친구들 대할 때 다름이 있는지 경험을 토대로 알아본다. -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줬본 적이 있나요? - 친구에게 줄 때와 어른에게 줄 때는 어떻게 줬는지 기억나나요? ② 왜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 어른이나 윗사람에게는 공경의 의미로 두 손으로 물건을 주거나 두 손으로 받아야 한 대요. ③ ‘물건 주기 게임놀이’ 확장 - 카드 게임에서 엄마, 아빠가 나오면 물건을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3. 존댓말 알아보기 ① 같은 상황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름을 알아본다. -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나요? - 어른께는 어떻게 인사를 하나요? ②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 어른께 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할까요? - 존중하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가정연계 활동



상황별 인사 방법

‘오늘 몇 번이나 인사를 했나요?’ 인사체크리스트

공공장소에서 지켜야할 예절

1. 상황별 인사 방법& ‘오늘 몇 번이나 인사를 했나요?’ 인사 체크리스트

① 상황에 따른 인사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친구와 어른께 어떻게 인사를 하나요?
- 오늘 몇 번이나 인사를 했나요?

2. 공공장소에서 지켜야할 예절

① 상황에 따른 공공장소 예절에 대해 알아본다.

- 영화관에서 지켜야할 예절은 무엇이 있을까요?
- 지하철에서 지켜야할 예절은 무엇이 있을까요?

◆ 부모 소모임 활동



부모 소모임 2기

미리 찾아보는 나의 <예절>지수

가족을 위한 전략(예절)

① 예절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 간 지켜야할 예절에 대해 알아본다.

- 예절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현재 나는 예절을 잘 지키고 있나요?
- 가족 간 지켜야할 예절은?/ 어떻게 하면 우리아이를 예절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

- 예절을 지키는 것이 존중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표현방법임을 알아보면서 서로 눈을 맞추고 인사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예절의 의미를 알고 실천해볼 수 있었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영유아 자신도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가정>

- 예절은 남을 배려하는 선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알아보면서 예절을 실천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가정에서도 예절을 지키며 가족 간 친밀감과 가족애가 향상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부모교육>

- 부모 소모임을 통해 부모님들이 인성과 관련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었다. 단순히 부모 교육에서만 끝나지 않고 인성과 관련된 책을 추가적으로 나누어 주어 가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평가 및
유의사항

인성챌린지? 인성체인지! ‘소통 + 존중’

주제	소통+존중	활동 날짜	7월 ~ 8월
소주제	존중이 뭐예요?	연계활동 여부	가정연계활동 ☐ 지역사회활동 ☐
활동목표	존중의 의미를 알고 실천해본다.		
활동자료	· 공통) 그림책 ‘하양이는 친구가 많아요’		
표준보육과정 연계요소	· 사회관계>더불어 생활하기>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 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누리과정 연계요소	· 사회관계>더불어 생활하기>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 예술경험>창의적으로 표현하기>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활동 방법 및 활동 사진	◆ 어린이집 활동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서로 다른 모습 알아보기  친구들과 서로의 이름을 불러요  존중 관련 포스터 만들기 (캠페인 활동) 1. 존중에 대해 알아보아요 ①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서로 다른 모습 알아보기 - 친구와 나는 다른 모습이 있어요. - 우리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나요? ② 친구들과 서로의 이름을 불러요 - 우리는 모두 이름이 있어요. 친구의 이름을 불러줄까요? - 이름으로 불러주니 기분이 어떤가요? 2. 존중 관련 포스터 만들기 ① ‘하양이는 친구가 많아요’ 그림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눈다. - 하양이와 바닷속 친구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 하양이는 바닷속 친구들과 어떻게 놀이했나요? ② 서로 다른 모습이어도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존중’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함께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 존중은 어떤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③ 지역사회연계-‘존중 캠페인’ 확장 - 친구와 함께 만든 포스터를 들고 어린이집 주변 캠페인 활동하니 기분이 어떤가요? ◆ 가정연계 활동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만의 애정 표현법



존중할 수 있어요(수기)

1.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① 우리 가족만의 애정 표현법

- 우리 가족만의 애정 표현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가족이 함께 애정을 표현하니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② 가족 존중 수기 공모전

-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했나요?

◆ 부모 소모임 활동



부모 소모임 3기



존중 캠페인



동화텔링

①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려면?

- 우리 아이를 위한 존중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아이를 존중하는 칭찬 방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어린이집>

- 하루일과를 보내는 동안 영유아들은 또래와 서로 다른 모습을 살피고 탐색하며 또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다가가고 서로의 마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 그림책을 통해 서로 다른 우리의 모습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며 또래와 함께 그림으로 존중 포스터를 만들어 지역사회활동으로 어린이집 주변을 산책하며 유아들이 직접 그린 포스터를 들고 캠페인 활동하며 확장될 수 있었다.

<가정>

- 존중의 의미와 원내 활동에 대해 안내드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존중 방법에 안내하여 가정에서도 영유아들이 존중을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 가족만의 애정 표현법 사진을 공유받아 어린이집 현관에 전시하여 등, 하원시에도 부모-자녀 간 간단한 애정표현이 자주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

<부모교육>

- 부모 소모임 활동이나 가정 내 존중 캠페인, 동화텔링 등 다양한 부모 참여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여 부모님과 영유아들이 인성 프로그램과 존중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평가 및
유의사항

인성챌린지? 인성체인지! ‘소통 + 협동’

주제	소통+협동	활동 날짜	9월 ~ 10월
소주제	협동이 필요해요.	연계활동 여부	가정연계활동 ☐ 지역사회활동 ☐
활동목표	협동의 의미를 알고 실천해본다.		
활동자료	· 공통) ‘민들레의 여행’ 동화/ 쓰레기봉투와 집게		
표준보육과정 연계요소	· 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 사회관계>더불어 생활하기>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누리과정 연계요소	· 의사소통>책과 이야기 즐기기>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 사회관계>더불어 생활하기>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활동 방법 및 활동 사진	◆ 어린이집 활동		
	 작금 동생 정하기  동생 손씻기 도와주기  동네 산책하며 쓰레기 줍기 1. 나도 도울 수 있어요. ① 동생, 형님 짝궁 반 만들기 - 짝궁을 해보고 싶은 형님, 동생반이 있나요? - 짝궁이 되면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② 오늘의 도움이 선정 - 도움이가 되어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 도움을 주고 난 후 기분은 어떤가요? 2. 자연과 함께 해요. ① ‘민들레의 여행’ 동화를 함께 읽고 이야기나누어본다. - 새싹이 왜 숨을 쉴 수 없다고 했나요? - 꽃들과 새싹, 바람은 어떻게 도움을 주었나요? ② 자연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우리가 자연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무엇이 있나요? - 우리가 자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③ 지역사회연계 - ‘동네 산책하며 쓰레기 줍기’ 확장 - 깨끗해진 어린이집 주변을 보니 기분이 어떤가요?		

◆ 가정연계 활동



가정통신문 발송



빨래 개기



장바구니에 쇼핑하기

1. ‘협동이란 무엇일까요?’ 가정통신문

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집안일하기

- 가족을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나요?
- 내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② 가족과 함께 하는 [자연지킴이] 협동활동

-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연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 자연지킴이 활동을 하고 나니 기분이 어떨까요?

◆ 부모 소모임 활동



부모 소모임 4기



‘협동’상 배부



‘협동’상 배부

① 공동체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 우리 가족들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동은 무엇이 있나요?
- 가족, 이웃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린이집>

- 연령이 다른 짝궁반을 선정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자연스럽게 관찰되었다. 동생반도 도움을 주었던 형님반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며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그림책을 통해 협동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확장되면서 이웃, 우리 동네까지 살펴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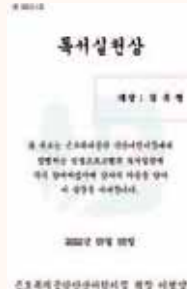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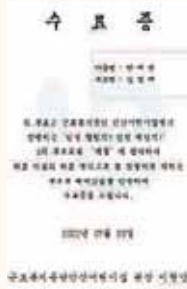
- 가족들과 힘을 합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가족애가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함께 해낸 일들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도 또한 배로 커졌다고 높게 평가 해주셨다.

<부모교육>

- 가족구성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며 협동 뿐 아니라 존중과 연계하며 인성교육의 지속성이 이루어졌다. 또 한 가까운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나라 그리고 자연 환경까지도 관심을 가져 보는 기회가 되었다.

평가 및
유의사항

◆ 부모 인성 소모임

인성덕목	내용	소모임 사진
1기 소통하는 세상을 위한 인성 덕목	1. 생각해보는 한 토막 -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 : 집단 따돌림/ 인성 되돌아보기/ 나의 다짐 2. 인성이란? - 주변에서 좋은 인성을 갖춘 사람은 누구인가요? - 인성덕목 : 예절,효도,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 인성교육이란? 3. 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 : 인성 체인지? 인성 챌린지! 4. 가족과 함께 해보기	
2기 소통+예절	1. 생각해보는 한 토막 - 가까운 사람들간의 예절 : 예절이라는 윤활유/ 말과 행동은 함께. 2. 미리 찾아보는 나의 <예절>지수 3. 본질탐구 : <예절> 너의 정체는 무엇이나? -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을 바깥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 4. 미래탐구 : <예절> 너를 어디에 쓸고? 5. 나를 위한 전략 : 나부터 바꿔보자! 6. 아이를 위한 전략 : 아이도 바꿔보자! 7. 가족을 위한 전략 : 모두 다 바꿔보자! - 아이를 위한 슬로건 / 부부를 위한 슬로건	
3기 소통+존중	1. 자존감 너의 정체는 무엇이나? - 자존감을 형성하는 3요소. 2. 나를 위한 전략 : 나부터 바꿔보자! -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하기 3. 아이를 위한 전략 : 아이도 바꿔보자! -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말 4. 가족을 위한 전략 : 모두 다 바꿔보자! - 우리 가족 다짐문, 우리 가족에게 바라는 것	 
4기 소통+협동(나눔)	1. 지난 시간 돌아보기 - 우리 아이의 인성 토대 다지기 : 부모 - 자녀관계 2. 생각해보는 한 토막 - 아프리카에 뿌린 나눔 씨앗 3. 나를 위한 전략 : 나부터 바꿔보자! -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4. 아이를 위한 전략 : 아이도 바꿔보자! - 그림책으로 나눔 가르치기/ 사진으로 나눔 가르치기 5. 가족을 위한 전략 : 모두 다 바꿔보자!	 

III. 활동평가

아동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지향하면서 인성교육을 놀이에 접목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인성교육은 어린이집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등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여 아이, 부모,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고 함께 진행이 되었다. 활동평가에 따른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적 측면

인성교육은 단순히 이론만으로 따로 가르칠 수 없으며 일상 속 놀이 활동, 기본생활습관, 인성 덕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등 여러 상황과 시간 속에서 다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진다. 또 한, 대상이 영·유아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지역사회, 교사 모두에게 중요한 교육적 요인이 되며 현재 주목받고 있는 지속가능한발전교육(ESD)와 접목하여 보았을 때도 가족, 이웃, 자연환경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행동 및 자신과 사회의 의미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으로 인성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영·유아 측면

기관과 가정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유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인성 덕목에 대한 지식,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을 이해하고 더불어 가는 태도, 더 나아가서는 환경까지 생각하는 행동 변화 등 유아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들이 실제 어린이집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한 인성 덕목을 어렵지 않게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소통, 예절, 존중, 협동 등의 다양한 인성 덕목들이 영·유아들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기보다는 또래, 가족 및 자연과 교감을 통해 상대방의 상호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고 표현해 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또한 주변의 사람이나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한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존중하는 마음가짐과 긍정적 자아개념이 발달될 수 있었다.

3) 교사 측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인성교육을 기관과 가정연계가 함께 진행하면서 인성덕목을 다양한 상황의 놀이로 적용할 수 있었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었다. 또 한 유아기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인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한, 교사가 영·유아에게 모델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영유아의 좋은 모델이 되어 자연스럽게 배워갈 수 있도록 인성 덕목과 부합하여 긍정적이고 자발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 한 번 영·유아의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었다.

4) 부모 측면

부모들이 영·유아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인성 소모임과 가정연계활동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직접 경험해 보고 느끼는 활동 및 부모 인성 소모임(1기, 2기, 3기, 4기)에 직접 참여해 보면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인성교육은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또 한, 함께 하는 활동으로 교사 및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 또한 증진될 수 있었으며 교사, 영·유아 뿐 만 아니라 부모 인성 교육활동이 함께 접목되어 이루어져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고 인성의 첫 걸음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가정 내 인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IV. 향후 프로그램 확장 및 일반화 제언

1. 2024년 연간프로그램 계획 및 제언

본 원에서 진행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전 연령이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인성의 여러 덕목 중 사전 프로그램 설문지를 통해 부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을 골라 중점적으로 활동되어 이루어졌다. 영·유아와 부모에게 인성교육의 첫 걸음으로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거나 쉽게 지나쳤던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모두가 쉽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들로 계획되어 있어 흥미를 가져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 한, 인성 교육은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며 일회성에서만 끝나지 않고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정과 연계하여 놀이하는 가정연계 인성활동과 부모 소모임 교육은 조금 더 확장하여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인성 프로그램이 단순히 한 가지 덕목에서만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활동 속에서도 여러 가지 덕목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개발하는 인성프로그램은 조금 더 다양한 덕목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접목시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아동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이 진행되다 보니 다양한 놀이 주제와 관련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한 가지 덕목을 정해서 놀이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영·유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성 덕목을 찾아보고 연령에 따라 수준별로 조금씩 더 심화된 다양한 인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V. 참고문헌

1. 2013년 정책연구개발사업 연구보고서 -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교육부) 책임연구자 서울대학교 정창우
2. 2016년 6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제1차 인성교육 포럼 - 조난심 ‘인성교육 정책의 목적과 방향’
3.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육부(2011)
4. 인성교육의 철학적 기초. 한국 유아교육·보육행정학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손봉호(2010)
5. 유아인성 및 인성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과 과제. 박리나, 황해익(2017)
6. 교육과학기술부(2012).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2013). 인성교육 강화 기본 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7. 유아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김영옥, 장명림, 유희정(2009).

